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37 / September / 2005

0509

#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모기서원 - 정윤규건축

건축사 2005 / 09

Korean Architects

# Contents



25

28

35

##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5 09 437호

<b>칼럼</b>	건축의 날 제정과 향후 과제	장양순	14
<b>건축만평</b>		유원재	17
<b>시론</b>	화이부동, 동이불화(和而不同, 同而不和)	하영호	18
<b>회원작품</b>	좋은 강안병원	이상림 + 서해천	20
	우림 라이온스밸리	나승민	26
	민마루(소나무주택)	최삼영	34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윤철준	40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평화가 함께	서보광	48
	삼전제약 사옥	안길원	54
<b>계획작품</b>	천주교 미산교구 교구청단지	손기찬	62
<b>설계경기</b>			66
<b>기고</b>	KBC 2005에 대하여	왕한성	80
	제22차 UIA 총회를 다녀와서	FKA 대표단	82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사업(B.T.L)	최병관	87
<b>연재</b>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06	박진호	93
<b>건축마당</b>	협회소식		102
	건축계소식		108
	건축상담		111
	회원광장		113
	통계		117
	해외잡지동향		119

발행인 이철호  
 편찬위원 장양순, 손기찬, 유원재, 박호권,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인쇄 (주)영림인쇄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42



53



56

# Korean Architects

Vol. 437  
September 2005

## Column

The Inauguration of "Day of Architecture" and the Remaining Tasks Chang Yang-soon 14

## Cartoon

Yoo Won-jai 17

## Current view

Sound of Different Drums Ha Young-ho 18

## Works

Good GangAn Hospital Lee Sang-leem & Seo Hae-cheon 20

WOOLIM Lion's Valley Na Seung-min 26

Minmaru-VI(Pine tree house) Choi Sam-young 34

Daegu Welfare Center for Senior Yoon Chul-joon 40

Peace Be With You Suh Bo-kwang 48

Samjin Pharm Headquarters Ahn Kil-won 54

## Process works

Diocese of Masan Complex Sohn Kee-chan 62

## Competition

66

## Feature

About Korean Building Code 2005 Wang Han-sung 80

Attending the 22nd UIA Meeting FIKA 82

A Construction of Education Facilities by B.T.L Choi Byeong-kwan 87

## Serial

Housing Flexibility - Design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Park Jin-ho 93

## Architects' Plaza

Kira News 102

Archi-Net 108

Question & Answer 111

Members Board 113

Statistics 117

Overseas Journal 119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Sohn Kee-cha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un, Shin Ho-gue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 건축의 날 제정과 향후 과제

The Inauguration of "Day of Architecture" and the Remaining Tasks .....

### 제정 과정

우리협회를 비롯한 FIKA 3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주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에서 주관하는 '2005 건축의 날' 행사가 오는 9월 23일 오후 4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새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UIA에서 10월 첫째 주를 세계건축의 날로 제정한 것이 1996년이니 10년만의 일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 모두가 경하해야 할 날이다.

건축의 날은 건축학회에서 구상하여 작년 10월 전 우리협회 송수구 회장 직무대행(2회 모임부터 김선양 이사로 교체, 금년 4월 5차 회의 부터 필자로 교체)과 건축가협회를 대표한 최동규 홍보이사 그리고 김영하 학회부회장(위원장) 외 2인 등 5명이 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4월 부터는 11명, 7월부터는 32명,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의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첫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이렇듯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했으나 학회 위주의 운영으로 모든 건축인의 공감을 사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회의록을 보면 첫 모임에서 FIKA 3단체가 예산의 공동출연 등을 결의한바 당연히 공동주최가 되어야함에도 필자가 참석했을 때는 학회 단독 주최로 둔갑되고 행사도 학회창립 60주년과 함께 치르게 계획되어 있었다. 위원수가 5명에서 30명 이상 증가해도 우리협회나 가협회의 인원은 동결되었으며 분과위원회에도 홍보분야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학회회원으로 전원 총원되었다. 모건설사 임원 등 외부위원 3명은 무늬만 범 건축계를 표방하는 것이 된 셈이다. 제정배경문은 '학회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건축학회회원과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로 서두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결국 필자의 주장으로 공동개최와 공적심사소위에 참여를 하게 되었으나 위원배정과 함께 예산의 비공개 등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다. 이 중에도 가장 심한 것은 위원회에 대한 학회의 균립이다. 주관이 학회지만 위원회는 엄연히 타 협회 회원까지 망라한 엄연히 독립의결기구인데,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학회의 말 한마디에 간단히 뒤집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위에 기록한 제정배경문 서두 삭제의결의 회귀 같은 것이 한 예이다.

건축의 날 제정 아이디어는 금년으로 이미 5회 행사를 마친 토목의 날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건설인의 날과 별도로 토목의 날이 제정된바 이를 살펴보면 주최가 토목학회 단 한단체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틀이 잡혀가고, 대통령상은 물론 훈장까지 포상하고 있다. 학회가 독자적으로 주최와 주관을 하려하면서 이를 정상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마도 토목의 날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해와 용납은 다르다. 어느 한쪽이 베풀거나 우위에 선다면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다. 주관은 주최자 모두에 대한 봉사이지 힘의 행사는 아니다.

건축인 모두의 공감을 얻어야 진정한 건축인의 축제로서 승화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단체의 독단이 아닌 범 건축계가 두루 참여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건축인의 선언은 와우아파트, 삼풍사고 등에 대한 자성(自省)과 대국민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건축이 목적에 맞게 완성되고 사용하려면 설계자와 시공자가 필요하다. 또한 그 근저에는 이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필요하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완벽한 것이 창출된다. 따라서 FICA와 건설협회는 당연히 주최자가 되어야하고 항상 주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건축관련단체가 모두 주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주최자와 후원자로 나눌 것인지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일로 사료된다.

### 건축의 날, 날짜는 최선인가

경복궁의 창건일을 건축의 날로 삼은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는 제정날짜의 역사적 고찰에서 주장하는 '조선의 정궁'이라는 의미보다는 현존 건물들이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후 1800년대 중반 대원군에 의해 중건되기는 했어도 전통건축물, 특히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건축물이 많이 존재하며, 영역이 넓은 점에서 그 타당성을 부여하고 싶다. 그러나 민중사학자나 진보적 역사관은 궁궐을, 백성들을 착취한 절대왕조의 본산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국민 모두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에는 그 타당성이 완벽하지 못하다. 이에 비하여 1962년 1월에 제정된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필자의 참석 전 회의에서 이문제도 거론되었으나 '기념일은 10월 전후'라는 조건 때문에 일찍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타 기념일을 보면 국회 상정일이나 법안제출일 등을 택하기도 하는 바 좀 더 조사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건축인의 선언, 무엇을 담아야하나

프로그램을 보면 기념식 중 건축인의 선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민족의 독특하고 유구한 건축문화의 전통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우리는 건축문화 창달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자 건축의 날을 제정하고 다음사항을 다짐한다' 라는 전문아래 첫째, 문화 창달의 주역으로 쾌적한 조형 환경의 건설 둘째, 지역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간위주의 정주지 설계 셋째, 다차원적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관계전문가들과의 합심 협력 넷째, 첨단기술의 개발과 적용 다섯째, 긴밀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여섯째, 전문적인 건축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마지막으로 긍지를 갖고 국가 사회 국민에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필요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최선을 다 했느냐가 문제이지 이미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며 희망하는 사항이다. 당연한 것을 미사여구로 만들어 외치느니 차라리 전후 폐허에서 오늘의 도시를 가꾸기까지 불철주야로 노력한 우리를 자찬하며 그에 앞서 와우아파트, 삼풍사고 등 부실로 인한 자성과 대국민 사과 그리고 건축을 부동산가치로만 인식하는 편향된 국민의식과 건축을 문화로 보지 않는 대부분 공무원들의 무지를 계도하여 건축을 보는 눈높이가 국민과 함께 할 때까지 노력을 경주하자는 것이 한결 진솔하고 미래지향적인 선언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건축을 보는 눈높이를 향상시키는 것이  
건축문화의 향상이며 건축의 날의 진정한 의미이다.

#### 모두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행사프로그램을 보면 식전행사로 오후 2시부터 국립박물관 건축에 대한 설명회가 있고 이어서 유명인사의 특강이 있다. 기념식은 5시부터 1시간, 이어서 리셉션이 있다. 이와 별도로 건축작품 전시회를 같은 장소에서 하루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념식은 관계장들의 축사와 포상식이 대부분이며 참석인원은 500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당일의 기념식행사가 어디나 대동소이하나, 부대행사가 당일의 작품전시회로는 너무나 초라하며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면이 있으며, 비경제적으로 출품자들에게 부담을 준다. 이보다는 초등생들을 위한 내집 그리기,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모형 만들기, 국민대상의 건축과 관련된 수필이나 새집 살리기 공모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이들이 전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각시도별로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축인과 국민 함께하는 건축의 날이 되어야 하며 이로써 건축을 보는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건축문화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에 건축의 날의 참뜻이 있다고 믿는다.

#### 맺음 말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을 정리하면 첫째, 주최와 주관 그리고 후원 및 협력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관은 계속 학회가 할 것인지, 주최는 어디 어디로 할 것인지, 상설기구를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인적구성도 재고해야 한다. 누가 주관을 하던 분과위에 FIKA 3단체는 한명 이상의 위원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건축의 날 날짜를 정함에 있어 좀 더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하자는 것이다. 기념일 등을 보면 날짜를 바꾼 경우가 비일 비재하기 때문에 지금 것이 좋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변경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셋째는 건축인 선언에 대한 것으로 이를 무슨 현장처럼 매년 같은 것을 반복하지 말고, 매년 그해에 맞는 표현을 건축의 날 선언문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맞는 해에 어떤 내용이 적절한 것인가를 좀 더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바 이는 첫해이니만큼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아쉬운 점이며 향후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1년 전부터 준비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온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의 날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각 단체에서 행하는 건축관계 행사도 가능한 한 함께 모아 건축의 날이 아닌 건축주간이나 건축의 달 행사로 치러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해묵은 건설사의 설계검업이 또 다시 부상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을 가라앉히고 제각기 자기의 길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건축인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의 날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 땅에 진정한 건축문화가 꽃 피우는 그 날을 위하여. ㅁ

## 화이부동, 동이불화(和而不同, 同而不和)

Sound of Different Drums

공자(孔子)의 글이라던가? 어디선가 이 글귀를 보고 감탄한 적이 있었다. 원전의 뜻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시각적인 형태와 어울림이라는 화두(話頭)로 다가왔다. 같은 모양을 띠다고 어울리는 것일까? 오히려 서로 다른 형상을 지닌 사물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듯하다. 공자가 벌떡 일어나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고 야단치실지도(?) 모르겠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면, 감탄과 한탄이 엇갈리며 나온다. 둘러싼 산, 한강, 청계천, 조선왕조의 흔적들,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 모르는 게 해도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이만한 도시는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군사정권을 거치며 군더더기 같은 건물이 들어선다. 그나마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일부 건물들은 음미할만한 것 아닌가? 해방 후 지어진 건물들은 무어라 설명해야 할 것인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어떤가? 에펠탑이 보기 싫어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에펠탑 속의 카페에 들어앉아 있었다는 '모파상' 처럼 숨어들어갈 곳도 없다.

쿠알라룸푸르에서 현대적 감각이 묻어나오는 모스크(寺院)에 방문하게 되었다. 능름하게(?) 사진을 찍으며 종교적 깊이를 들이키고 있는데, 후배 목사가 "형님, 카메라를 어떻게 갖고 들어오셨습니까?", "응? 아아... 알라 마하벳살... 알라신은 위대하시다. 기도도 안했나?" 말레이시아항공의 비행기 안에서 외워두었던 기도문에 나오는 글귀였다. 내 몸에서 그들을 존중하는 냄새(香)가 나는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고, 찍을 수도 있었다. 아쉬운 것은 그 사진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사진은 잃어버렸으나, 분위기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똑같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 너무나 당연한 행정지도, 하지만 똑같은 디자인, 아니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몰골사나운 건물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한 이야기였다. 왜 그런지 경직되었을 것만 같은 모스크에서도 유연한 분위기가 품겨 나온다.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아우러진 자태를 은은하게 드러낸다.

한강변에 죽 늘어선 아무런 개성도 없이 봉어뺨처럼 찍어낸 아파트를 무어라 설명할 것인가? 수용인원(?)만 따진 덩치만 큰 교회 건물, 광화문 한복판에 얹어놓은 컨테이너 창고 같은 정부종합청사. 페인트칠 색깔만 다른 농촌의 새마을 주택들. 하기가 이것이 권력을 장악한 정치가와 행정가의 수준이기는 하겠다.

건축은 독특한 예술행위다. 건축사와 건물주 그리고 행정당국의 합작품이다. 건축 가능하도록 하는 시공기술이라는 요소도 있겠다. 영화처럼 종합예술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다. 건물은 몇 백 년을 이어가며 숨쉬며 살아간다. 건축시공과 무관

한 이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이용하며 즐긴다. 그래서 나 같은 건축의 문외한도 소비자라는 전문가가 되어 소극적으로 아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꽤 막힌 기독교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멋진 가람(伽藍)에, 절에 다녀보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좀 관찮다 싶으면 절이 자리 잡고 있다. 주변 경관과 더불어 절 집이 내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왔다. 교회와는 너무나 달랐다. 우뚝 서서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눈초리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다. '어울림'이라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 지붕선과 주변의 스카이라인(skyline)이 너무나 멋지게 어울린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어울리는 시공간(時空間)이다. 시간이라는 요소마저 안고 가는 것만 같았다. 그러기에 수 백 년이 지난 오늘에도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는 것 아닐까?

단청(丹靑)은 어떤가?

그야말로 촌스럽기 그지없는 배색(配色)이다. 그 뒤에 감추어진 음양오행설의 배경을 몰라도 좋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등등 은은한 톤도 아닌 원색 그대로다. 그런데 강렬한 원색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깊이감(深度)'을 더한다.

베트남의 후에(Hue)라는 고도(古都)를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더위와 습기에 단청이 견디지 못하니 지붕 위에 도자기를 구워 올려놓았다. 이 독특한 용두가 눈에 들어온다. 흰색 바탕에 연한 색을 넣어 구워낸 것이다. 분명 아름다우나,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까, 자연의 풍화작용이라고 할까 절대자의 손길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모든 건축물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깊이를 더해가나, 사기질로 구워진 부분만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당당하기만(?) 하다. 그러기에 부드러운 파스텔 톤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네 단청을 조금 더 드러다 보면 더 놀라게 된다. 그려진 그림에 또 다른 신앙(哲學)이 담겨있는 듯하다. 얼핏 보면 똑같은 무늬 같은데, 찬찬히 살피면 다양한 무늬가 무엇인가 속삭이듯 자리 잡고 있다. 그려진 연꽃의 꽃잎이 4개, 5개, 6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도 하나하나 다른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 절로 감탄이 나온다. '곱하기 몇' 대량생산이라도 하듯 찍어낸 느낌의 이슬람의 모자이크나 팝 아트(pop art)와는 다른 깊은 맛이 보인다.

이런저런 생명체를 형상화시켜놓아 자연의 다양성이 녹아들어있다. 하나의 신앙 속에 녹아 든 다양한 생명체, 대중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 어울림은 그래서 하나가 되고, 국가종교로까지 승화된 신앙이면서도 너도나도 하나가 되라고, 하나의 틀에 들어가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처마 밑의 그림은 어떤가?

아름다운 전시 환경에 적절한 조명을 받으며 멋진 자태를 뽐내는 작품이 아니다. 수줍은 듯 가려져 있다. 구석구석 경외심을 갖고 둘러보며 음미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다. 이름 없는 산사(山寺)에도, 아니 오히려 그런 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 대웅전 처마 밑에서 들어나지 않는 여인의 속살처럼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다.

도시, 도시의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적 합의의 유산임이 틀림이 없다. '집짓기'마저도 하나의 트렌드인가? 천박한(?) 유행 따라 너도나도 따라하기에는 쏟아 붓는 노력이 너무나 아깝다. 건축주를 설득하고, 행정당국과 협의하고, 시공자와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며, 적어도 100년은 내다보는 비전(vision)이 만져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경제, 숫자 놀음이 중요하다 해도 '평당 얼마'는 아니다. 벽돌 값, 노임은 쳐주면서도 건축사의 작품료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를 개탄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니체'가 말했다던가? 건축가와 의사는 대조적인 직업이라고, 의사를 찾아온 환자는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해도 얼굴을 찡그리고, 건축사를 찾아온 손님은 그 누가 되었던 꿈에 부풀어 온다고, 그 꿈을 먼 미래까지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남들이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것은 아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일거리 떨어져 밥 굶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혼자만이라도-남은 알아주지 않아도-예술가의 긍지를 지니며, 삭막한 도시에 흔(魂)을 불어넣어주면 어떨까? 남들은 '쟁이'라 해도 나만은 외로운 작가라고 하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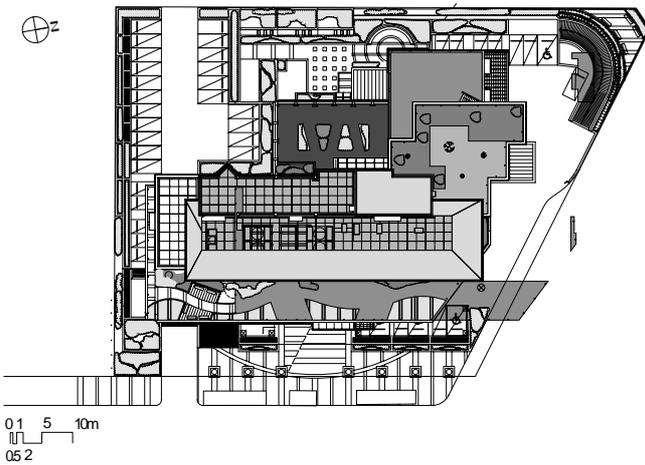
철 이른 봄꽃 한 송이가 외롭게 피면 어느 새 봄이 가득하다. 두고두고 살고 싶은 집 하나가 들어서면, 어느 사이엔가 멋진 집으로 이 도시가 채워지지 않을까? ㉮

## 좋은 강안병원

Good GangAn Hospital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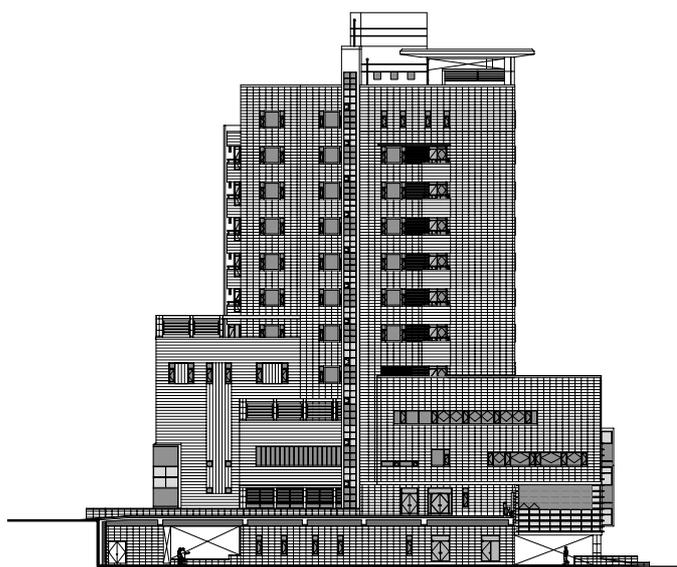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40-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4,513.87㎡
건축면적	2,658.61㎡
연면적	24,341,325㎡
건폐율	59.41%
용적률	342.48%
규모	지하 4층, 지상 13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내부마감	로비 : 대리석, THK9 플로링널, THK 24 오석붙이기 외래진료 : THK3 무석면타일, 석고보드위 유리섬유벽지, THK12 암면흡음텍스 병실 : THK3 무석면타일, 석고보드위 유리섬유벽지, 무늬목, THK12 암면흡음텍스
외부마감	THK15 컬러세라미타일, THK18 투명복층유리, THK8 고밀도합성목재, THK3 알루미늄 스위트 불소수지, 콘 크리트면위 불소수지
설계담당	박진철, 김광수, 임정국, 이보람
구조설계	(주)원우구조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주)나라기술단
시공사	(주)LG 건설
설계기간	2001. 03 ~ 2002. 05
공사기간	2002. 11 ~ 200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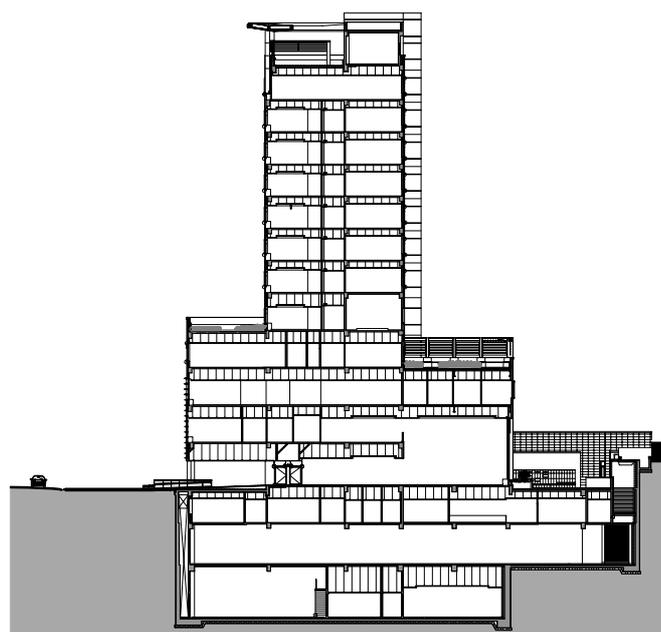


1. 따뜻한 재질감의 목재 판넬  
2. 좋은강안병원 전경

Location	40-1, Namcheon-dong, Suyeong-gu, Busan, Korea
Site area	4,513.87㎡
Bldg. area	2,658.61㎡
Gross floor area	24,341,325㎡
Bldg. coverage ratio	59.41%
Gross floor ratio	342.48%
Structure	R,C
Bldg. Scale	four stories below ground, thirteen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1. 03 ~ 2002. 05
Construction period	2002. 11 ~ 2004. 12



좌측면도



종단면도

01 5 10m  
05 2



병원을 설계할 때 더욱이 그 규모가 종합병원 일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대면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건축사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가서는 몇 가지 화두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계획되는 병원의 운영주체와 성격, 그에 따른 의료계획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충족시키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고 또 하나는 건립되는 병원대지가 자리하는 장소성과 도시적 맥락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영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건축주인 은성의료재단은 이미 좋은삼선병원과 좋은문화병원 등 다수의 병원건립으로 건축주 스스로가 병원의 운영과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이미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설계과정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과 가능성에 대하여 건축주는 축적된 경험을 들려주는 반면, 요구사항들을 제기하였고 그 대가로 건축사는 많은 대안의 제시와 새로운 도전과 노력을 할 수 있었다.

반면에 건축에 있어서 장소성 문제는 쉽게 접근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상당부분 기능적 프로그램에 의해 계획되어지는 것이 병원건축이지만 대지의 주변상황과 대지의 잠재력은 건축이 갖는 본질적 의미에서 계획에 많은 생각과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좋은강안병원의 경우 대지 자체가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주이용자인 환자들의 이용편의에 따라 주·부공간을 찾아가며 환경과 기능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다.

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만 보면 좋은강안병원 경우 건축사의 입장에서 두 가지 화두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 그 사고의 차이를 조금씩 좁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프로젝트였다.

좋은강안병원의 입지조건은 지리적으로나 인문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지리적 조건으로 전면동측은 바다 후면서측은 산인 큰 범위의 배산임수 지형을 지니고 있으며 정방형의 대지전면인 남동쪽으로 그리 높지 않은 건물 군이 자리 잡고 있어 그 너머로 광안리 바다와 광안대교를 비교적 가까이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물배치 시 모든 병실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반면, 조망권이 여의치 않은 병실은 남향으로 배치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위치적으로 연계 및 전망이 좋은 소인실과 다인실의 중간 지점에 데이를 배치하여 병실에서 벗어나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환자와 환자, 환자와 보호자, 혹은 의료진에 상호간에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매개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대지후면인 서쪽에는 멀리 부산의 명산인 황령산이 조망되는 반면,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종교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건물배치 시 저층부의 휴게공간과 기능에 필요한 수직 동선 및 개구부가 적은 업무시설들을 집중 배치하여 전체적인 기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형상으로 크게 저층부인 외래진료부와 고층부인 병동부로 양분되는 종합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면계획 시 전면의 고층부는 병원이 라는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규칙적인 창호모듈을 반복시켜 디자인 상 안정감을 강조한 반면, 저층부는 첨단병원의 Hi-TECH한 이미지와 도시가로에 순응하고 대화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커튼월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능과 입면이 외형적으로도 구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대지의 장점 중 좋은강안병원의 인문사 회적 조건으로, 현재 대지 인근 주변에는 2차 진 료기관과 같은 대형 병원이 부재하며 지역주민들 로부터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의료혜택에 대한 요구와 바람이 있었으며, 이는 건축주의 부지 선 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나름대로 신념과 주관이 뚜렷했던 건축주의 설계 요구사항 이자 주안점은 “환자의 편의를 배려한, 환자입장에서 생각하는, 환자중심의 병원”이라는 점이었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토대로 계획시 병원 전체 적으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배려되었고, 특히 최 대한 환자가 접할 수 있는 지상 및 옥상 휴게공 간을 확보하여 바다조망이 가능한 전면과 남측 후면에 골고루 배치하였으며, 진입층인 지상1층 에도 장애자와 비상차량을 제외하고는 건물의 주차를 전부 지하로 유도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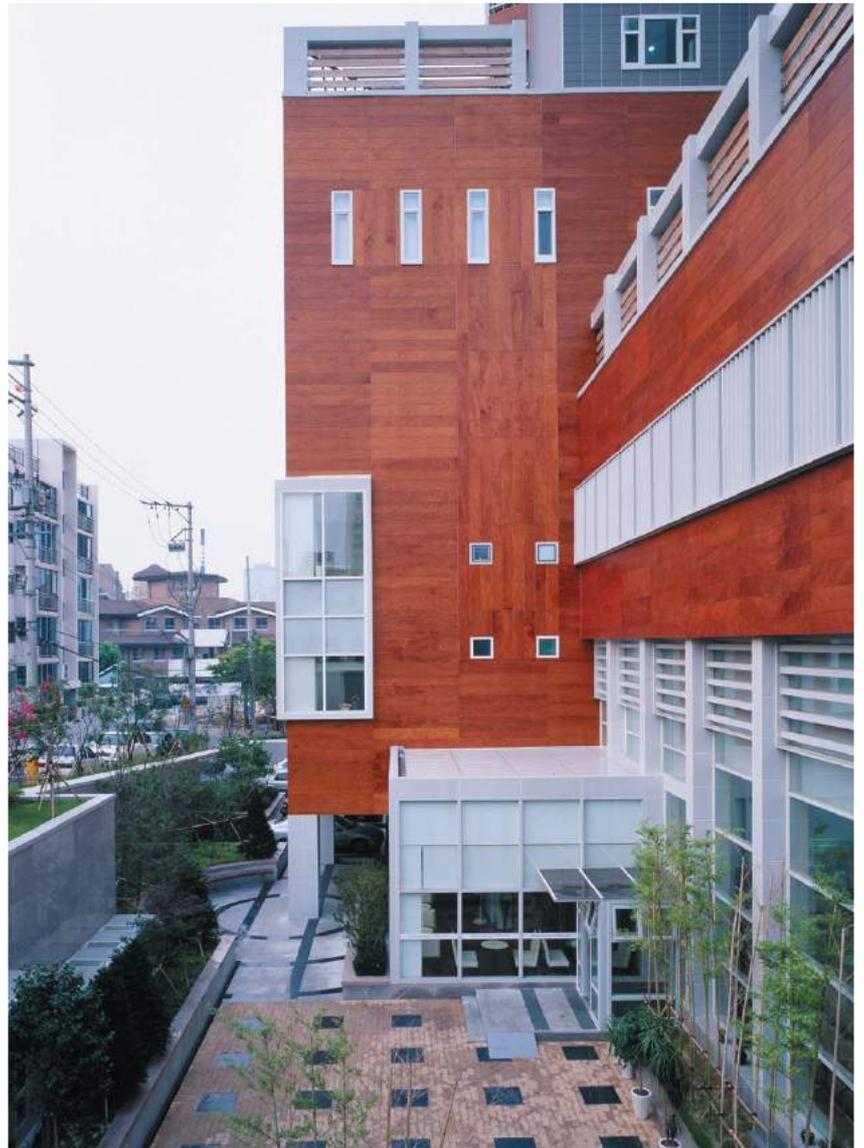
또한, 주출입구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조망되는 편안한 후면정원을 통해 병원시설에 대한 친근감 과 대기하면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병원의 이 미지를 갖도록 공간계획을 하였으며, 외래진료부 의 각 대기실 역시 인테리어 계획을 통해 자연적 인 재료들로 적극 수용하여 환자 및 보호자로 하 여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 및 대기를 할 수 있 도록 배려하여 자연스럽게 환자동선과 의사동선 을 구분 짓게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비단 첨단 의료 서비스 제공뿐 만아니라 건축적으로도 좋은강안병원이 인근병원 들과 차별되는 주요 전략이기도 하다.

특히, 좋은 강안병원의 입지조건 중 교통조건 은 주출입구에서 지하철과 직접 연계되며 인근에 위치한 도시고속도로를 통해 광역적인 접근체계를 확보하고 있어 추후 광역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에 그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끝으로 한정된 공간 속에서 각 부서별 요구면 적과 위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 안에서 타협을 위한 원칙과 질서를 찾아가는 것은 프로젝 트를 진행해 나가는 병원 운영주체와 건축사의 역할 중 가장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실무 진행시 건축주 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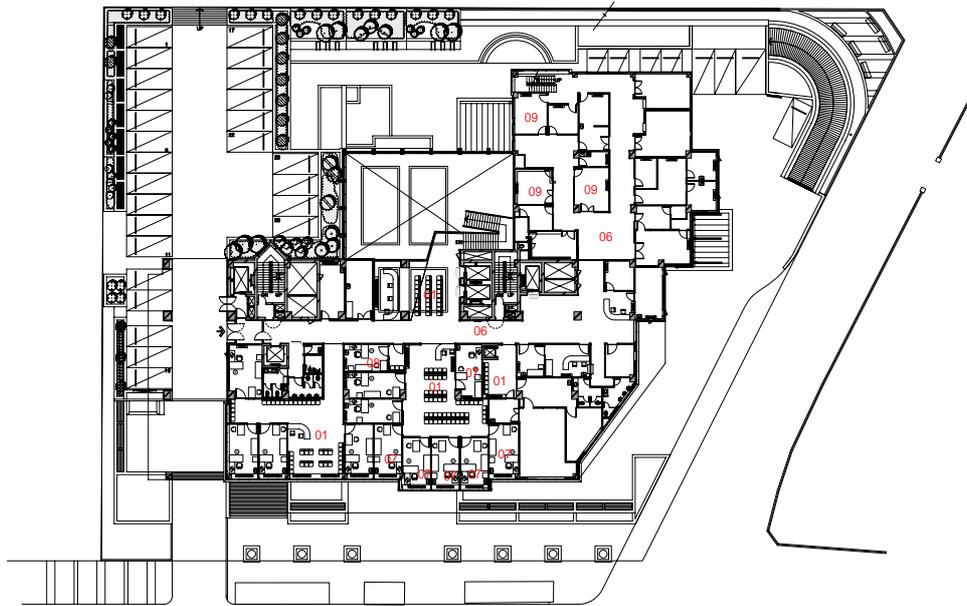
기존 병원들의 관리자들도 역시 저마다 각 분야에서 그동안 병원운영 및 관리를 통해 몸으로 체득한 산 경험들을 지니고 있어 설계진행 스텝들과 많은 대화와 타협의 시간들을 가져야만 했다.

그러나 돌아켜 보면 그런 시간들은 현장에서 오직 실무자들만이 전달해줄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이자 정보이었기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기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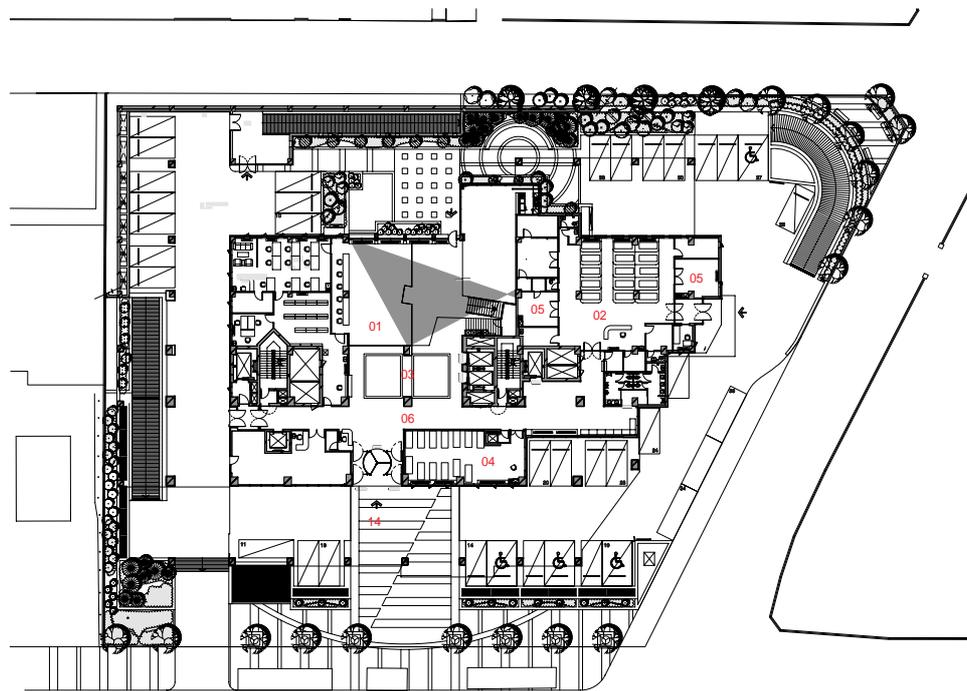
아무튼 좋은강안병원의 경우 그동안의 작업을 통해 현재 첨단과학 기술이 기반이 되는 의료체계와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의료기술이 적용되는 이 시점에서 건축가 역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함은 물론 건축사로서도 건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

와 그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몸으로 체득한 좋은 사례가 되었던 것 같다. ▣

1. 식정면 커튼월  
2. 배면 정원(후정)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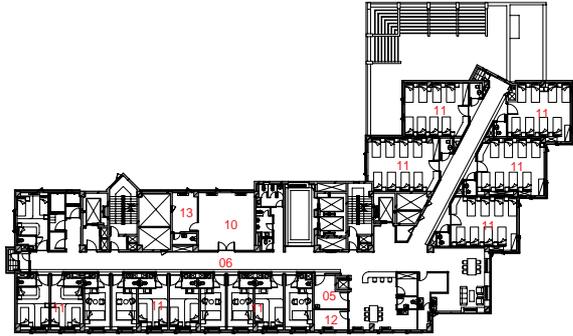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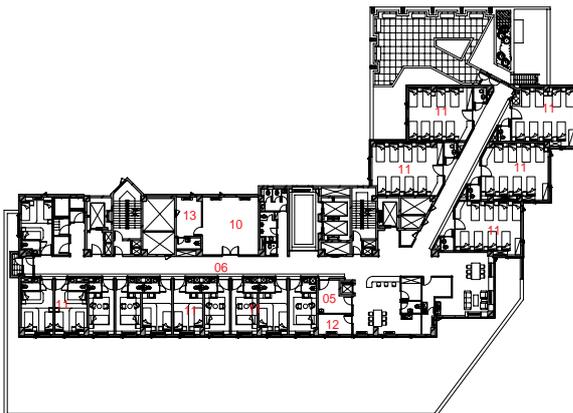
0.1 5 10m  
0.5 2

1층 평면도



7층 평면도

- 01\_ 대기홀
- 02\_ 응급실
- 03\_ 로비
- 04\_ 주사실
- 05\_ 처치실
- 06\_ 복도
- 07\_ 내과
- 08\_ 신경정신과
- 09\_ 일반촬영실
- 10\_ 의사실
- 11\_ 병실
- 12\_ 수간호사실
- 13\_ 당직실
- 14\_ 주출입구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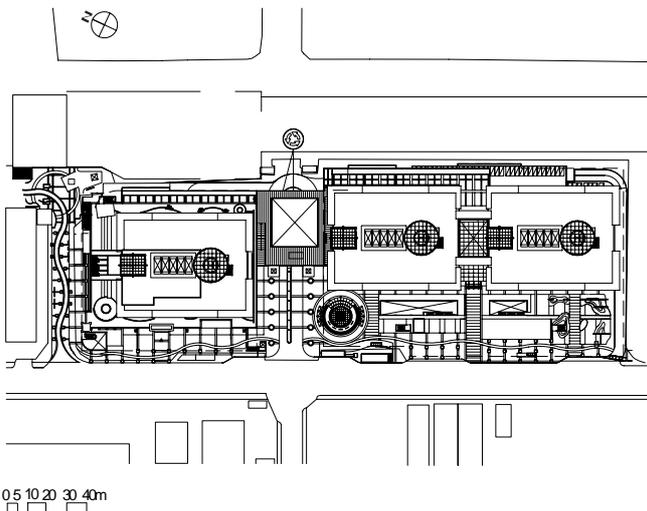
- |   |
|---|
| 1 |
| 2 |
| 3 |
- 1. 바다가 내려보이는 일반 병실 내부
  - 2. 안내 데스크 침수창구 전경
  - 3. 2층홀에서 내려다본 중앙로비

# 우림 라이온스밸리

WOOLIM Lion's Valley

● 배치도

● 건축개요



- 대지위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공항고도지구
- 대지면적 27,770,00㎡
- 건축면적 14,951,82㎡
- 연 면 적 190,392,75㎡
- 건 폐 율 53,84%
- 용 적 률 479,73%
- 규 모 지하 3층, 지상 15층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주차대수 1,257대
- 외부마감 화강석, 알루미늄패널
- 디자인총괄 김홍근(Artlab & Company)
- 설계담당 박민수, 전성진
- 구조설계 한빛구조
- 설비설계 연엔지니어링
- 전기설계 천일건축 엔지니어링
- 설계기간 2002. 06. 05 ~ 2004. 12. 29
- 공사기간 2003. 01. 15 ~ 2004. 12. 29
- 시 공 사 우림건설(주)
- 사 진 김명식



- Location 371-28, Gasna-dong, Geumcheon, Seoul, Korea
- Site area 27,770,00㎡
- Bldg. area 14,951,82㎡
- Gross floor area 190,392,75㎡
- Bldg. coverage ratio 53,84%
- Gross floor ratio 479,73%
- Structure R,C
- Bldg. Scale three stories below ground, fifteen stories above ground
- Design period 2002. 06. 05 ~ 2004. 12. 29
- Construction period 2003. 01. 15 ~ 2004. 12. 29



1. 1호선 국철에서 바라본 전경  
2. 전면광장에서 본 A동 전경



우림 라이온스 벨리는 구로3공단에 있던 진도 공장부지에 국철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과 7호선 환승역을 동시에 연결하며 대규모 IT 벤처 아파트형 공장과 업무지원시설을 복합하여 건립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부지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서남단 금천구에 위치하여 영종도 신 공항 개항으로 가속화된 서부권 개발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어 굴뚝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서 디지털산업의 메카로 재탄생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구로공단 내에서도 그 변화를 향한 노력의 파급효과가 큰 영역과 장소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곳은 지난 세월 한국경제의 성공신화를 창조했던 곳이며, 하루도 쉼 없이 연기를 내뿜는 굴뚝과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로 요란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에는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산

업으로의 변화를 피하며 어두웠던 시절의 흔적들 속에 첨단 디지털 아파트형 공장 and 첨단 빌딩 숲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한 교통중심개발을 모델로 삼아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을 연결하는데 있어 충분한 동선과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하철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지나면서도 한눈에 변화된 이미지와 첨단 디지털, IT 개념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하였다. 낙후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첨단 벤처 이미지가 혼재되어 그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공단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임음했던 공단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매력적인 도심부 공간 창출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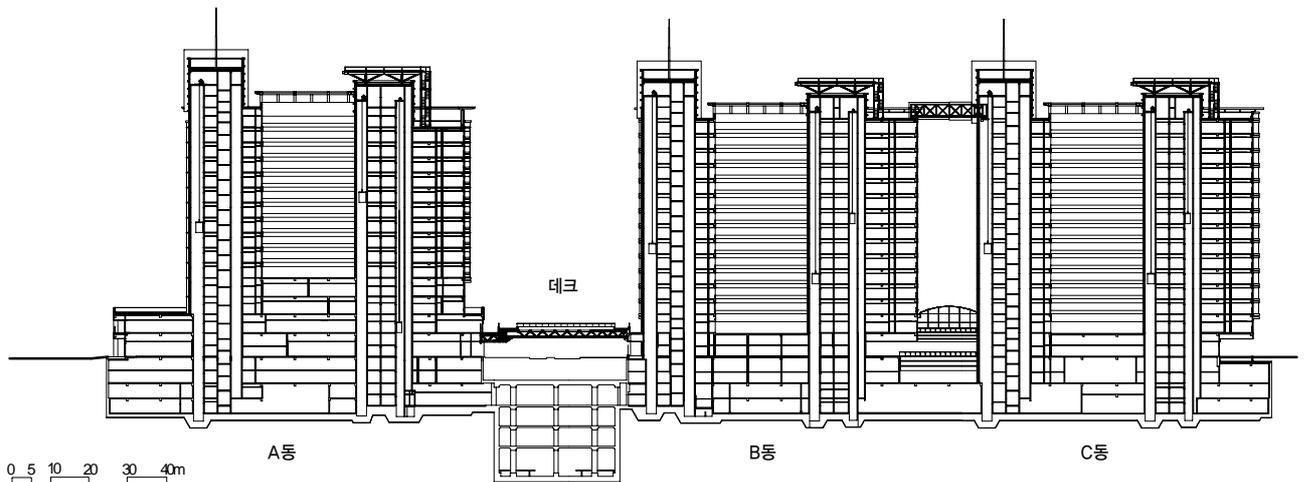
1, 2, 3  
1. B, C동 연결브리지 - 야경  
2. A, B동 올려봄  
3. 주도로에서본 전경



IT 이미지가 부여된 입면을 계획하며, 공공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와 녹지공간, 근로복지를 위한 휴게·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거듭남에 있어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넘어 삶의 질까지도 높일 수 있는 장소성의 구축을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였다.

### 배치계획

배치 계획시 고려하였던 중점사항은 아파트형 공장과 업무지원시설로 구분되는 두 기능간의 명쾌성과 낙후되고 열악한 이미지의 구로공단에서 IT Venture Town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위치한 이번 프로젝트의 장소성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환경 변화와 정서적 이미지 제고에 있었다. 따라서 매스분절에 의해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저층에는 지하철과 연계



단면도

동선을 설치하고 획일적인 업무지원시설과는 차별화된 시설을 계획하였고, 고층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배치하여 동선의 교차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고층부에서 매스를 setback하여 지하철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buffer zone으로 계획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첨단 벤처타운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입면계획뿐만 아니라 배치계획에서 대지전면에 충분한 녹지공간과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밝고 경쾌하며 풍부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공익적 성격의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휴게공간 및 만남의 장이 되고자 하였다. 이는

매력적인 도심 공간 창출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넘어 삶의 질까지도 높이는 건축적 장소성에 그 의의가 있었다.

### Concept

#### • 저층부 공간의 디자인

저층부는 전면도로 쪽에 녹지공간을 설치하여 도시-자연-내부의 위계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철에서의 유동인구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하여 지하 3층에는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개찰구와 연결되는 몰(Mall)을 형성하고, 지상 2층에는 1호선 플랫폼과 연결되는 데크를 설치하여 이벤트광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B, C

동의 주출입구인 중앙에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지하층까지 자연채광이 퍼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동의 중정과 면하여 전망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업무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방문객의 동선을 원활히 하며, 시각적 초점 및 가능성을 높였다.

#### • 고층부 아파트형 공장 디자인

고층부의 아파트형 공장은 업무환경을 위한 디자인으로 IT Venture Town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반도체칩을 코드화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중정을 설치하여 각 실에 충분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공급하며, 8×8을 기본모듈로 8×16 확장 모듈도 가능하게 하여 공간의 flexibility를 높였다. 또한 중정을 중심으로 이중코어시스템 채택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특별로 회의실과 휴게공간 등 업무지원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system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스카이브리지로 연결되는 옥상과 중정에 정원을 설치하여 업무와 휴식이 함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 지원시설

물류와 관련된 모든 하역작업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마련된 하역장을 통해 화물전용 엘리베이터로 운반되며, 특별로 별도의 하역장을 마련하여 최단거리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1층에 각종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세미나실과 접견 데스크를 설치하였으며, 각층별로 회의실과 휴게실을 설치하고 별도의 쓰레기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오픈 스페이스

옥상과 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를 계획, 장소에 따라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여 지상의 분수공원과 가로공원, 2층의 매개공간의 성격을 부여하여 지상의 분수공원과 가로공원, 2층의 매개공간으로서의 데크, 완충공간으로서의 저층부 옥상공원, 휴식을 위한 고층부 옥상공원을 계획하고, 하늘공원으로서 각 실에 자



연재광을 제공하는 중정을 설치하여 다양한 레벨의 옥외공간을 계획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지하철로부터의 소음을 차단하는 buffer zone으로 활용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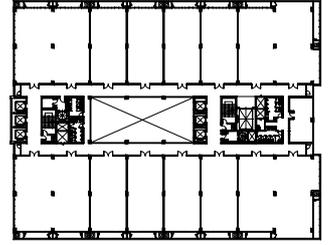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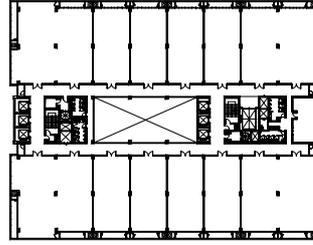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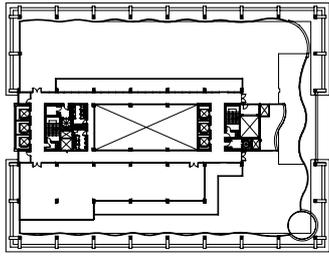


- |   |   |
|---|---|
| 1 | 2 |
| 3 | 4 |
- 1. A동 주출입구
  - 2. B, C동 앞 선근
  - 3. 전면광장 및 조경
  - 4. A동 가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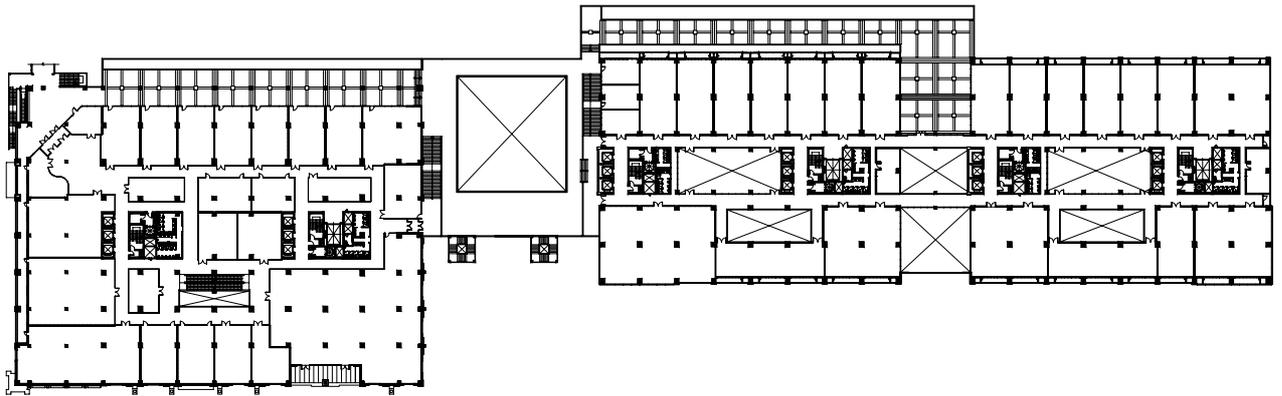


1	1. B, C동 주출입구 내부 인테리어 2. 2동 내부 중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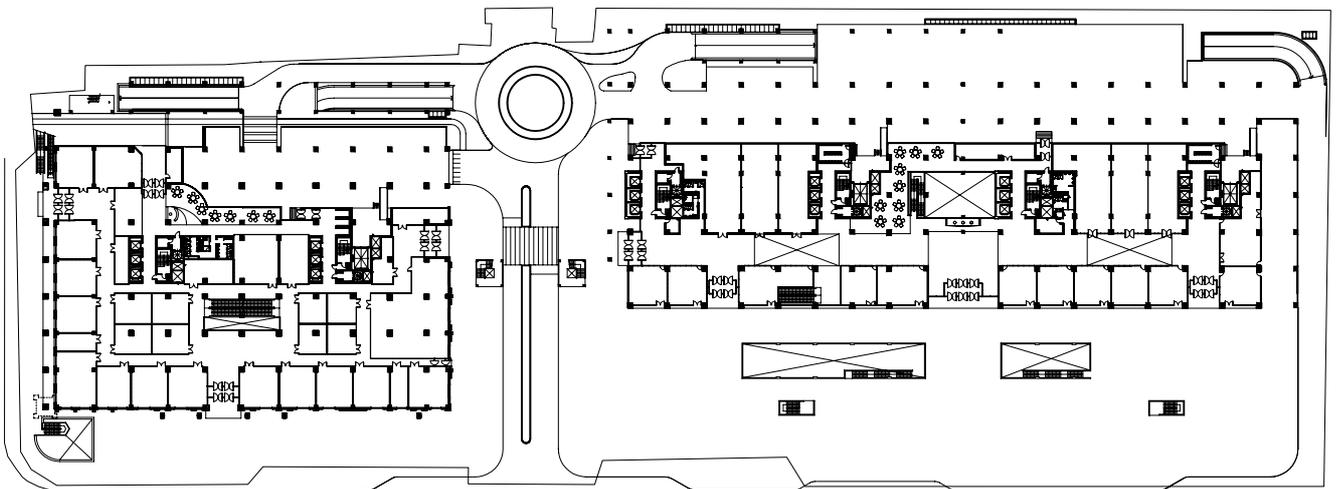


1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0 5 10 20 30 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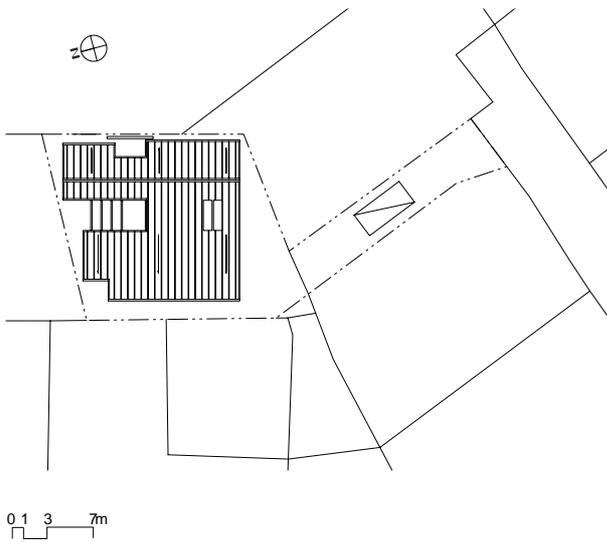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민마루 6(소나무주택)

Minmaru-VI (Pine tree house)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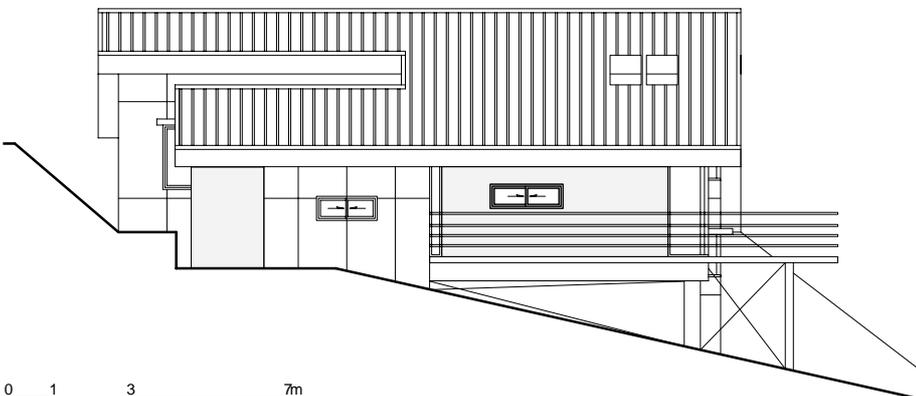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450-11번지
지역지구	관리지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389,00㎡
건축면적	126,72㎡
연면적	164,55㎡
건폐율	35,44%
용적률	42,30%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경량목구조
내부마감	T,9.5 석고보드 위 지정벽지 마감, T,16미송루버(노출형)
외부마감	T,12CFRC보드, T,180비동, T,22복층유리
구조설계	박덕환
설계담당	이기호, 권오열
시공사	가외디자인



Location	450-11, Pung-dong, Ilsan-gu, Goyang-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389,00㎡
Bldg. area	126,72㎡
Gross floor area	164,55㎡
Bldg. coverage ratio	35,44%
Gross floor ratio	42,30%
Structure	R,C, Wood
Bldg. Scale	two stories above ground







- |   |              |
|---|--------------|
| 1 | 진입계단 및 현관    |
| 2 | 현관 및 계단실     |
| 3 | 우측면에서 본 입구진경 |

서측면도

논리는 의론이나 사고, 추리 따위를 이끌고 나가는 조리 또는 사물 속에 있는 도리, 사물끼리의 법칙적인 연관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내세워 논리적 혹은 비논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추론이나 객관화를 통해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많다. 모든 것이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집착,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모듈화되어야 하고, 짜여진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든 결정만 반복하는 것이 요즘의 삶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서 가장 제대로 벗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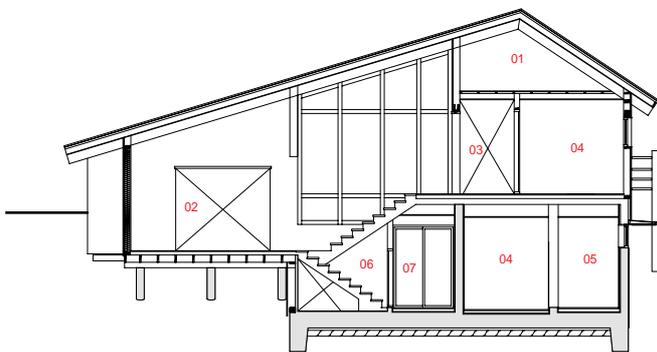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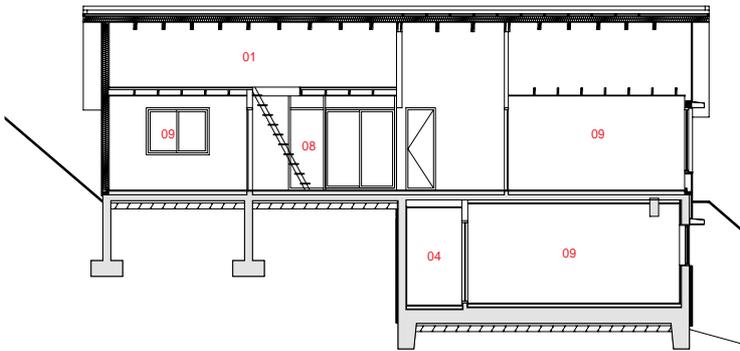
수 있는 것이 주택이다. 주택은 주인의 걸음걸이에 맞춰지고, 시선에 맞춰지고, 재미난 습관에 맞춰지고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진다. 여기에 비취 항상 새로워야 한다는 강박증이 논리의 틀이라면 주택은 가장 좋은 건축사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민마루 주택들이 그런 강박에서 다소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나무집이란 사실이다. 그간 주로 사용해왔던 재료가 아니었기에 겸손하게 땅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민마루 주택들의 특징이라면 일단 어떠한 울도 담도 쌓질 않아 심리적 경계를 허물었다는 것이다. 도시 삶

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동물적 본능으로 지켜오던 이들에게 어쩌면 형식적 경계를 허물어 내 자신의 속내를 모두 벗을 수 있는 고유 영역을 제공한 것이다.

이 집은 민마루 단지 내에서 현재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원거리에서 랜스케이프의 성격을 띠고 있다. 3년여 전쯤에 지어진 폐침묵 집을 허물고 지은 이집은 주변 다른집에 비해 소나무가 다소 많은 편이다. 공사 중 다른 집들과 구분하려 소나무집으로 불렸던 것이,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라는 자식들의 소망과 소나무의 이미지가 어울려 당호로 자

- 01\_ 다락방
- 02\_ 거실
- 03\_ 복도
- 04\_ 화장실
- 05\_ 창고
- 06\_ 부엌
- 07\_ 홀
- 08\_ 가족실
- 09\_ 방



단면도





리 잡게 되었다.

소나무집의 두 개 매스는 각각 다른 성격의 스페이스로 구성되고 경사지붕으로 통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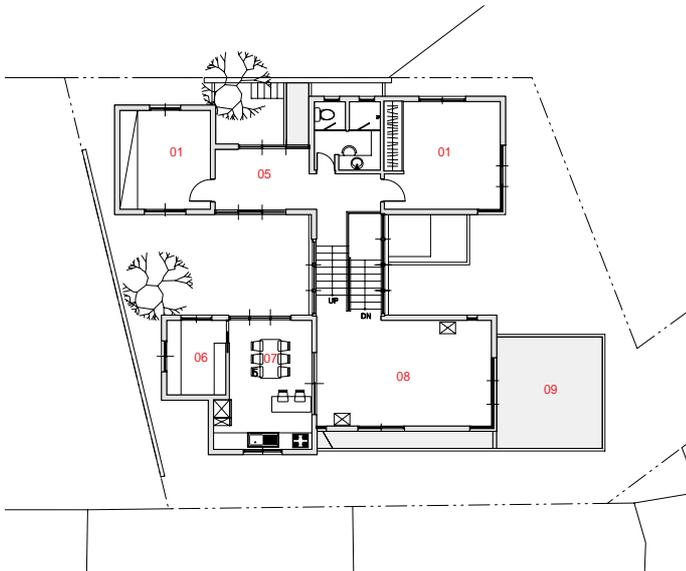
산이 가진 원래의 경사형태를 보존하고자 방부목 말뚝기초로 전면에 위치한 거실과 부엌을 띄운 구조로 했으며, 단면은 반 층씩 물려있어 경사에 따르는 공간이 전개된다. 원룸인 지하 사랑방에서 반 층 위의 거실 공간 그리고 반 층 위의 침실공간으로 접근하게 되어 건물은 각기 다른 영역성을 지닌 다양한 레벨의 공간이 되었다.

경사가 급한데다가 높은 곳에 있어서 전망은 좋으나 공사 시 소음반이 많아서 공사비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치밀한 공정계획과 공사계획 공정의 합리적인 단순화 등을 통한 경비절감, 상이한 두 재료가 만나는 부분의 단열, 방수의 기밀을 위한 디테일이 다른 주택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필요했다.

재료의 선택에서는 기존에 흔히 보아왔던 목조주택의 지붕재료인 아스팔트 싱글이나 시멘트 또는 비닐류의 사이딩 위주의 외장재는 벗어나 보고 싶었다. 거창하게 목조주택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서양식 목조주택의 답습에서는 탈출해야 한다는 강박과 반 환경적이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재료의 선택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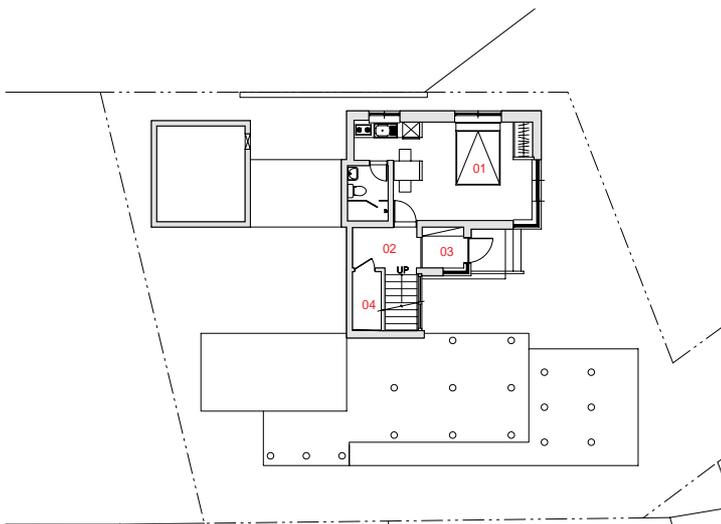
집의 수명이 대개 20년쯤이라 치면 적어도 10년에 한번쯤 같거나 5년에 한번쯤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재료정도라도 되겠구나하는 생각으로 내외장재를 선택했고 그에 적절한 디테일을 만들고자 했다. ㉮

- |   |   |
|---|---|
| 1 | 3 |
| 2 | 5 |
1. 뒷마당공간
  2. 좌측면에서 본 거실데크
  3. 환관 및 계단실
  4. 계단실에서 바라본 거실
  5. 거실



2층 평면도

- 01\_ 방
- 02\_ 욕실
- 03\_ 현관
- 04\_ 창고
- 05\_ 가족실
- 06\_ 다용도실
- 07\_ 부엌/식당
- 08\_ 거실
- 09\_ 데크



1층 평면도

0 1 3 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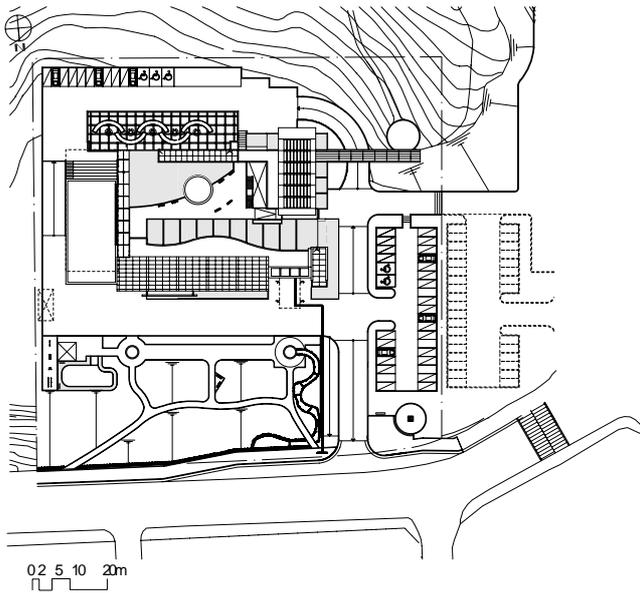


#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Daegu Welfare Center for Senior

● 배치도

● 건축개요



- 대지위치 대구시 달서구 본동 산 37-7번지 외 2필지
-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대지
- 대지면적 11,600.00㎡
- 건축면적 1,722.94㎡
- 연 면 적 4,506.37㎡
- 건 폐 율 14.85%
- 용 적 률 34.50%
-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외부 마감 알루미늄시트감기, 화강석마감, 컬러복층유리, 커튼월
- 설계담당 현상설계담당 : 김갑부, 성모경, 신재원, 강진구  
실시설계담당 : 심상병, 박철식, 이영현
- 구조설계 우림구조
- 전기설계 (주)우보엔지니어링
- 설비설계 (주)삼정설비연구소
- 지질공사 동방지질
- 조경설계 코리아랜드스케이프
- 시 공 사 삼진건설주식회사 / 동원전기통신 / 유한전기 / 조아전자



- Location San 37-7, Ban-dong, Dalseo-gu, Daegu, Korea
- Site area 11,600.00㎡
- Bldg. area 1,722.94㎡
- Gross floor area 4,506.37㎡
- Bldg. coverage ratio 14.85%
- Gross floor ratio 34.50%
- Structure R,C
- Bldg. Scale ons story below ground, three stories above ground







### 부지주변환경분석

부지는 북측으로 20m 도로가 부지 주 전면 도로로 접하고 있으며, 서측에는 올림픽 기념관이, 동측에서 남측으로 분리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친환경적 산책공간으로 구성된 분리공원의 수목공간이 부지 주변을 둘러싼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면도로를 경계로 부지 북측으로는 중·저층 근린생활시설 및 저층 단독주택군, 대구공업대학 캠퍼스가 근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원경으로는 고층 아파트 군을 비롯한 학교시설, 중·저층 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근린생활시설 존이 구성되어 있다. 부지로의 주 접근은 분리네거리와 성당 네거리를 잇는 도심 주 교통동선으로부터 도심 우회도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부지 레벨은 서측에서 동측으로 경사진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계획부지는 전면도로와 접한 북측으로부터 분리공원과 접한 남측으로 6m의 레벨차이를 보이는 부지이다.

### 배치계획

진입도로와 주변도심 축을 수용한 주축을 설정하고 주변 부지현황에 순응하는 외부공간을 계획하였다. 비교적 경사가 심한 진입도로면 부지조건에 순응하면서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변 공간을 적극적인 외부공간으로 계획하고 보행자에 대한 다양한 진입의 형태를 제공한다. 도로변에 직접 접한 부지경계부에는 공개공지 개념의 옥외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지역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열린 개념의 복지시설을 이미지화 하였다. 기능배치에 있어서는 전면 매스는 여가시설 등 동적인 공간을 구성하며, 후면 매스에는 정적 공간인 주간보호시설을 배치하여 직접적인 시선 개방을 지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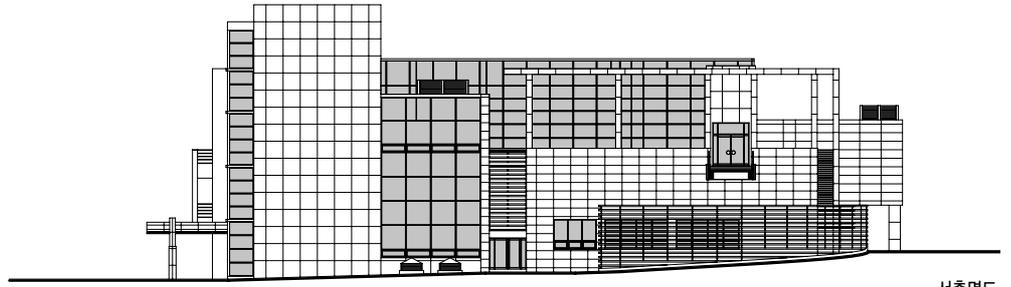
### 입면 및 조형 이미지 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품위 있는 형태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는 조형미를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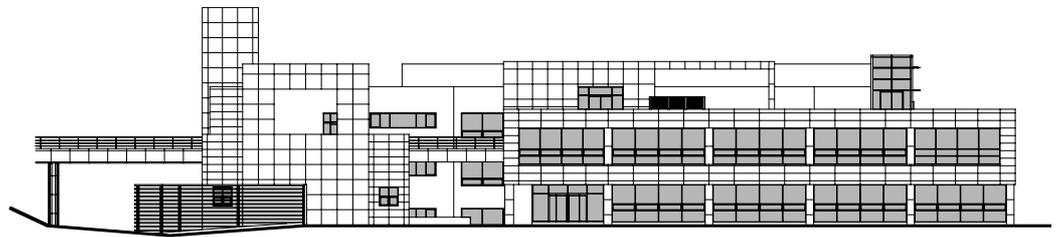
현하여 안정감 있는 매스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미적이고 창의적이며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강조 요소를 통해 변화 있는 입면을 계획하였다. 조형 이미지 계획에서는 유리, 알루미늄시트, 화강석 재료를 사용하여 지나치게 요란하지 않는 형태 및 미래적공간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정면성 및 변화요소로 수평루버 등의 수평요소를 통한 서측 채광조절 및 입면의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수직 수평요소의 반복을 통한 정면성을 표현하였다.

### 단면계획

주변 자연환경 및 외부공간과의 자연스러운 상호관입을 유도하는 단면계획으로 주변에 대해 위압적이지 않은 높이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는 지붕선으로 수평적 요소들을 강조한 매스 계획으로 안정감을 표현하였다. 성격이 다른 각 기능(행사, 오락, 교육)들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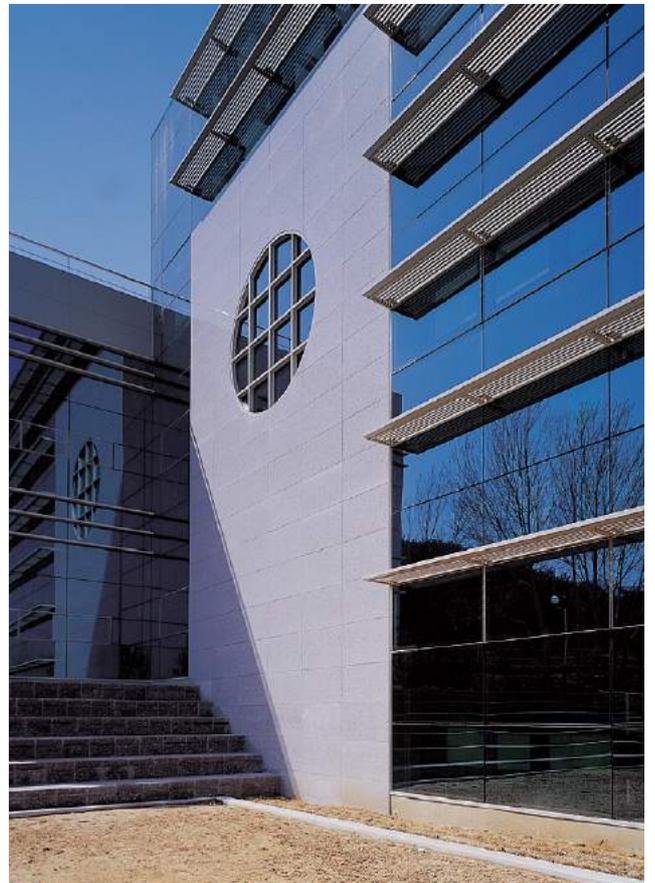


서측면도



남측면도

- |   |               |
|---|---------------|
| 1 | 1. 선근 및 연결부릿지 |
| 2 | 2. 선근기둥 기벽    |
| 3 | 3. 경사로 외부 커튼월 |





소음 등을 고려한 층별 조닝과 부지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단면을 계획하였다.

### 환경친화계획 및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 절약적 공간 계획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계획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고려하여 깨끗한 환경 도시를 지향하였다. 특히 태양 에너지 활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연광에 대한 적극적 수용 계획을 건축적으로 반영하였다. 에너지, 환경, 녹화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 옥외공간 및 조경계획

이용 노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계획하였고, 진입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적인 동선 유입을 유도하였다. 계획 부지 외주부를 풍부한 조경 공간으로 계획해 자연 친화적인 외부 공간을 계획하였다. 내부공간이 또 다른 외부공간의 확장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휴게 테라스를 조성하였으며, 선근기둥 계획으로 지하층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약을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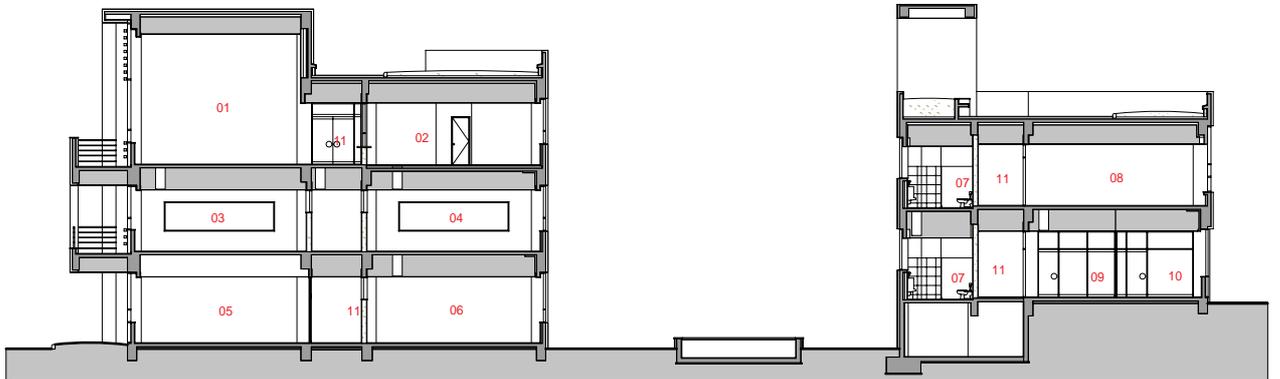


- |   |   |
|---|---|
| 1 | 4 |
| 2 |   |
| 3 |   |
1. 남측 후장으로 연결되는 순환로
  2. 전면방과내(정면성을 위한 조정요소)
  3. 강당외벽 및 선근기둥 가벽
  4. 옥상정원 지평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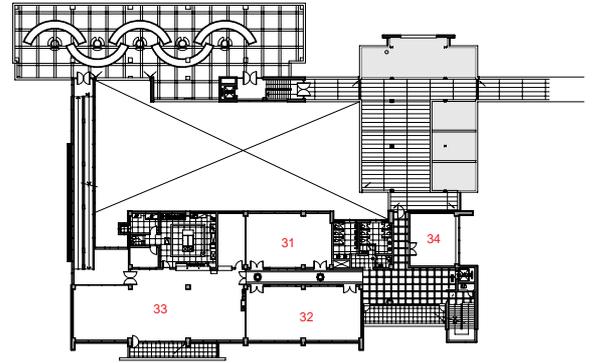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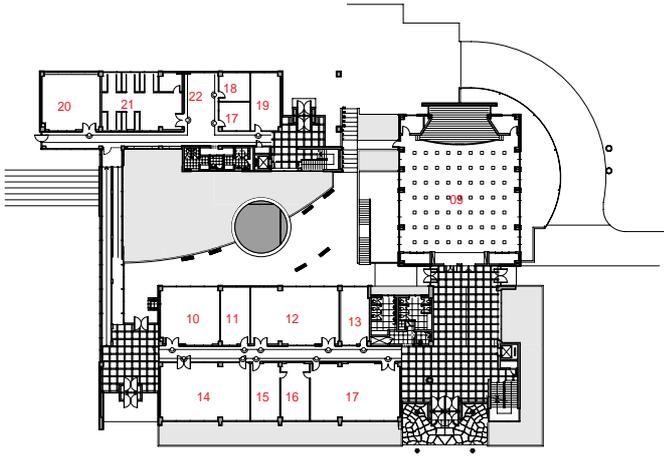
- 01\_ 실버식당
- 02\_ 주방
- 03\_ 다용도실
- 04\_ 교양강좌실
- 05\_ 전시실
- 06\_ 머리방
- 07\_ 화장실(남)
- 08\_ 식당
- 09\_ 사무실
- 10\_ 가족실
- 11\_ 복도

0 1 2 5 10m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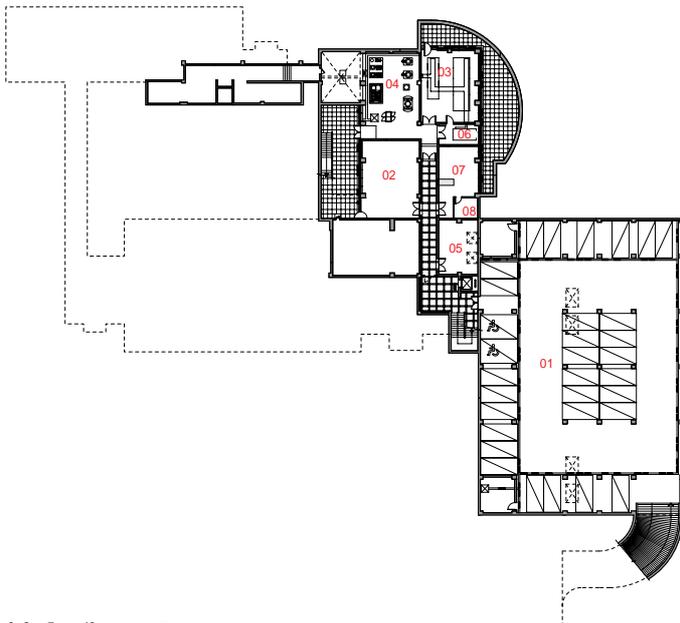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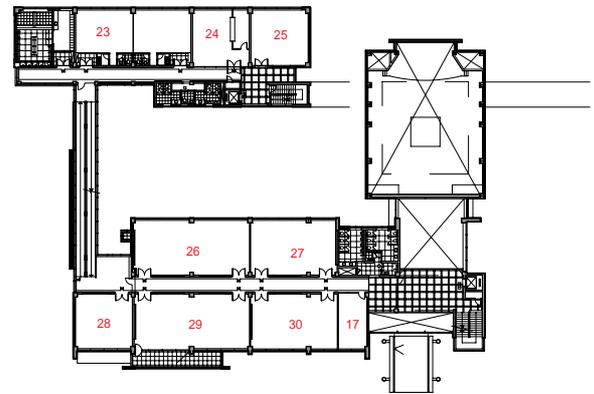
- |            |            |
|------------|------------|
| 01_ 지하주차장  | 18_ 가족실    |
| 02_ 공동작업실  | 19_ 진료상담실  |
| 03_ 전기실    | 20_ 자원봉사실  |
| 04_ 기계실    | 21_ 물리치료실  |
| 05_ 창고     | 22_ 대기홀    |
| 06_ 발전기실   | 23_ 거실/휴게실 |
| 07_ 시조종물실  | 24_ 식당     |
| 08_ 약기고    | 25_ 직업치료실  |
| 09_ 강당     | 26_ 교양강좌실  |
| 10_ 당구장    | 27_ 서예실    |
| 11_ 머리방    | 28_ 도서실    |
| 12_ 장기/바둑실 | 29_ 다용도실   |
| 13_ 상담실    | 30_ 컴퓨터실   |
| 14_ 전시실    | 31_ 탁구장    |
| 15_ 관장실    | 32_ 체력단련실  |
| 16_ 회의실    | 33_ 실버식당   |
| 17_ 사무실    | 34_ 노래방    |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   |                |
|---|----------------|
| 1 | 내부경사로          |
| 2 | 옥상정원 가벽 및 지붕조형 |
| 3 | 옥상정원 출입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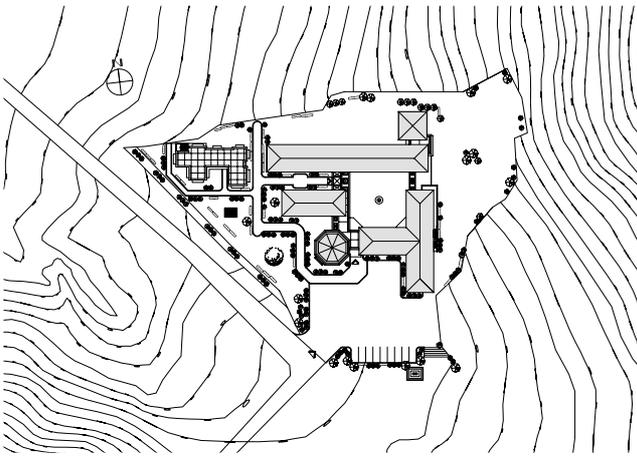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 평화가 함께

Peace Be With You

● 배치도

● 건축개요



0 5 10 15 20m

- 대지위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5번지 외
- 지역지구 관리지역
- 용도 종교집회장(수녀원)
- 대지면적 7,156㎡
- 건축면적 1,006.89㎡
- 연면적 982.91㎡
- 건폐율 14.07%
- 용적률 13.06%
-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 구조 벽돌 조적조
- 내부마감 내부용 본타일 + 고급벽지 + 사암(경당)
- 외부마감 적벽돌 + 시멘트기와
- 설계담당 김운찬, 정길수, 안창석, 이미란, 송명희
- 구조설계 (주) 동성 건축
- 설비설계 (주) 신일이앤씨
- 전기설계 한일전기설계감리사무소
- 시공사 (주) 한건종합건설
-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채수옥)
- 설계기간 2002. 05 ~ 2003. 05
- 공사기간 2003. 05 ~ 2004. 11

Location Okgye-ri 5, Gunam-myeon, Yeoncheon-gun,  
Gyeonggi-do, Korea

- Site area 7,156㎡
- Bldg. area 1,006.89㎡
- Gross floor area 982.91㎡
- Bldg. coverage ratio 14.07%
- Gross floor ratio 13.06%
- Structure Brick
-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one story above ground
- Design period 2002. 05 ~ 2003. 05
- Construction period 2003. 05 ~ 2004. 11



- 
- 1. 동측회랑에서 바라본 중정내부
  - 2. 전입마당에서 바라본 전경
  - 3. 남서측에서 바라본 전경



## 평화의 터

'평화가 함께 수녀원'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가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 서 평화의 터를 조성하려는 이천대회년 프로젝트(The Project of the Great Jubilee of Years of 2000)의 한 부분으로서 그 시발점이 되는 곳이다. 북녘 땅이 가까이에서 보이는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이 곳은 단순히 수녀회의 기도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에 골골이 맺힌 애환을 기도로 승화시킬 성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다시는 이 민족과 이 땅

에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원하는 '평화의 터' 성지개발 10년을 내다보며 계획하고 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는 1932년 평양 지목구에 창립된 한국의 첫 방인(邦人) 수녀회이다. 방인(邦人) 수녀회란 외국에서 진출한 수도회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창립된 수녀회를 말한다. 그래서 평양은 수녀회가 태동한 고향인 것이다. 평화의 터가 조성되고 있는 옥계리의 인성골은 청화산 서측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랄까, 복측을 향해 열린 골짜기의 지형을 갖고 있다.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이다.

## 평화가 함께 수녀원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900m 쯤 올라가면 수녀원이 위치한 곳에 도착한다. 그렇지만, 조금만 올라가면서부터 저 멀리 수녀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가는 길이 힘들게 느껴지진 않는다.

주위 나즈막한 산세와 어울리는 높이의 경사 지붕을 가진 평화가 함께 수녀원은 이 곳에서 상주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수녀님들의 공간과 사도직 활동에서 떠나온 수녀님들이 조용히 쉬면서 그간 수도생활을 돌아본 후 새로운 정신





과 마음 자세로 수도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그룹 피칭)을 주요기능으로 가지며, 사제실과 경당과 식당이 주요기능을 가진 공간과 조합되어 중정을 형성하는 형태의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측 주 출입구로 들어서면 좌측에 경당, 우측에 상주하는 수녀님들의 침실과 공동실 등이 위치한다. 경당은 팔각의 평면 형태를 가지며, 내부 벽체 마감은 자연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암으로 되어 있고,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로 채워진 창에서 외부의 빛이 은은하게 유입된다. 홍송으로 마감된 팔각모임의 천장은



1. 외부에서 중정쪽으로 바라본 서쪽회랑  
2. 경당 및 사제관 전경  
3. 서쪽회랑



기도공간을 더욱 경건하게 만들어 준다. 경당과 조금 떨어져 북측에 동서로 사제관이 있으며 경당 앞 복도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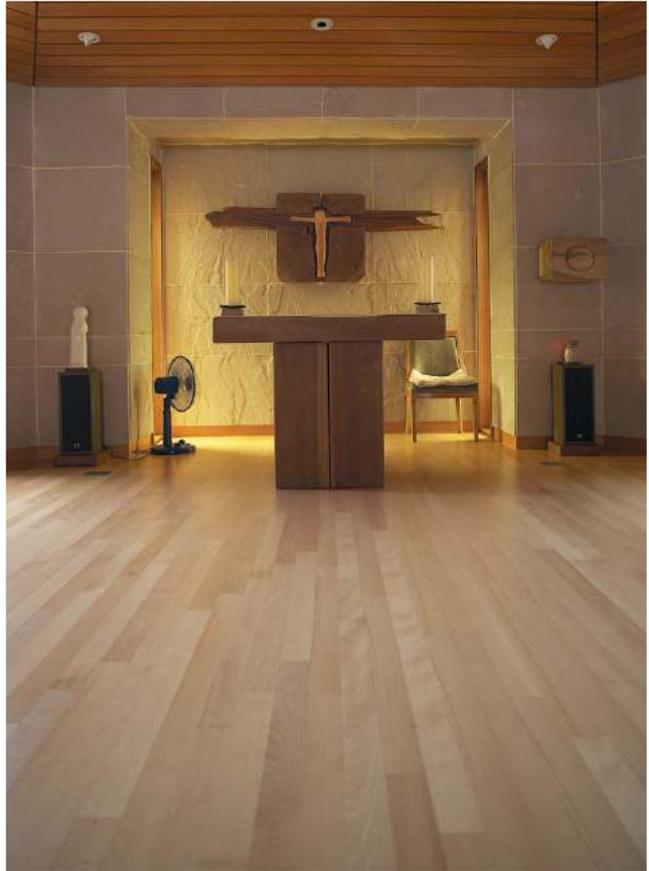
상주하는 수녀님들의 공간은 남측 앞마당을 반쯤 감싸고 있으며, 중정의 동측을 외부회랑과 함께 구성하여 북측 식당으로 연속적인 동선을 이끌어낸다.

가장 북측에 자리한 그룹 피칭을 위한 곳은 수녀님들을 위한 침실과 공동실이 동서방향을 축으로 길게 놓여져 있으며, 그 축의 동측 끝에 식당이 있다. 길게 늘어진 복도를 생각하면 지루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북측의 열린 복도 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자연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이를 무색하게 하고도 남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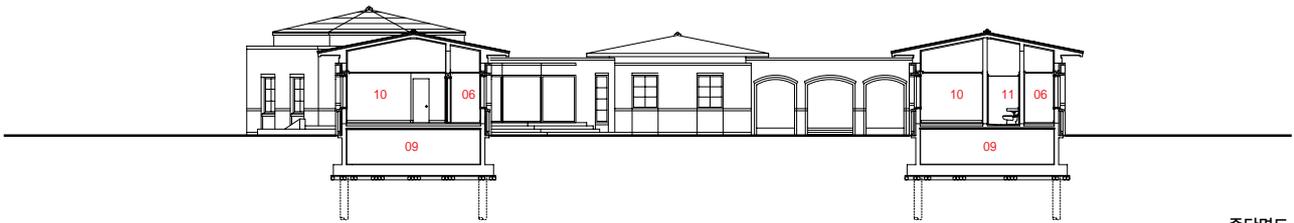
구심적 역할의 중정은 동측과 서측의 회랑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내부적으로 닫힌 듯하나 외부로는 열려져 있는 자연을 수용하는 공간을 이루고 있다

적벽돌의 벽체에 반듯한 직사각형의 창문을 반복하여 간결하게 표현된 외부는 여기를 찾는 이에게 안정된 마음을 갖게 한다. 벽에서 나온 나즈막한 지붕의 처마는 주변의 산세와 조화하여 자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 듯한 건축물을 만들어 낸다. 노출콘크리트의 처마 밑면에는 리브를 첨가하여 전통 건축의 이미지를 불러오게 했다. 그리고 물먹은 듯한 기와는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자연과 어우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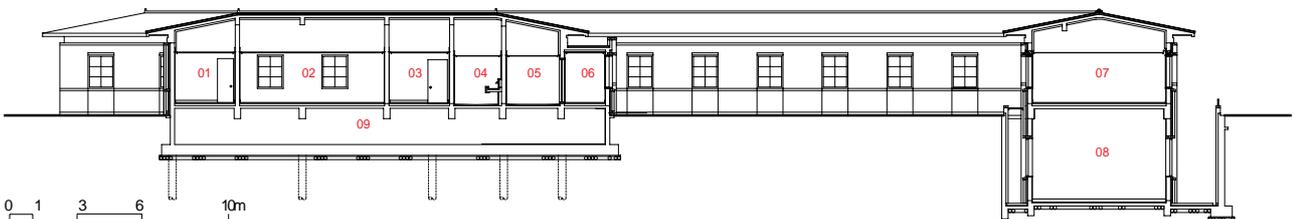
홀로 자연 속에 숨어 있던 인성골이 사람의 손이 닿아 더 좋은 터로 승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것이다. 이런 정성과 노력이 담겨져 있기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연과 사람과 수녀원이 어우러져 언제나 평화가 함께 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빌어 본다.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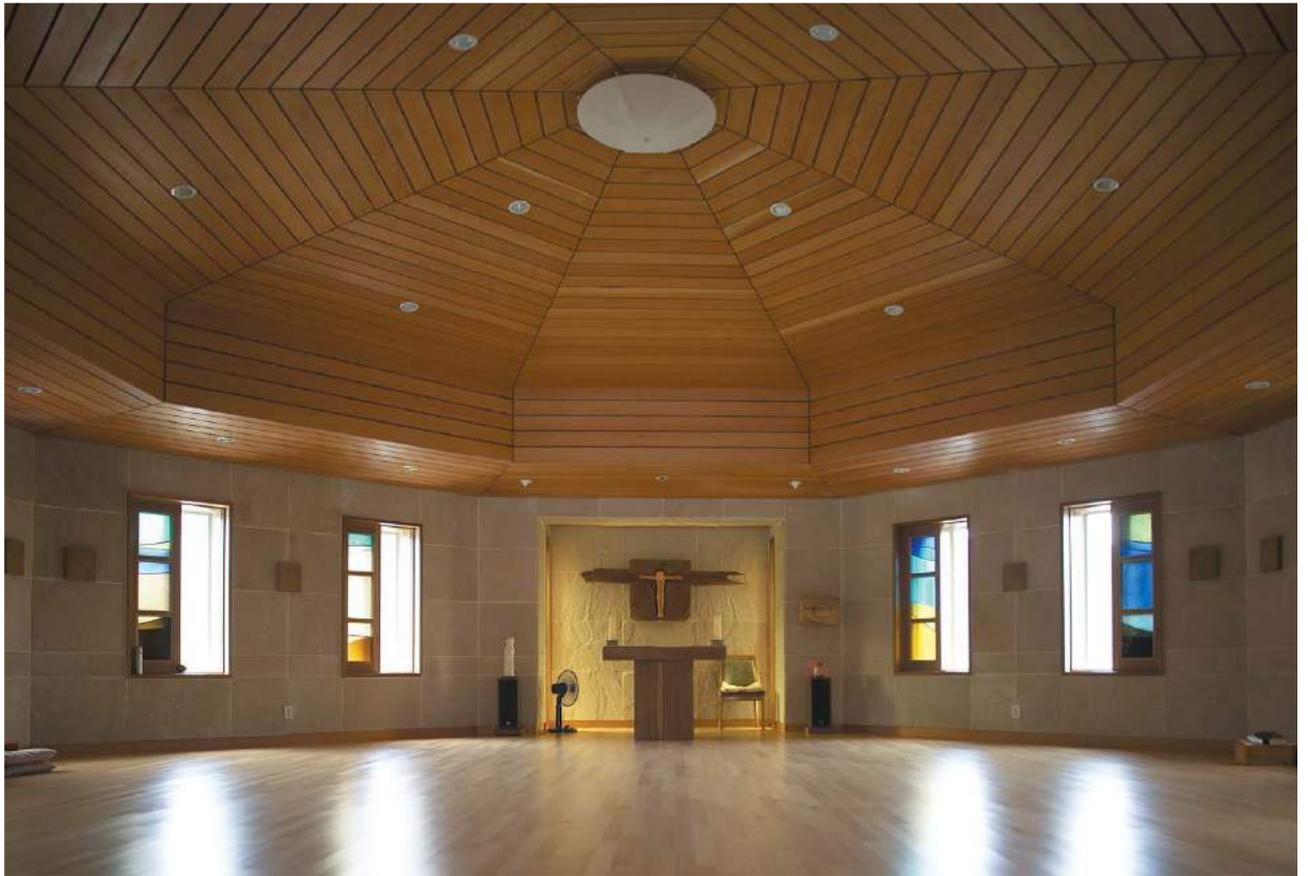
- 01\_ 사제침실
- 02\_ 거실/간이주방
- 03\_ 객실
- 04\_ 세탁실
- 05\_ 화장실
- 06\_ 복도
- 07\_ 식당/주방
- 08\_ 기계실
- 09\_ PIT
- 10\_ 수녀침실
- 11\_ 욕실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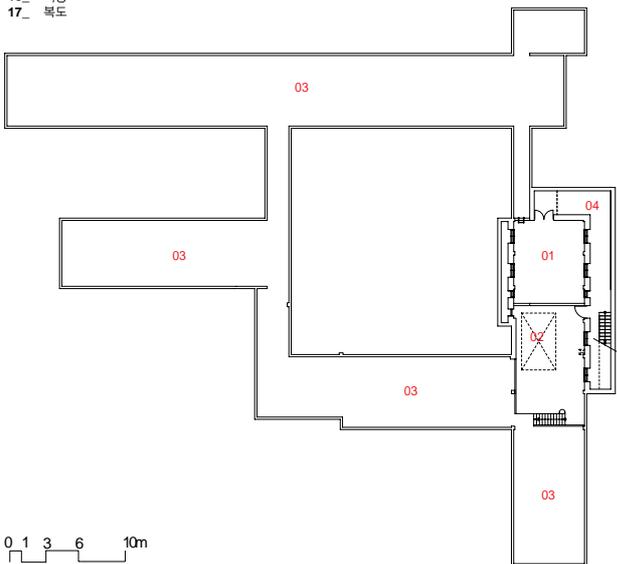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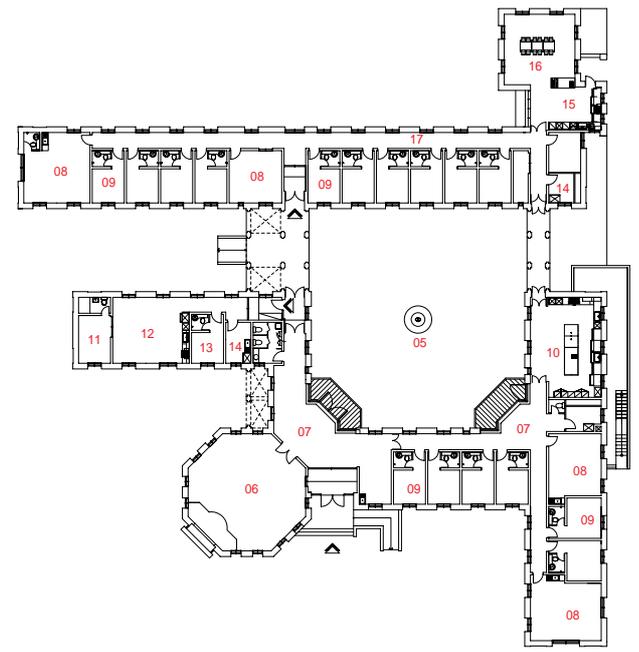
1	3	4
2		

1. 서쪽회랑  
2. 경당 앞 홀 내부  
3. 경당 제단  
4. 경당 내부

- 01\_ 기계실
- 02\_ 불탱크설치
- 03\_ PIT
- 04\_ Sunken
- 05\_ 중정
- 06\_ 경당
- 07\_ 홀
- 08\_ 공동실
- 09\_ 수녀침실
- 10\_ 식당/주방
- 11\_ 사제침실
- 12\_ 거실/간이주방
- 13\_ 객실
- 14\_ 세탁실
- 15\_ 주방
- 16\_ 식당
- 17\_ 복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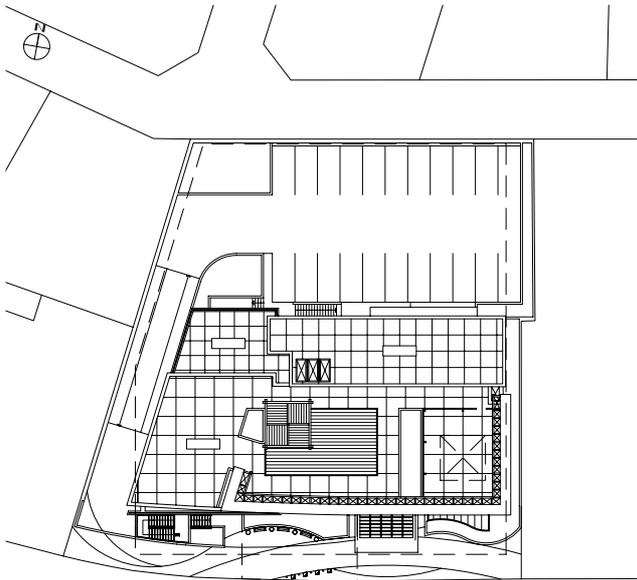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삼진제약 사옥

Samjin Pharm Headquarters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8-8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39.10㎡
건축면적	774.78㎡
연면적	8,854.38㎡
건폐율	42.04%
용적률	297.03%
규모	지하 3층, 지상 10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알루미늄 패널, 투명복층유리
구조설계	(주)정일구조
전기설계	제일설계
설비·기계	복성설계
토목설계	(주)티슬컨설팅
조경설계	(주)청원조경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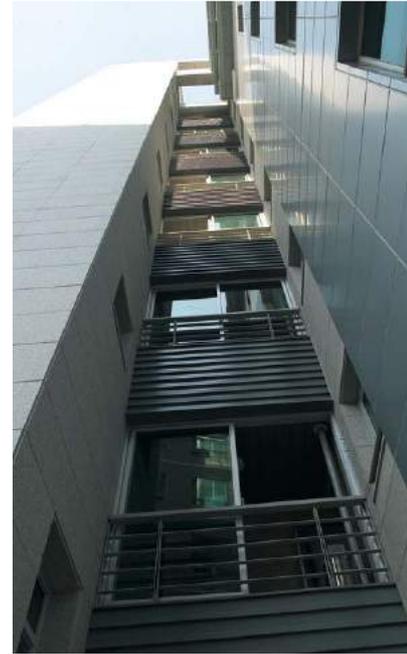
0 1 3 6 10m



Location	338-8, Seogyo-dong, Mapo-gu, Seoul, Korea
Site area	1,839.10㎡
Bldg. area	774.78㎡
Gross floor area	8,854.38㎡
Bldg. coverage ratio	42.04%
Gross floor ratio	297.03%
Structure	R,C
Bldg. Scale	three stories below ground, ten stories above ground







삼진제약은 마포구 서교동에 30년이 넘는 기간을 자리잡고 있었으며, 그 위치에 새로운 사옥을 건축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대지는 마포구의 중심인 서교동과 창전동의 경계로 20m와 8m 소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20m의 도로변은 홍대정문과 연결되는 5~6층 정도의 저층 건축물과 함께 대학가로를 형성하고 있고, 6m 도로변은 1~2층 저층 주거건축군과 연결하고 있어 그 방향에서의 정면성 확보와 주거군의 프라이버시 등의 해결이 요구되었다. 또한 20m의 좁은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9층) 큰 프로그램을 수용하여야 하는 어려움 등 기존 콘텍스트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 계획의 출발점이 되었다.

건물의 앞음세는 기존의 20m 가로의 건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배치하되, 좁은 전면도로에서의 거대한 스케일감을 해소하기 위해 저층부를 set back 시키고 주 출입구에 피로티를 계획하고, 투명한 유리를 사용하여 도로에서의 접근성과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건축물의 조형은 중저층 주거군이라는 가로의 컨텍스트에 대한 해결을 위해 6층에서 매스를 분

절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또한 인접건물과의 시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층부엔 불투명 외피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상부는 4면에 개방감 있는 투명 외피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였다. 건물 상부의 루프는 원거리에서의 인지성과 미래지향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계획되었다.

입면계획에 있어서도 유리를 전면에 사용하여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살렸고,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등 입면의 스케일감을 분할 계획하여 변화를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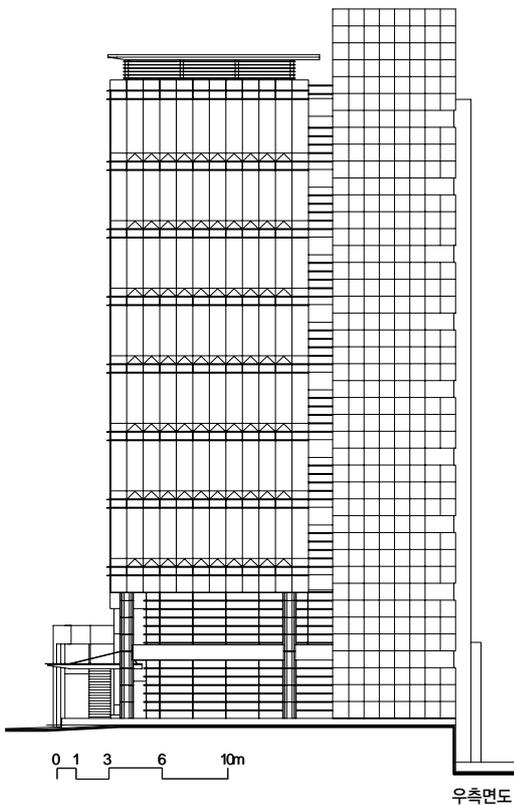
동선의 계획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에서 주 보행 동선 접근을 후면 6m 도로를 통해서는 지하주차장 차량출입 동선을 계획하였다. 건축물 내에서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저층부 임대공간과 주요오피스 공간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사옥 내의 시설배치는 지하 1층과 2층에 사원들을 위한 식당과 체력단련실, 강당 등을 배치하고, 1층은 개방감을 가지는 로비로 계획하였다. 2~4층은 임대를 위한 사무공간으로 4~9층은 삼진제약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각 업

무공간은 외기와 적극적으로 면할 수 있도록 테라스 등 외부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옥상공원은 직원들을 위한 쉼터로 적극적으로 시설을 계획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삼진제약 사옥의 신축은 현대화된 시설로 회사의 미래지향적 의지를 표출하고,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1 | 2 | 3 |
|   |   | 4 |
- 1. 7층 테라스 측면
  - 2. 계단실 옆 테라스
  - 3. 전입구 측면
  - 4. 옥상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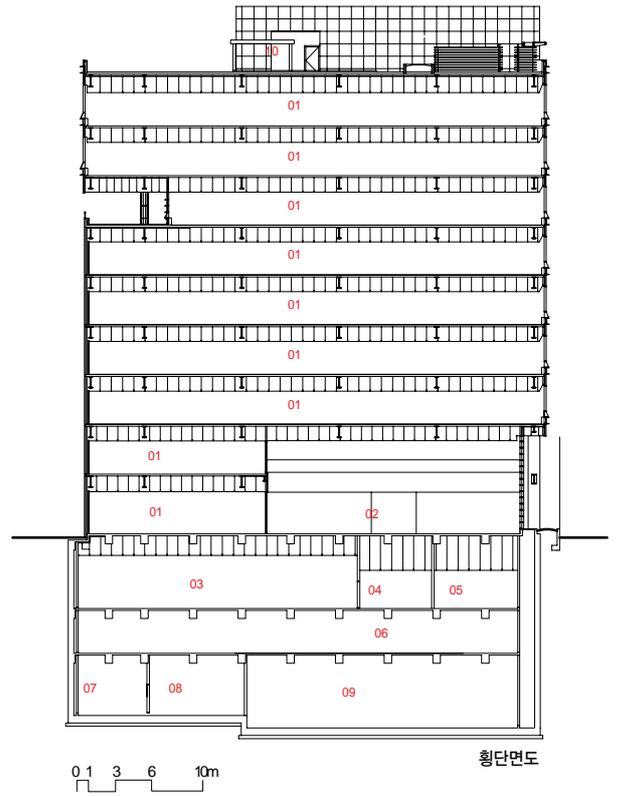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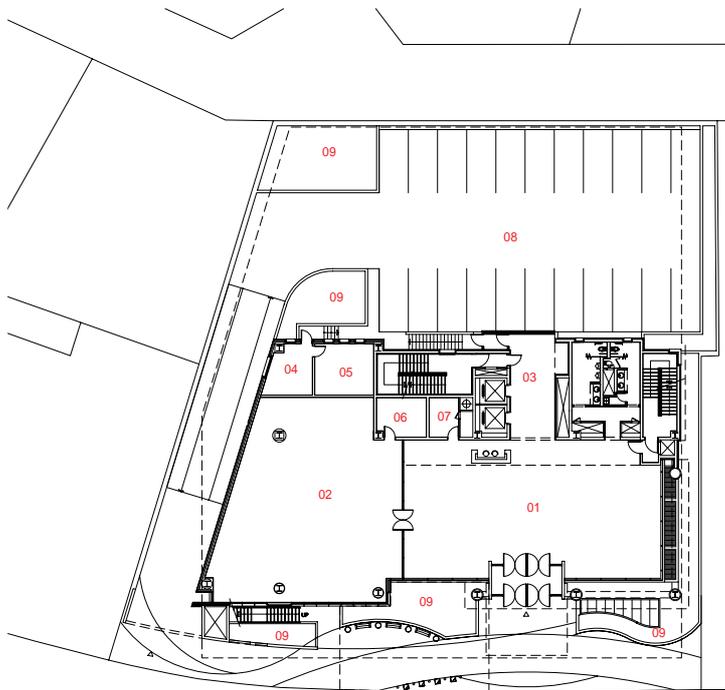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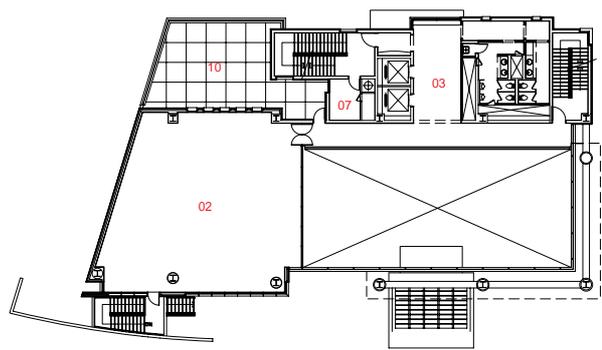
- |   |   |          |
|---|---|----------|
| 1 | 2 | 1. 옥면 전경 |
|   | 3 | 2. 사무공간  |
|   |   | 3. 옥상정원  |

- 01. 사무실
- 02. 로비
- 03. 다목적실
- 04. 대기홀
- 05. 방재센터
- 06. 지하주차장
- 07. 발전기실
- 08. 전기실
- 09. 기계실
- 10.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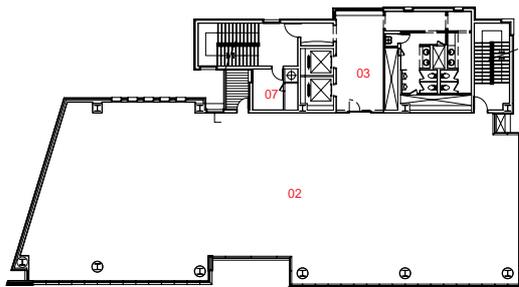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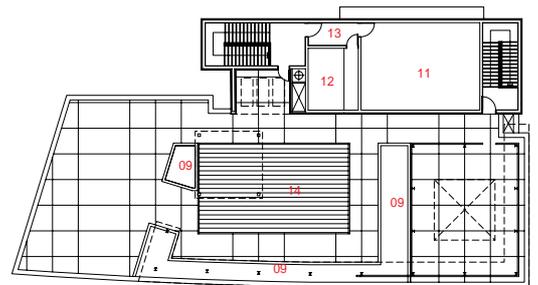


- |   |   |   |   |
|---|---|---|---|
| 1 | 2 | 3 | 4 |
|---|---|---|---|
1. 7층 테라스 전경
  2. 대회의실
  3. 엘리베이터 홀
  4. 2층에서 바라본 로비



3~6층 평면도

01. 로비
02. 사무실
03. ELEV.홀
04. 경비실
05. 기사대기실
06. 창고
07. 통신실
08. 방문객용외주차
09. 조경
10. 테라스
11. 공조실
12. ELEV.기계실
13. 잔실
14.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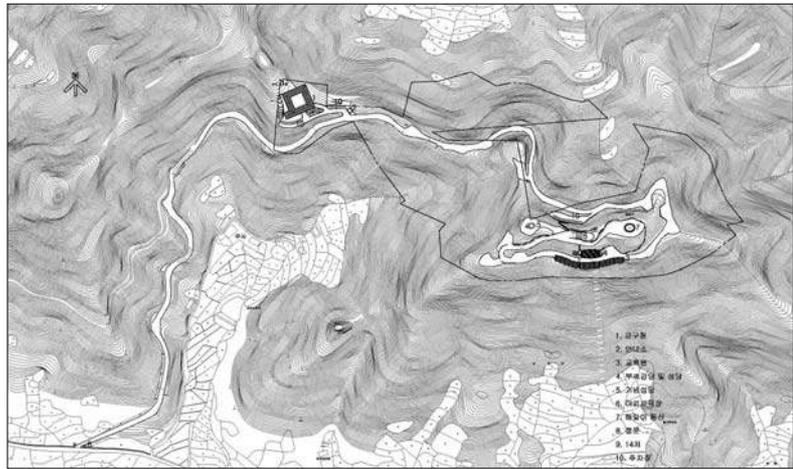


10층 평면도

## 천주교 마산교구 교구청단지

Diocese of Masan Complex

이번 계획은 천주교 마산교구 설정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교구의 상징적·중심적 시설로서의 교구청 단지를 계획하였고, 교구청의 교구업무 및 숙소공간과 단지 내 교육원을 설치하여 신앙교육의 요람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이 계획으로 종교·문화 Program 등의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발전의 증대효과를 꾀할 수 있다. 아울러 기 개설된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일부 평탄하게 조성된 부지를 활용 하고, 주변지형과 경관에 순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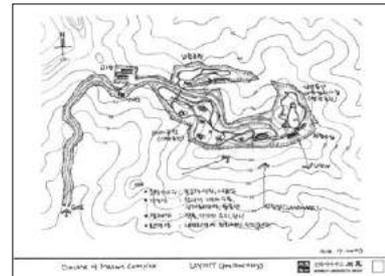
배치도

### 배치계획

- 지구별 시설
  - 교구청(업무, 숙소)지구
  - 교육원 지구 등
- 지구분리 및 분리방법
  - 도로, 녹지, 지형의 자연 경사 이용
- 건물군의 식별성
  - 진입과정에서 건물군의 주중요소가 명확히 인식되는 동시에 입구에 이어

지는 동선식별이 분명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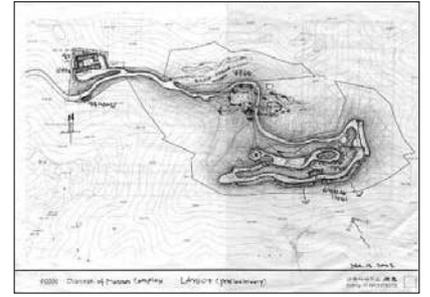
- 확장가능성
    - 장래 확장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보지의 확보(교육원지구)
  - 장래예정지구
    - 테마공원
- 산책로 : 계획부지 외  
노선계획은 산책로, 탐방로(담, 블록 등) 중에 주변경관과



최초 도상구상안

기존생태(동,식물)환경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소와의 연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며 안전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기존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공중보행로를 설치하며, 직선보다는 유선형이 되도록 하였다.

· 납골원 예정지구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경사지를 이용하여 납골원을 규격화, unit로 구성하여 집적시킴으로써 환경적인 납골원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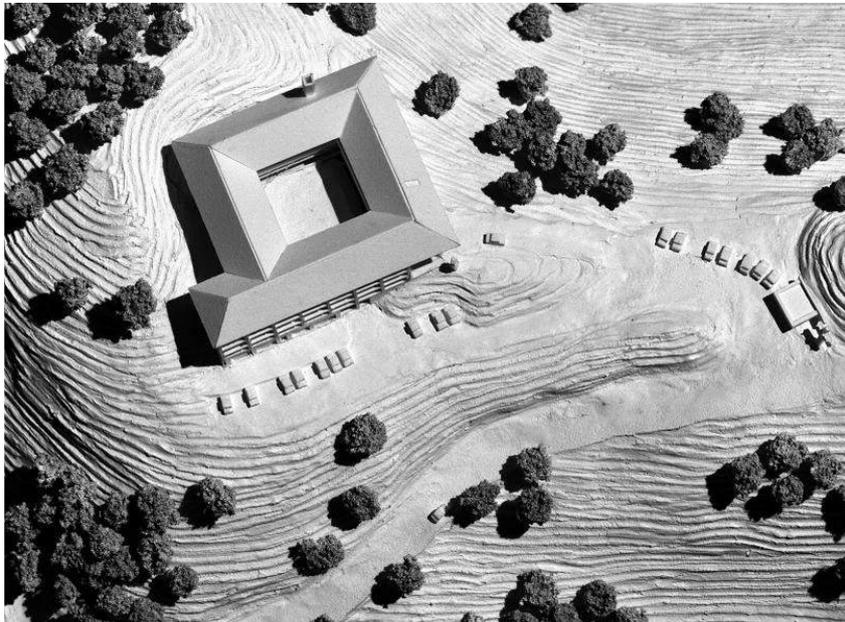


1차 계획안

### 건물계획의 방향

	목 표	원 칙 및 기 준	적 용
기 능	능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의 향적 조건 충족</li> <li>합리적인 기능의 수용</li> <li>사용자에 따른 명확한 동선 분리</li> <li>장래 변화에 따른 Flexibility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실의 남향배치 원칙</li> <li>적극적 자연경관 이용</li> <li>명확한 동선분리에 의한 동선체계의 조직화</li> <li>모듈에 의한 평면 구성 및 가동 칸막이 사용</li> </ul>
조 형	종교적 중심 · 상징성 자연친화적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분하면서도 변화감 있는 조형미</li> <li>자연환경과의 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의 경사를 최대한 이용(자연스런 변화추구)</li> <li>친환경 외장재료 사용 추구</li> <li>저층부로 계획</li> </ul>
경 제	Energy 절감 설비 System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유지관리의 편의성</li> <li>규모 변화에 따른 융통성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지관리의 경제성 우선</li> <li>Energy saving이 고려된 설비계통의 체계화</li> <li>자연채광 최대한 이용-Top Light 활용</li> <li>사용재료의 내구성</li> </ul>

### ● 교구청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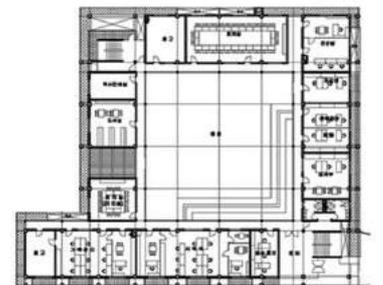
동측입면도

### ● 건축개요

시 설 교구청, 기존교구청의 이전, 숙소기능 포함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1,493.44㎡  
 연 면 적 4,594.48㎡  
 주차대수 3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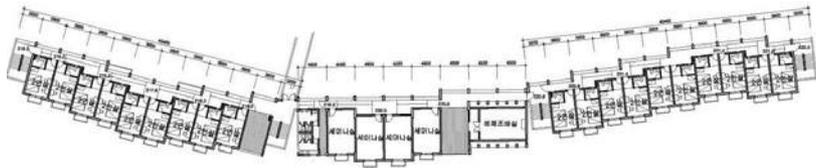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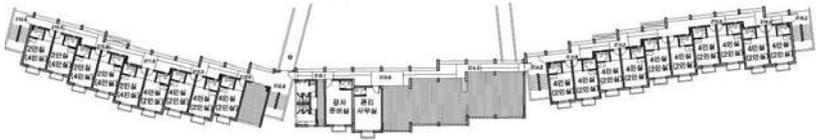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교육원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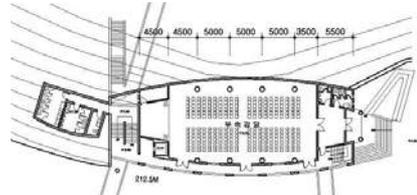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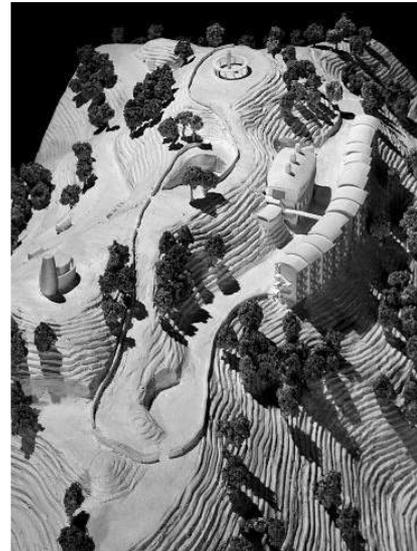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부속성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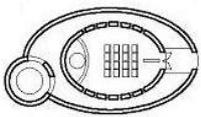


부속성당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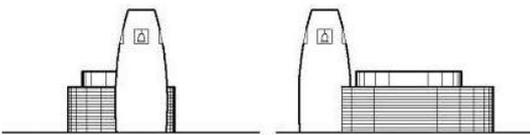
● 건축개요

시 설	교육원, 교육원 및 부속성당·강당을 포함한 동시수용인원 220명 규모의 시설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1,710.35㎡
연 면 적	5,892.72㎡
주차대수	2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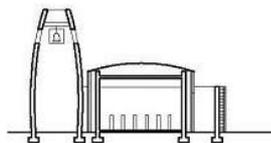
● 기념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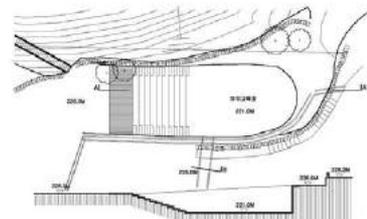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A 단면도

● 건축개요

시 설	기념성당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규 모	지상 1층
건축면적	142.43㎡
연 면 적	142.43㎡

## 환경계획

### - 건축환경계획

항 목	목 표	설 계 기 법
에너지절약	자연지형을 활용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지를 이용</li> <li>일사 및 일조를 고려한 배치</li> <li>풍향조절을 위한 배치</li> <li>주차를 건물 인접배치 억제</li> </ul>
	자연자원과 에너지의 생태적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의 형태와 열적 부하고려</li> <li>자연통풍 및 환기</li> <li>자연채광</li> <li>환경친화적 건축재료 (건축재료에 의한 유해요소와 실내오염 방지)</li> </ul>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물의 활용(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수의 순환 이용</li> <li>오수 및 집배수의 순환 이용</li> <li>지표의 투수화</li> <li>침투 처리시설의 정비</li> <li>지반의 침하 방지</li> </ul>

### - 환경친화적 건축계획사항

항 목	개 념	내 용
환경조절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절약 및 순환적 사용</li> <li>패시브솔라시스템 개념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수요 최소화와 효율적 이용</li> <li>물 보호, 토양 보호</li> <li>자연환기, 미기후, 토지이용, 건축형태 등으로 실내기후 조절</li> </ul>
형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적 형태의 차용과 응용</li> <li>주변환경과의 유기적 조화</li> <li>지형을 고려한 계획방법</li> <li>전통요소의 존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및 지형에의 순응</li> <li>건축물 내·외부의 유기적 연계</li> <li>자연친화적 형태의 디자인</li> <li>유기적 재료의 활용</li> </ul>
재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재료 사용</li> <li>재생·재활용 소재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사용 가능한 재료 사용</li> </ul>
공간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문화와 전통요소의 존중</li> <li>녹지공간, 자연의 도입</li> <li>자연의 연속성</li> <li>주변환경과의 유기적 연계 및 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내·외부의 유기적 연계</li> <li>유기적 공간원리 적용</li> <li>개방적 공간수법을 이용한 계획 방법</li> <li>자연과의 일체를 통한 계획 방법</li> </ul>

항 목	개 념	내 용
공간적 측면	• 휴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 토양· 자연 지형의 이용</li> <li>단지 내 포장을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li> <li>인공지반의 조성(식재, 녹화블록을 활용)</li> <li>주변수목정비(정상부 주변 거목이 육성)</li> </ul>
	• 녹지 공간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자생식물) 녹지 보존(자연 생태계 회복)</li> <li>연속적인 수목식재(인입로 가로수 계획)</li> <li>야생 동식물 보호 (통로와 연결성, 서식처의 네트워크화)</li> </ul>
	• 내구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재료의 내구성 강화(콘크리트, 목재 등)</li> <li>가변형 공간구성 : 프레임방식에 의한 가변적안구조 방식 채택(교구형 공간구성)</li> </ul>
건강한 건축환경의 추구	• Barrier Free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장애자, 노약자를 배려한 물리적 환경정비(보도, 경사로, 접근로 등)</li> </ul>
	• 친환경적 색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의 색채조화</li> <li>자연의 색채기능과의 조화</li> <li>계절의 색채변화</li> </ul>

## 옥외시설계획

### - 부지활용 계획

- 부지에 순응하며 자연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부지 활용
- 건물의 고유기능에 적합하고, 상호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옥외시설 배치

### - 옥외시설 계획

- 목주기도의 길 : 기존 도로와 지형을 이용하여 목주기도의 길을 조성함. 성벽(돌) 및 기도의 길 주변에는 자연석 등으로 성벽을 설치하며, 계단구배, 단 폭 및 단차는 현장여건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해맞이 동산 : 봉화산 정상, 기존의 공지를 그대로 해맞이 행사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평상시 순례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소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한 셀터와 랜드마크적인 성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상을 설치하였다.

- 야외교육장 : 종교적인 행사는 물론 여러 가지 옥외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계획
- 14처 : 정문에서부터 교육원에 이르기까지 진입도로변에 십자가의 길을 조성키 위해 예수님이 죄없이 사형을 선고받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과정을 14처로 나누어 목상장소를 만들. 각 처는 주변 환경과 활용가능한 바탕재로서 화강암들을 이용하여 부조형식 등으로 조각하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14요소에 설치하였다.
- 휴게시설 : 벤치, 정자 등 휴게시설은 전망이 좋은 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등에 설치하였다. 기후(우천, 바람)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강하도록 하며, 야간시를 대비해 조명시설을 설치하였다.

- 성묘동산 : 교구청입구와 교육원 입구 광장에 성묘상을 안치함
- 조명시설 : 야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밝기와 설치수량을 확보하였다. 야간의 활동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설치형태, 조명개수, 시간에 따른 조도의 조절 등을 결정함 주변의 야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다.
- 정문 : 단지로의 접근 시 도로에서의 인지와 교구청단지내와의 영역성이 요구되며, 동시에 종교적인 장소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되었다.
- 표지판 : 표지판의 기능은 안내, 유도, 제한, 금지, 지시, 설명 등으로써 각 기능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인식성이 높게 설치하였다. 표지판은 경관과 시설에 대한 안내와 안전유도 등의 기능 외에도 교구행사, 이벤트, 자연생태계 등 다양한 주제를 내원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 서울 노들섬 예술센터

Seoul Performing Arts Center

서울시는 서울을 동북아 문화중심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예술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한강 노들섬에 서울의 역동성과 도시 문화의 풍부함을 상징하는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하우스, 심포니홀 및 청소년야외음악당으로 구성되는 『Seoul Performing Arts Center』 건립을 추진, 디자인을 지난 2005년 4월 27일 UIA를 통해 국제아이디어를 공모하였고, 6월 10일 참가등록 마감한 결과 세계 각국에서 538명이 참가등록(내국인 229명, 외국인 309명)한 가운데 1등 당선작 5작품과 2등작 5작품, 3등작 10작품, 가작 4작품을 각각 선정하였다.

이번 국제아이디어설계경기를 통해 선정된 건축가 5명은 지난 7월 결정한 초빙건축가 3명(산티아고 칼라트라바, 징누벨, 도미니크 페로)과 함께 총 8명의 건축가 P●●에 포함된다. 1등작과 2등, 3등작을 소개한다.

#### <수상작 명단>

순위	구분	이름	성	국적	직업
1	개인	Andres Perea	Perea	Spain	Architect
1	팀	Anna Ranova Lundstrom	Lundstrom	Sweden	Architect
1	개인	Liang Hou	Hou	Belgium	Architect
1	개인	Jung Gon Kim	Kim	Korea	Architect
1	팀	Song Hee Choi	Choi	Korea	Architect
2	개인	Javier Maroto Ramos	Maroto Ramos	Spain	Architect
2	개인	Jean-Pierre Duerig	Duerig	Switzerland	Architect
2	팀	Ka Eul Chae	Chae	Korea	Student
2	팀	Satoshi Matsuoka	Matsuoka	Japan	Architect
2	팀	Yasuhiro Yamashita	Yamashita	Japan	Architect
3	팀	Frederic Roda	Roda	France	Architect
3	개인	Hannes Freudenreich	Freudenreich	Germany	Architect
3	팀	Jin Kouk Jeong	Jeong	Korea	Architect
3	팀	Mona Marbach	Marbach	Austria	Architect
3	팀	Robert OMahoney	OMahoney	USA	Architect
3	팀	Ropa Bernard	Bernard	France	Architect
3	팀	Sergio Barreto	Barreto	Uruguay	Student
3	팀	Staffhane Maupin	Maupin	France	Architect
3	팀	Su Ung Ju	Ju	Korea	Architect
3	팀	Woong Won Yoon	Yoon	Korea	Architect
가작	팀	Phil Reyes	Reyes	USA	Architect
가작	팀	Raynaud Francoise	Francoise	France	Architect
가작	개인	Roberto Otero	Otero	Mexico	Architect
가작	개인	Sung Goo Yang	Yang	Korea	Student(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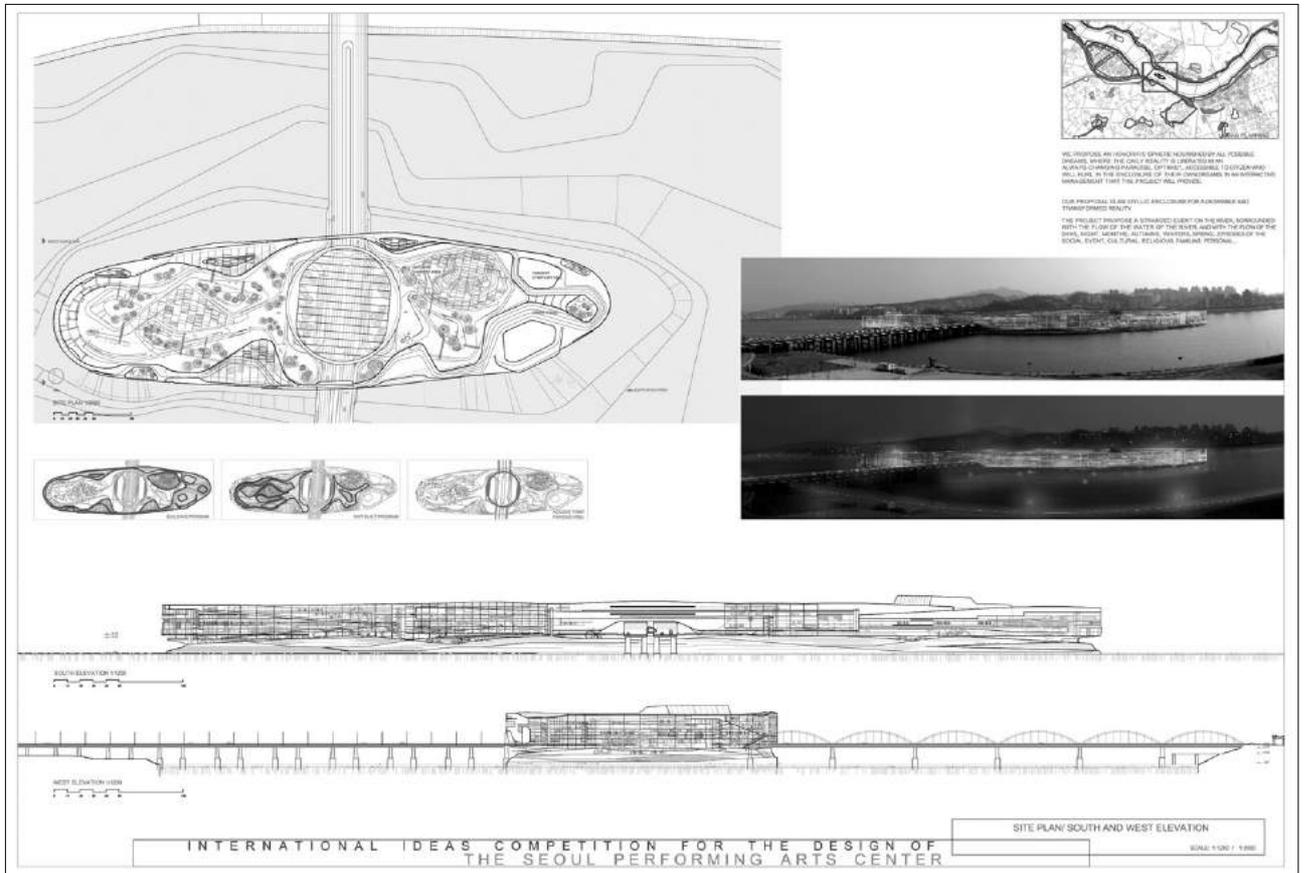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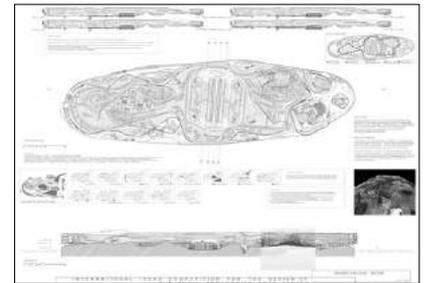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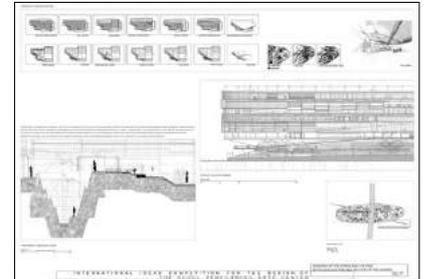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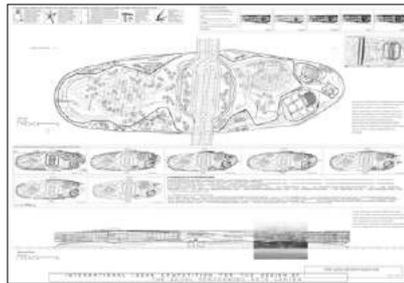


노들섬

1등작 / 앙드레스 페레이아(스페인)

이 작품은 노들섬을 한강 다리의 맞은편과 연계된 프로그램과 공원 위에 공연 예술센터의 문화 시설들을 수용하는 대규모의 울타리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안이 힘 있는 제안이 된 이유는 명확하고도 유용한 공적 공간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콘서트홀과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특별하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루 온종일 걸쳐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열려진 넓은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살아있는 문화센터에 꼭 들어맞는, 항상 변화하면서도 섬세한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밤낮으로 활기 있는 관객 흐름 통한 공간적 파티를 이루어지게 한다. 심사위원들은 설계 공모 요강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독창적인 해답을 높이 평가하였고, 아이콘

(형상)에 의한 평범한 계획을 넘어서는 공적 장소에 대한 독특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수한 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주의 깊고 철저한 계획안에 감명 받았다.(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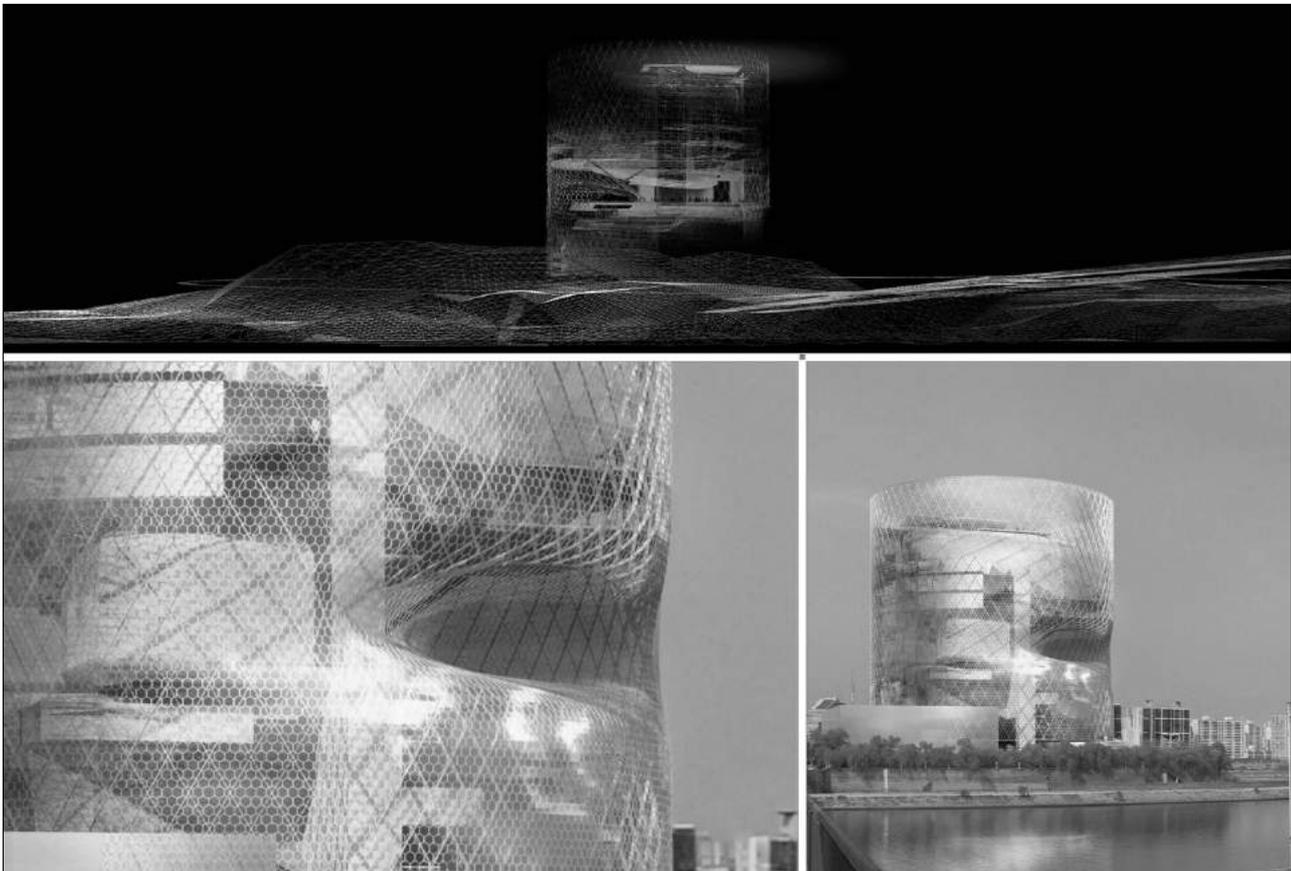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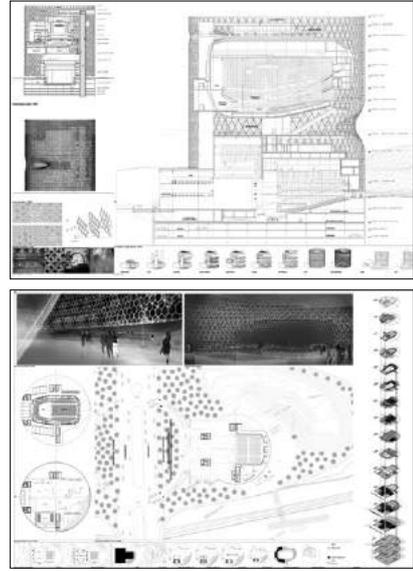
1등작 / 안나 라노바 룬트스트롬(스웨덴), 토시히로 쿠보타, 스테판 마티스

랜턴(등불)과 같은 형태의 계획안은 밤낮 모두 강렬하게 나타나는 강한 아이콘(형상)적 존재를 의미한다. 조밀하면서 수직적인 형태 안에 모든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건축물의 시각적 효과는 극대화된다. 콘서트홀의 밝은 볼륨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반면, 기능적으로 보다 집약적인 보조 시설과 서비스 시설이 요구되어지는 오페라 하우스는 같거나 낮은 위치에 있다. 표피가 접혀 있어서 외부에서도 특징적으로 존재가 드러나는 대형 로비 공간은 두 개의 닫힌 볼륨들 사이에 있다. 이 높은 곳에 위치한 로비는 한강과 서울시를 바라보는 환상적인 전망을 가지게 된다. 건물로의 진입은 한강 다리에서부터 직접 연결되고 주차는 건물의 밑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대지의 나머지 공간은 야외 공연장과 같이 산재된 프로그램 요

소들을 가진 조경 공원으로 쓰여진다.

이 건물은 혁신적인 구조의 점진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모자이크화된 표피, 내재된

조명과 상호작용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기술적 해결 방안과 강한 아이콘(형상)적 존재의 높은 수준은 심사위원들에게 감명을 주었다.(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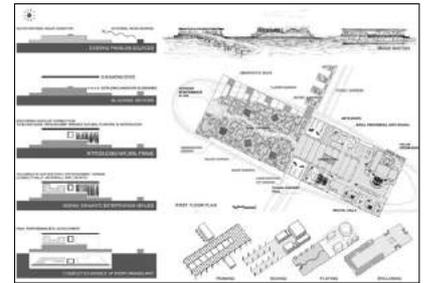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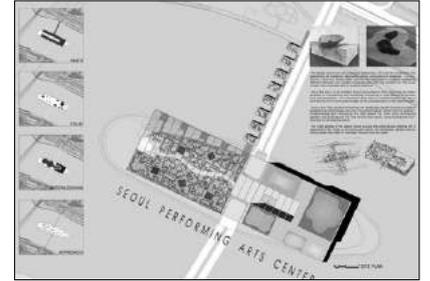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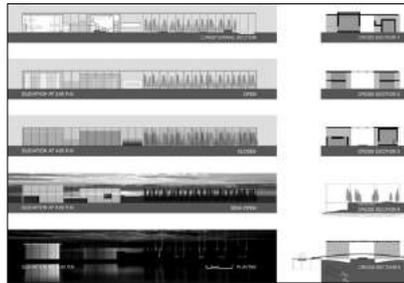


1등작 / 김정곤(한국), 정상대, 이인원, 오세중, 윤지혜, 박병찬, 김진엽

재고되거나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종합적으로 볼 때 기본 컨셉에 변경이 없을 정도로 실현가능한 현실적 계획안이다.(심사평)

육면체의 프레임 장치가 섬을 차지하고 부유하는 컬러링의 효과를 창출해낸다. 그것은 밤낮으로 도시의 아이콘(형상)으로서 잘 작용할 것이다. 이 작품은 우아하게 디자인된 구조이며, 구조 부재들의 크기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 발전될 계획안에서도 그 가벼움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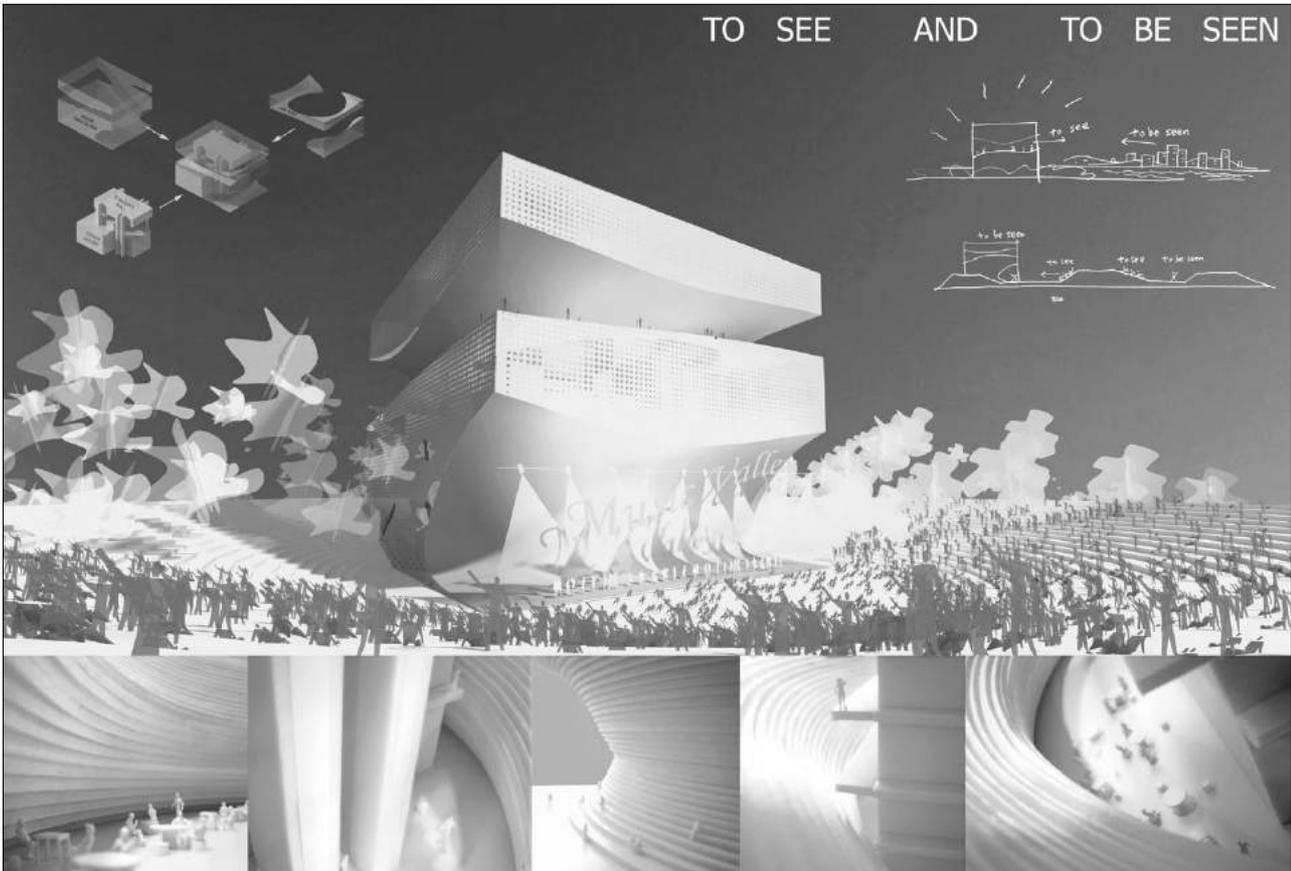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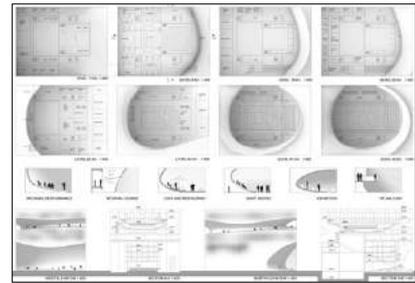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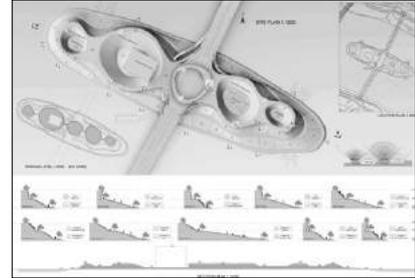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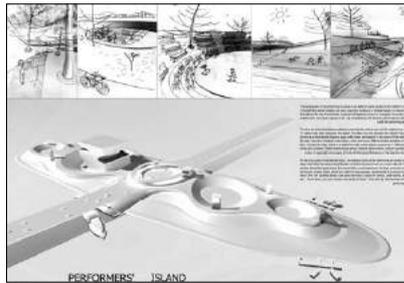
육면체 상자의 틀은 평면 차원에서 구조와 자연을 분리하고 있는 반면, 입면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고 있다. 조경 디자인에 신경을 썼을 지라도 조경 영역은 전략적으로 소음이 심한 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계획이 '인간이 만든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로의 모티프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포켓 정원은



1등작 / 리양 호(벨기에), 안 킹 안

사위원들은 쾌적한 퍼블릭 오픈 스페이스로서의 랜드폼 영역의 조경과 동선의 앞으로의 발전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심사평)

이 계획안의 디자인 중점은 이중 레벨의 강가 산책로에 의해 다섯 종류의 랜드폼으로 섬을 분할하는 것이다. 각각의 랜드폼 영역들은 공연장, 차량 진입, 수공간, 레크레이션, 어린이를 위한 영역 등의 특별한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공연장은 오페라 극장과 심포니 홀을 수직적으로 쌓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디자인의 풍부함, 신선함 그리고 강한 그래픽적 표현 방법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 접시 형상의 다섯 개의 랜드폼은 섬에서 동시다발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개별적인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 중첩된 공연장 건물은 강한 아이콘(형상)적인 요소를 제공할 것이다. 심사위원의 디자인 비평 중에 오디토리움과 기능 공간의 배치와 공연장 건물 내부 기능들의 전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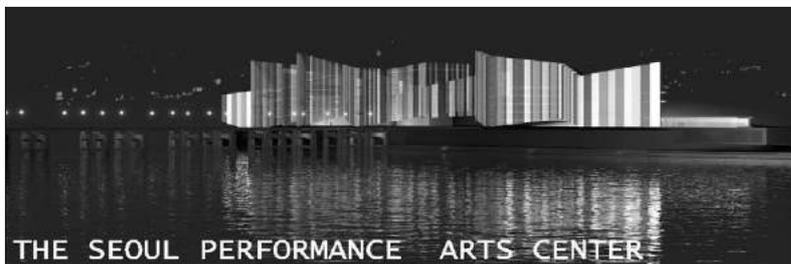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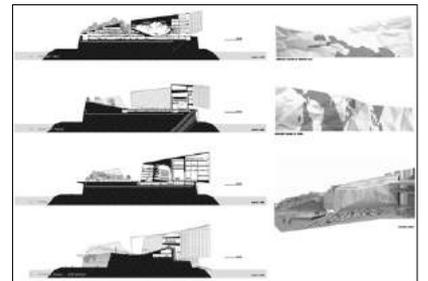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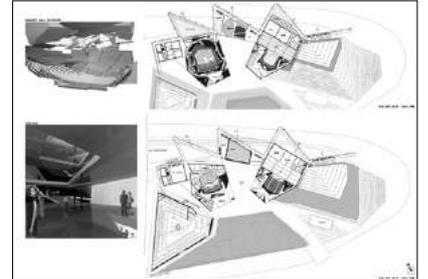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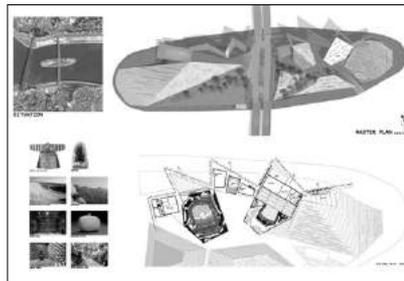
1등작 / 최성희(한국), 로랑 페레라 고단호

서울 공연 예술센터를 위한 이 작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심사 위원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즉, 하나는 서울 도심으로부터 보여지는 힘 있게 꺾어진 파사드이고, 다른 하나는 남측의 테라스와 녹지 공간의 꺾어져 열린 조경 공간을 말한다. 건물의 구조는 공연자와 청중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 신중하게 형태화되었고, 각각의 공적 공간은 새로운 광장을 둘러싸고 있다. 구조는 내부 기능을 잘 반영하는 건물 형태와 함께 간단하면서도 곧게 뻗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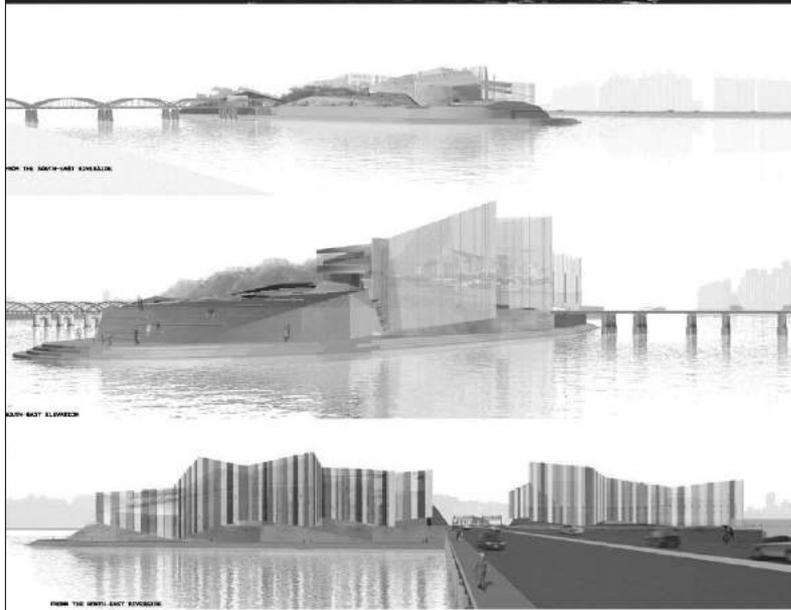
도시에 면하고 있는 꺾어진 스크린은 오페라 무대의 거대한 매스와 건물 공간의 콘서트홀의 후면을 중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전통적인 색의 수직적 줄무늬로 이루어져 있고 언제나 변화하는 파사드로서 디자인될 수 있다.

이 계획안은 보다 더 많은 공연 예술 콤플렉스가 노들섬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호텔, 스포츠 센터, 레크레이션 시설들이 더해지기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시설을 제외한 모든 발전이 다리의 서쪽 부분으로 진행되어질 때 다리의 동쪽에 모두 위치한 공연 예술 시설은 더욱 독립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후자는 세련되고 힘 있는 아이디어이고, 전자의 계획은 전적으로 실용적이다. 프로그램

이 더욱 구체화됨에 따라 쉽게 정리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심사평)



THE SEOUL PERFORMANCE ARTS CENTER



DESIGN SUMMARY

The Seoul Performance Arts Center creates a new citadelle, a new silhouette among the hills of Seoul. It consists of three main programs: opera, concert hall and music house situated on the east side of the island.

On the west side, the leisure activities (Cinema Art Center, swimming pool) and sports, restaurant and hotel) and the large park raise the island to a correct cultural node for Seoul, enjoying the central position in the city map.

On the south side, a gentle park slopes down to create a valley, protecting the central entrance courtyard, which offers selected views to the river. The island stands as a landscape seen from most of the Han shores, a green hill from the south and a colorful screen from the north.

A large and colorful screen is the northern edge of the island, a striated surface that plays with colors and the reflected surroundings, its faces and contours changing with the angle of view. The colors composition is based on the sophisticated balance of a traditional costu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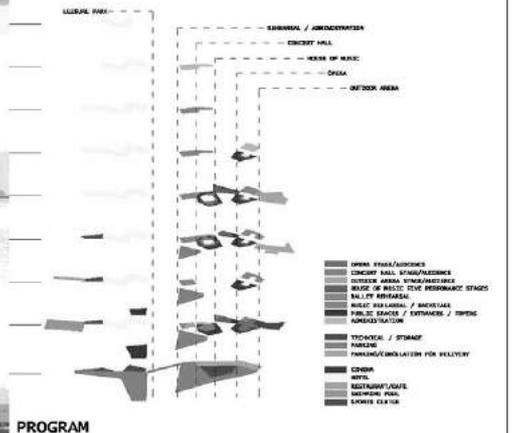
It is the main link between the 2 halls, used by the public at some levels and the staff and performers at others. The highest part is an access to the "staircase restaurant", offering an amazing viewpoint of the Han River.

Shawou's statement inspired the concert hall design: "to gather around the music": a continuous stone around the orchestra reaches the 2200 seats' surface. The broken lines of balconies and the crystalline ceiling are reminiscent of the curve of an oboist's.

As the opera performance is a physical encounter with the public, the spectator's distance from the stage should not exceed 30 meters. The 1200 people audience is brought closer with the performer in a compact room, each balcony being situated as close as possible to the stage. The foyer is organized around a wall, where the audience becomes the performance itself, a reference to the one of Denise's opera de Paris.

The House of Music is the working core of the SPAC. 5 different halls can be used for rehearsals and workshops of the music ensembles as well as for public performances. The variety of types offers a varied choice for many types of music and sizes of shows: Experimental Sound Box (CF room, music), orchestral hall, the choral room, Chamber music room and multi-purpose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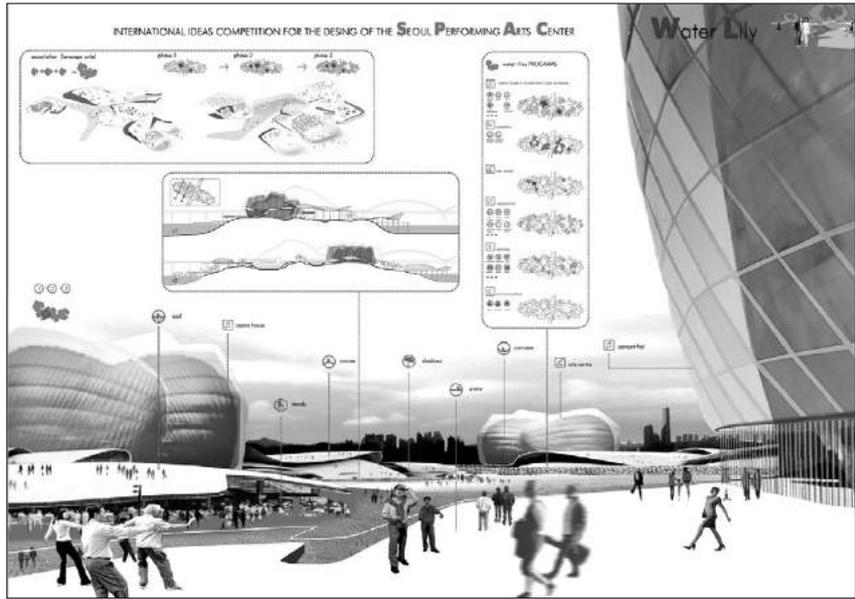
At the edge of edge island, the park slopes create an arena opened to the mapping landscape, following the great tradition: in the staircase restaurant, the great view to the river is a performance in itself.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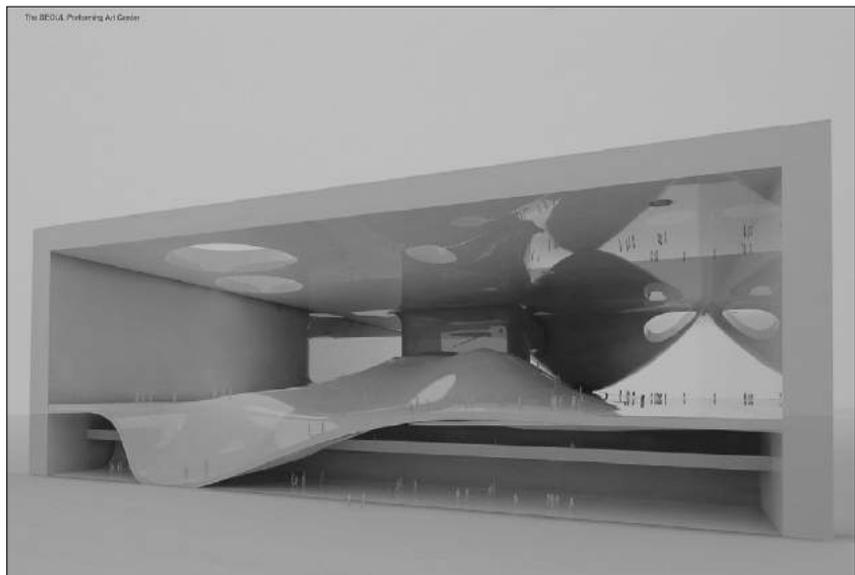
2등작 / 지비에 마로토 라모스(스페인), 알바로 소토 아귀르, 실비아 나탈리아 고메즈 디아즈, 이리스 지메네스 질, 안드레스 아라고네세스 로드리게스, 알레잔드라 나바레트 로피스, 카르멜로 로드리게스 세달로, 굴레르모 가르시아-바델 델리베스, 이온 쿠에르바스-몬스 모라토, 안토니오 누네즈 벨라스케스

이 계획안은 레크레이션/공연 예술 영역으로 할애된 보다 넓은 도시 영역 안으로 섬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섬의 도시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물들이 놓여진 서로 다른 '작은 섬들'의 모자이크처럼 보여지도록 하였다. 이 '작은 섬들'은 섬 전체의 땅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 이것은 각기 다른 건물들과 조경 공간을 구성하는 자연 요소들 사이의 위계 형성을 강조한다. 이 계획안은 도시의 중요한 랜드마크를 제시하고 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의 네트워크이다.(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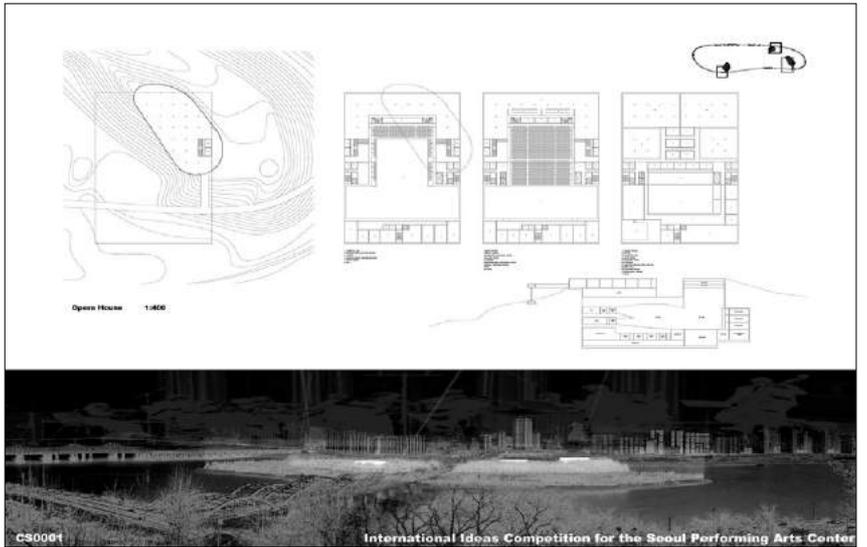
2등작 / 장-피에르 뒤리(스위스), 시몽 캄프, 쥐디 라스즐로

단순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기교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박스 형태의 다른 많은 출품작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안은 건물의 표피를 잘 이용하고 있다. 옥상은 원형 극장과 굽이치는 지붕을 가진 콘서트 홀로 꾸며질 것이고, 이것은 역동적인 외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막힌 벽은 다리의 두 측면에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게 될 것이고, 도시의 북쪽과 남쪽을 향해 건물의 전망이 열리게 될 것이다.(심사평)



2등작 / 채가을(한국), 소 형섭

이 계획은 현재처럼 잘 유지된 아름다운 섬을 제안하고 있다. 땅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건축의 표현은 제한되어 있되 아주 강렬하다. 드로잉은 건축이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시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상징성'은 형태의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축'과 '비구축'에 대한 미래 환경을 위한 가치 혹은 비전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유래한다.(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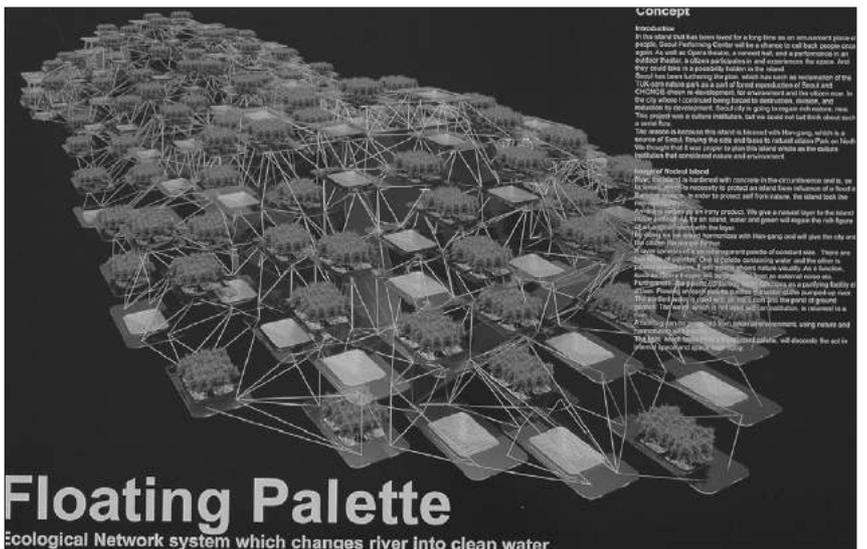
2등작 / 사토시 마추오카(일본), 유키 타무라

심사 위원들은 이 계획안의 디자인과 개념이 가지는 순수성을 높이 평가한다. 도시 환경적인 문제와 거리를 두면서 이 계획은 조경과 공연 홀이 혼재하는 아주 조용한 문화 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은신처인 이곳은 야간 조명에 의해 강조되어질 때 그 투명성에 통해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아함과 단순성이 이 계획안에 실려 있다.(심사평)



2등작 / 야수히로 야마시타(일본), 가주히로 엔도, 준 사토

이 계획안은 314개의 제안들 중 유일하게 생태적으로 표현한 개념을 강조하였다. 아래 부분의 기능적인 프로그램을 에워싸면서 녹지공간과 수영장이 번갈아 있는 건축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것은 공모전의 요구 사항에 대한 매우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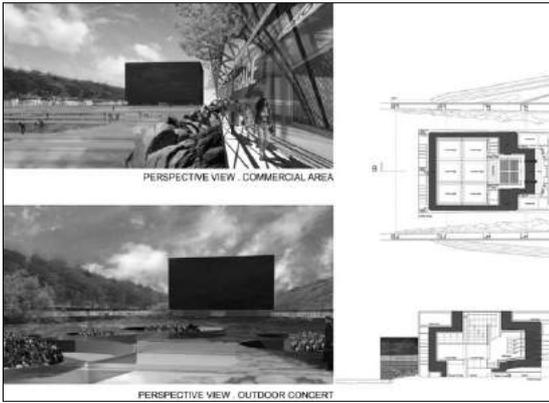


3등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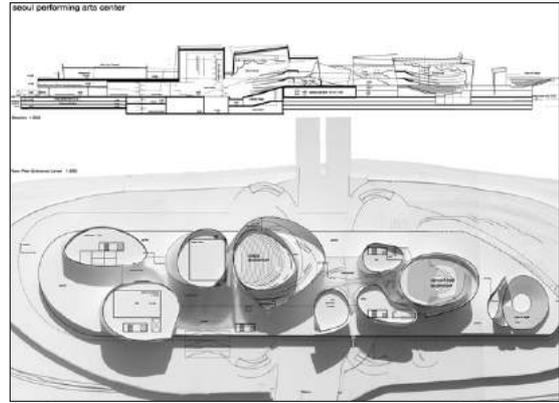
3등 수상작들은 서로 교차되는 현대 건축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 전반적인 수준은 높고, 계획안들 중 혁신적인 제안들이 눈에 많이 띈다. 조경과 건축의 통합은 공모전에 있어서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으며, 205(로파 베르나르드)번과 73(프레드릭 로다)번 작품에서 확실히 표현되어 있다. 이

와 반대되는 접근 방법을 보여주는 219(세르지오 바레토)번과 80(정진국)번의 작품은 조밀하고 아이콘(형상)적 건축 오브제들로 그들의 신념을 나타내었는데, 프로그램들은 대지에 산재되어 보다는 이 건축 오브제들 안에 적층되어 있다. 이와 구분되는 또 다른 경향들을 볼 수 있는데, 47(주수영)번 작품은 일련의 연결로를 통해 도시 내에 있는 섬들을 통합하고자 하였고, 8번 작품은 도시와 떨어져 보다 더 굳건한 성벽으로 싸여진 이

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297(스테판 머팽)번 작품은 건설 그 자체의 진행과 맞물려있고, 164(로버트 오마호니)번 작품은 세 개의 타워가 잠재됨으로써 활성화된 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계획안들 모두가 그래픽 표현에 있어 아주 세련되었고, 많은 작품들이 능숙한 기술을 구사하였고 건축적으로 완성도가 높았으며, 이들 모두가 섬이라는 대지와 공연 예술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한 창조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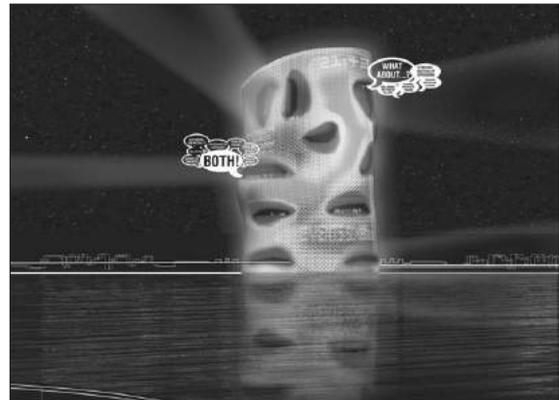
프레드릭 로다(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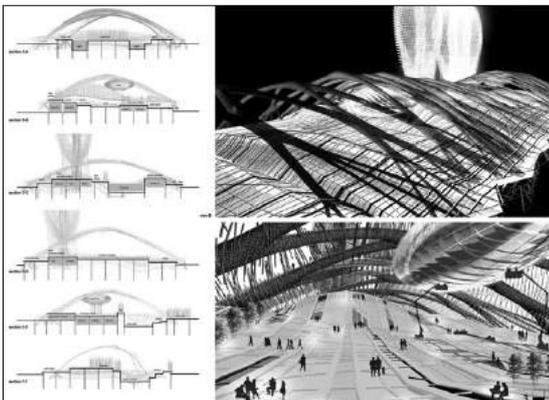
한스 프로이덴라이히(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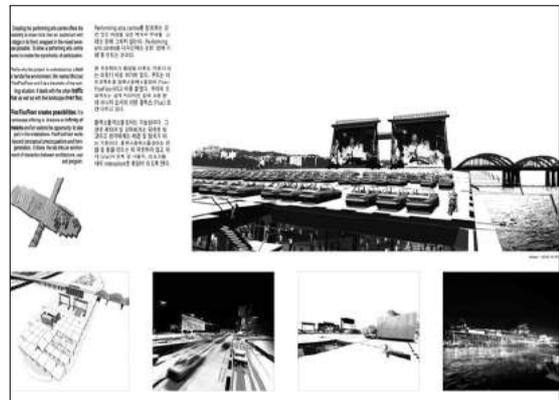
정진국(한국)



세르지오 바레토(우루과이)



로버트 오마호니(미국)



스타판 모팽(프랑스)

## 심사총평

### ■ 김종성

심사위원단은 이번 공모전 작품들이 보여준 높은 수준의 우수한 디자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노들섬 공연 예술 센터의 아이콘(형상)적 존재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바람이 당선된 다섯 팀들 모두에 의해 충족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가작들은 긴 막대형, 랜드폼, 접힌 표피 등을 포함한 수많은 유형들을 선보였다. 심사 위원 모두는 조직위원회와 기술위원장 그리고 그 일원들의 환대와 지칠 줄 모르는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 ■ 장-마리 샤르팡티에

이번 건축 공모전 기간 동안 서울시가 보여준 조직력의 우수성에 대해 매우 찬사를 보낸다. 31개의 출품작 대부분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들은 서울시를 위한 아주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제

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공모전에서 모인 아이콘(형상)적 아이디어들이 상징적인 이 장소에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 조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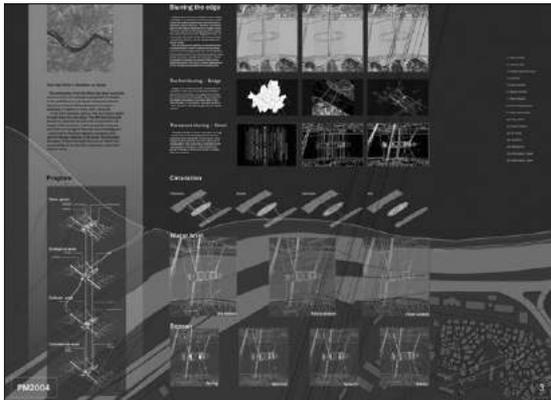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참가작들이 보여준 작품의 수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몇몇은 형태적인 표현이 강하고 또 다른 몇몇은 개념과 의미적인 측면을 강하게 나타냈다. 교통, 북쪽의 강변 공원과의 연계, 강의 수위 등과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것이 다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견지하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계획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심사 위원들은 노들섬에 들어서게 될 공연 예술 센터를 위해 하나의 아이콘(형상)으로서 강렬하게 표현한 계획을 찾고자 하였다.

### ■ 유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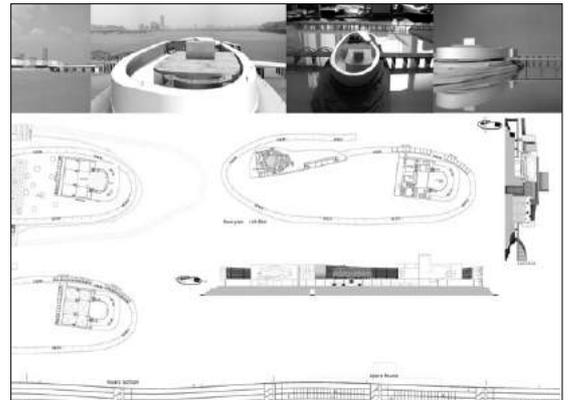
서울 공연 예술 센터의 아이디어 공모전은 충분

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디자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심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생각들과 몇몇의 뛰어난 디자인을 접하게 되어 매우 놀라웠다. 특히 당선된 다섯 작품의 상위 두 작품은 정확하게 이 공모전이 원하던 아이디어였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전에 보여진 바 없던 랜드마크였다. 계획의 기술적 도전은 이 아이디어를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정한 아이콘(형상) 건축으로 만들 수 있었다.

아직 하나의 계획으로서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채 잠재되어 있는 몇몇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출품작들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한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열린 프로그램이 공모전 출품작들을 매우 불완전하게 만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나는 당선자들이 질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과 다양한 생각들이 한데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주수웅(한국)



윤용원(한국)



모나 마르바흐(오스트리아)



로파 베르나르드(프랑스)

## 망향(부신방향) 휴게소 Manghyang Highway Service Area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고객에게 편의제공과 휴게, 관광기능을 고루 갖춘 휴게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의 기능적 욕구사항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설계안을 구하기 위해 현성 설계 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라인건축의 안을, 우수작으로는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라인건축  
(송이호 · 김영민)

대지위치	충남 천안시 성서면 오방리(경부선 부산기점 346km)
지역지구	관리지역
용도	휴게소 및 근무지원시설
대지면적	29,881.00㎡
건축면적	2,887.24㎡
연면적	3,135.53㎡
건폐율	9.66%
용적률	8.89%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설계팀	조현상, 강원근, 김병철, 서한승

### 탈피

‘고속도로 휴게소’는 필요에 의해서 쉽게 접근하고, 편안하게 쉬어가는 비 일상적이며 잠시 머무는 특성이 강한 공간이다. 그러나 ‘편안함과 잠시’라는 건물의 특성상 획일화된 공간의 인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무언가 공간의 특성을 달리 해석하고 접근하여 특별한 공간연출을 상상해 보려고 한다.

### 변화와 공존

후면의 자연적인 산림과 전면으로는 ‘망향의 동산’이 펼쳐진 계획대지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양한 욕구충족과 특성있는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획일적인 기존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탈피하고, 조형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명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Out Door-Semi Out Door-In Door의 개념을



Concept으로 설정하고, 외부에서(Out Door)중앙 휴게마당(Semi Out Door) 그리고 실내공간(In Door)으로 이어지는 기능적인 분리와 연계를 피하고,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의 체계적인 전이공간을 도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중앙휴게마당을 중심으로 실내·외 공간과 휴게, 공중화장실의 구분과 연계로 변화되면서도 자연스러운 공간을 연출하였다. 또한 다양한 Open Space 및 특성있는 소규모 쉼터를 계획하여 다양하고 가변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천창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자연채광을 도입하고, 길게 펼쳐진 건물형태는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공간으로 이동과 분리가 가능케 하였다. 타원형의 지붕디자인은 이러한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매개공간역할과 리듬감을 담당하기에 충분하였다.

실내공간은 충분한 층고를 갖게 하여 여유로움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근무지원시설부분과 고객부분의 명확한 분리와 외부로 열린 개방적 공간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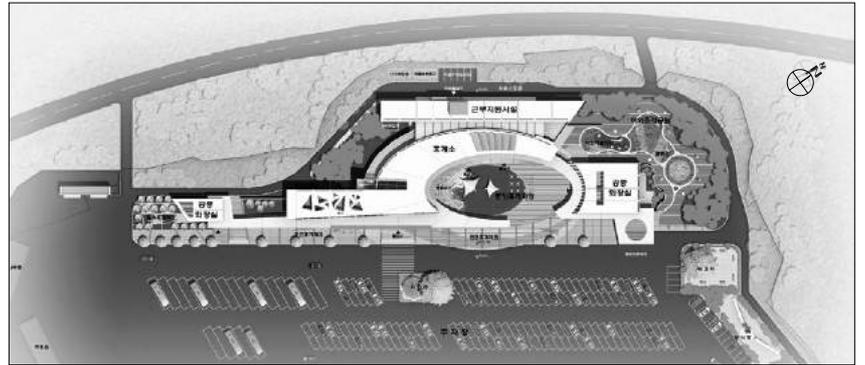
단면 계획상 후면부분의 서비스공간(층고:4.5m)과 2층부분의 직원숙소(층고:3.3m) 그리고 고객(매점)부분(층고:9.0m)의 층고를 이용한 복층형 구조로 계획하여, 독립성및 기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건물의 수평적요소의 안정감과 수직적 텐트구조(중앙휴게마당)의 조화로 상징성을 강조하였으며, 알미늄판넬의 미래지향적인 재료와 내·외부 연계성을 고려한 컬러복층유리의 사용과 경쾌하고, 흥미로운 분위기 연출을 위한 컬러그릴의 부분적 사용으로 개방감 및 역동성을 강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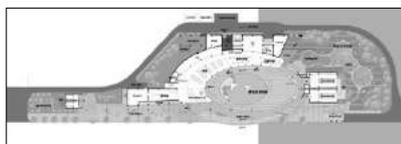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다양하고 특성있는 공간의 제공으로 휴게의 폭을 잠시 동안이나마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현대인의 빠른 Life Style과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새로운 여가 생활의 증가로 어느때보다 휴게소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경험과 각각의 공간 구성을 위한 여러 생각의 편린들은 하나의 동그라미를 만들기엔 충분했다고 본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지역문화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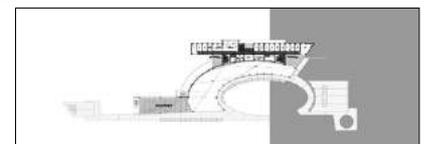
용객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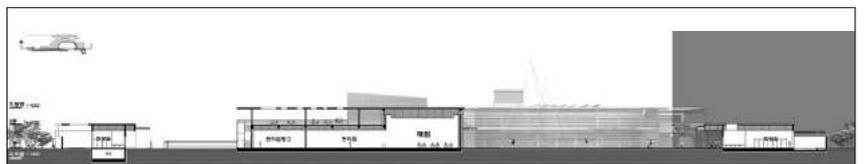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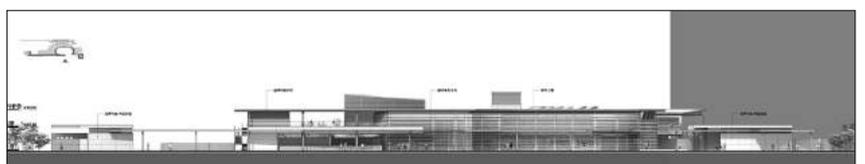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황단면도



정면도

**망향(부산방향) 휴게소**  
Manghyang Highway Service Area

우수작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노형래)

대지위치	충남 천안시 성거읍 요방리 121외 36필지 (경부선 부산기점 346Km)
대지면적	39,881m <sup>2</sup>
건축면적	신축 휴게소 3,540.46m <sup>2</sup> 기존시설 433.37m <sup>2</sup>
연면적	신축 휴게소 3,131.52m <sup>2</sup> 기존시설 244.78m <sup>2</sup>
건폐율	13.30%
용적률	11.30%
구조	철골 +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마감	컬러알루미늄패널, T24복층유리
설계팀	고종준, 주영준, 이후공, 권영환, 김진환, 유현석, 김영주, 윤영준, 김희성

망향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휴게소 중에서도 특히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기존시설의 노후화와 산발적인 증축으로 인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망향 휴게소가 가지는 인지도를 고려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했으며, 매점 및 이용객 휴게공간을 화장실을 중심으로 형성하여 이용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망향 휴게소는 주차장이 타 휴게소보다 넓기 때문에 주차장을 두개의 존으로 분류하고 각 존마다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 동선의 최소화를 고려하였다.

진입부에 인접한 복층 화장실 데크앞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즉석매장 및 편의점이

화장실 앞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하여 이용객의 편의 및 휴게소 영업효율을 고려하였으며, 2층 휴게데크를 설치하여 간단한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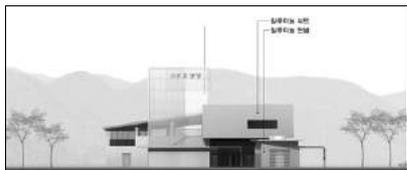
관리시설은 2층에 두어 일반 이용객 동선과 분리하였고, 주차장을 바라볼 수 있는 전면부에 사무실을 두었으며, 소음이 적은 후면부에 직원숙소를 두었다.

효율적 에너지 절약과 풍부한 공간감 형성을 위해 화장실에는 천창 및 채광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주방은 환기를 고려한 고측창을 계획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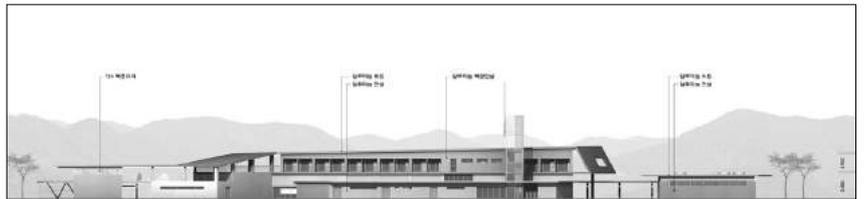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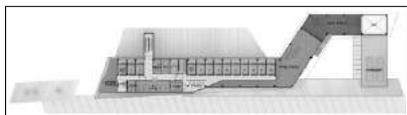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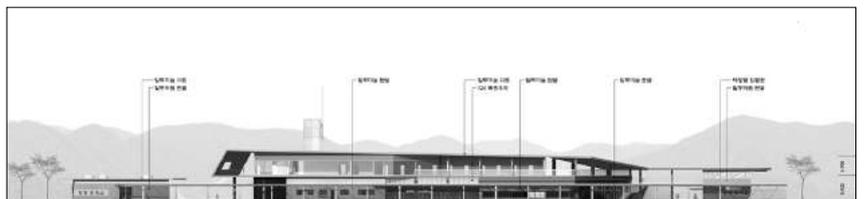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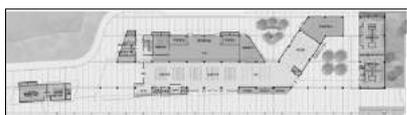
배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1층 평면도

왕 한 성  
 (주)화랑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건축사  
 by Wang Han-sung, KIRA

# KBC 2005에 대하여

## About Korean Building Code 2005

feature

KBC 2005 라고 하면 “뭔가?” 하고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KBS(Korea Broadcasting System)를 잘못 적었나? 아니다. 그럼, ‘한국복싱협회(Korea Boxing Club) 2005년 사업계획’ 인가? 그것도 아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WBA(World Boxing Association)은 있어도 KBC는 그게 아니었다.

KBC는 ‘Korean Building Code’의 약자로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뜻하는 글귀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설명을 하면, ‘KBC2005’는 대한건축학회에서 2005년에 제정한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대한 내용이고, 이는 건설교통부가 2005년 4월 6일 공포한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건축구조설계기준(Korea Building Code-Structural 즉, KBC-S)’의 내용이다.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건축법규에 명시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건축물의 구조안전 관련 설계기준이 훈령, 고시 등 19종으로 각기 규정되어 건축관계자가 이를 활용하기가 불편하고 건축구조기술 발전을 신속하게 수용하기도 어려웠으나, KBC 2005는 건축물의 구조설계방법 및 하중수치 등 건축관련 구조기준이 「건축구조설계기준」으로 통합되어, 앞으로는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시공사, 구조기술사 등) 등이 구조기준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건설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다. 물론, 그 정도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조금이라도 지닌 사람이라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리라 본다.

그럼, KBC 2005의 내용 중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지난 2005년 7월 14일 경기도에서 주최한 ‘제4회 건축정보 Workshop’의 토론자 패널로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KBC 2005를 접하게 되었다.

내용 중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내진기준'에 관한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KBC 0106 책임 구조기술사, 0106.1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0106.2 책임 구조기술자의 책무, 0106.3 책임 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에 관한 내용은 대한건축학회 KBC 위원들의 명성을 건축계 만방에 알리고도 남을만한 걸작이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요즘 들어 푸게 지진해일과 일본 고베 지진, 미국노스리지 지진, 멕시코 지진 등... 지진이 빈발하고, 그 피해도 막심하니 지진규정을 강화하고 준비하지는 것이다. 의도도 좋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축사들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KBC 위원들은 대한건축시험회나 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 관련 공무원들과 통합적인 의견 청취나 조율도 없이 덜렁 건축설계기준만 내놓다 보니 몇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첫째, 대부분의 지진 피해는 5층이하의 저층건물과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들의 피해가 볼보듯 뻘한데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은 일언반구도 없고, 앞으로 지어질 '구조안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들-3층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경간 10미터 이상-에 대한 규정만 있다.

그것도 '건축구조기술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건축사나 그동안 건축구조분야에 종사해 왔던, 인정구조기술자들은 앞으로,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물을 설계할 때는, KBC 2005에 의하여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건축시험회의 등록건축사 8,215명은, 30년전 최초 9명으로 시작하여 오늘의 700여명에 이르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도장을 못받으면 건축설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는 극심한 불황속에서 2005년 4월 기준 인,허가건수 10,537건을 해당 소속 회원으로 나눠보면 등록건축사 1인당 1.3건/월을 처리하는데 반해 건축구조 기술사는 14~15건/월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다.

둘째, 구조 실험과 검사를 기존의 10,333명의 수석 감리사와 9,147명의 감리사, 6,633명의 감리사보 대신 '건축구조기술사'가 해야 한다고 한다. 건설교통부가 2003년 10월말부터 발간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는 책자가 있는 지도 모르면서 감리원이라면 기본업무인 '품질검사와 시공재료의 시험 등'에 대한 규정을 또 두겠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잘 모르는 고귀하신 KBC 위원님들이 만드신 규정으로 기존의 수많은 현장 감리들은 또 실직을 맛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 지 심히 우려된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KBC 규정만 있고, 일부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별로 소용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피로티 구조로 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 하부구조가 지진에 취약하 하다고 해서 안되게 되어 있다. 그럼, 사업승인 받을 때, 개방감 주라고 심의에서 온갖 잔소리 다 듣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원한테 실컷 설명 다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피로티는 벽으로 막아야 한다. 피로티 구조의 바닥면적 산입제외 부분에 대한 처리는 해당 공무원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다.

당연히 해결될 때까지 허가는 보류될 것이며, 이는 민원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져 폭동직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본 기준을 적용해서 그리고(설계자), 판단하고(허가권자), 짓는 사람(시공사)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기준만 덜렁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지극히 단세포적이며, 이기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KBC 2005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 보았다. 느껴졌지만, 이건 국민의 안전을 빌미로 보기도 민망한 밥그릇 싸움을 하자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왜, 글의 서두부분에서 그렇게 비아냥거렸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진에 대비하고 안전한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 대한건축학회의 KBC 2005는 보다 많은 관계자들과의 깊이 있는 숙의 끝에 건축계가 단합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야 했다.

건축구조가 무엇인가? 세계를 건축과 조화롭게 함께 공존해 오던 분야가 아닌 가. 능력있는 건축사는 직접 구조계산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진 건축사는 당연히 건축구조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외중에서도 슬기롭게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배가 침몰하면 쥐가 제일 먼저 배를 떠난다고 하던데, 건축경기가 침몰하는 배와 같으니 건축계를 떠나겠다고 작정한 것인가!

Workshop 때 좌장도 구조를 가르치시는 교수님, 토론자 두분도 덕망 있으신 구조를 가르치시는 교수님과 박사님 그리고 일천한 나와 주택건설업협회 분이셨다. 경기도내 수백명의 공무원과 일부 건축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외로이 보였을 때, 건축사로 발을 내디딘 13년의 세월이 한스러웠다.

대한건축시험회 본 협회는 행사 때마다 대한건축학회와 화환을 주고 받더니만 이런 중차대한 일하나 제대로 사전에 조율을 못하고, 사후약방문격으로 "뭐하고 있었는가"하고 자성에 찬 반문을 하고 싶다.

제안하고 싶다. 현재의 KBC 2005는 단순한 건축구조기준 이외의 불소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에, 통합된(integrated)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으므로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항은 삭제해 달라. 정히 안되면 본협회는 협회 차원의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하여 전 회원들에게 실비로 '건축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KBC 2005를 시행하기 전에 앞서 밝힌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KBC 위원을 위시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존의 길을 함께 모색하여 먼저 건축계를 이끄신 선배님들에게도, 오늘을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의 동료들에게도, 건축에 입문하는 후배님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건축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말 많던 2005년의 추석을 보름가량 앞두고었는데도 풍성함보다는 가슴이 뻥한 것은, 과연 우리 건축사들만의 가슴앓이인가 하는 아쉬움을 느끼며... ㉮

F I K A 대표 단

# 제22차 UIA 총회를 다녀와서

## Attending the 22nd UIA Meeting

feature

UIA는 세계 97개국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고 백만이 넘는 건축가를 대표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UIA총회(Assembly, 대회)라고 부르는 UIA Convention and Congress는 글자 그대로 컨벤션과 총회(congress 혹은 plenary meeting)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마다 한번씩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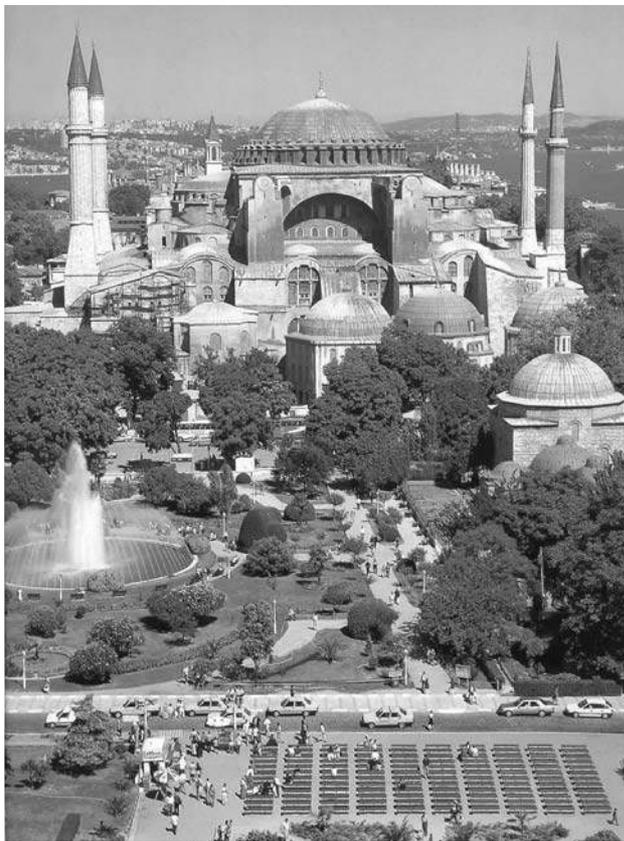
이stanbul은 유럽과 아시아 두 도시에 걸쳐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이며 5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로 사람이나 문물이 모두 동양과 서양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시내에는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소피아성당(Aya Sophia, 최초건설 532~537년), 지하 저수조인 시스틴, 블루 모스크, 톱가피 궁전 등 흥미로운 건축물도 많고 일대에는 그리스신화를 비롯하여 로마의 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또 성경에 나오는 유적이 수도 없이 많아 성지순례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곳이다.

예상했던 대로 장소의 역사성과 매력 때문에 많은 건축가와 학생들이 컨벤션에 참여하여 총 등록자수가 27,000명을 넘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많은 건축인이 참석하였지만 우리나라도 많은 건축인들이 참여하여 컨벤션을 둘러보고 이 일대의 고적과 건축물을 답사하였다. FKA(한국건축단체연합, UIA 공식 가입단체)의 현 회장인 윤석우 건축가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건축학회에서는 이리형 회장, 임창복 부회장, 김자호 부회장, 김영하 부회장을 비롯하여 이승복, 이준석 교수 등 모두 20여명, 건축사협회에서는 이의구 전임회장, 이근창 부회장, 김지덕 국제위 자문위원, 심재호 국제위원장, 이영수 이사, 최재희 국제위원 등 6명이 참여하였고, 새건축사협회의 최관영 회장도 참여하였으며, 건축가협회에서는 장석웅, 김한근, 황

일인, 오기수 등 전임회장들, 김 원 명예이사, 변 용 수석부회장, 이상림 재  
정위원장, 우경국 이사 등 9명 이외에 조성중 국제담당 부회장이 UIA 제 4  
지역 이사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김창수 전임 건축가협회 부회장과 건축가  
협회의 감사인 정진원 교수가 주관한 고려대학 팀도 이정덕, 주남철 두 분  
교수와 천병욱 선배를 모시고 모두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또 홍익대 건축  
도시 대학원장인 정명원교수가 주관한 박물관학회 회원 20여명도 뒤 늦게  
참여하여 총 80여명이 UIA컨벤션과 건축기행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와 자매도시인 앙카라를 방문하고 세계 대도시 시장 포럼에  
초청을 받아 이스탄불을 방문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때 맞추어 개장한 청계천  
전시회를 참관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건축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자유로운 담소를 나누었던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이었다.

지난 2002년의 베를린 대회에 이어 이번에는 이스탄불에서 열렸으며 7  
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컨벤션 기간 중에는 UIA가 3년 프로젝트로 집행  
한 Celebration of Cities 전시, 이스탄불 컨벤션 집행위원회가 주관한  
Extreme 전시 등을 비롯한 각종 자재 전시회와 수 많은 Work Shop이 열  
렸다. 이 대회의 주제인 "Cities-Grand Baazar of ArchitectureS"라는 주  
제 아래 마련된 토론의 장(Forum, 'market place')에서는 세계도시의 축제  
(Celebration of the World Cities), 도시의 건축과 생활(Architecture and



소피아 성당

Life in Cities), 도시의 건축(Architecture of Cities) 등 3개의 주제별로 나뉘  
어 열린 강의와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컨벤션에는 특히 많은 'Star 건축가'가 keynote speaker로 초청되  
었다. 제한된 컨벤션 기간 때문에 동시에 열리는 강의가 많아 모두 참석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었다. 그래도 미리 꼼꼼하게 검토하여 준비한 시간표에  
따라 여러 건축가의 강의에 참석하였다. 참석했던 강의 내용은 정리되는 대  
로 관련 단체 정보 매체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전할 예정이다.

Ando Tadao, Ken Yeang 등 소위 인기가 높은 건축가들은 뻥뻥한 일  
정으로 움직이는 탓인지 혹은 밀리는 강연 요청 때문인지 지난 10년 동안  
해 오던 강의 내용을 순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되풀이 하여 많은 사람들  
의 빈축을 사는가 하면, Zaha Hadid나 Ando Tadao는 청중들이 열광적으  
로 몰려들어 마치 Rock Star의 Recital (이나 사이버 종교 지도자의 종교적  
모임)에 몰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이에 비하여 Robert Ventury, Denise  
Scott Brown Ventury, Moshe Safdie 등 세 건축가들은 'Cities: Grand  
Baazar of ArchitectureS'라는 은유적인 주제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  
plurality, unity in diversity, competition in solidarity and festivity,  
chaos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준비한 강의를 정확히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  
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Rem Koolhaas, Dominique Perrault는 사전의 연락도 없이 아예 나타나지  
도 않아 강의실 가득히 모여서 시작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2,500여명의 청중들을 크게 실망 시키기도 하였다.

Peter Eisenmann 강의에는 김지덕, 이근창, 이영수, 심재호, 최재희 교  
수 등이 참석하였다. 이 강의에서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Peter Eisenmann  
이 자신을 포함하여 Zaha Hadid, Rem Koolhaas 등 소위  
Deconstructive 건축가들은 이제는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재미 있었던 것은 이 내용을  
전해 들은 Robert Ventury가 "그 사람이 이제는 deconstructive 에 싫증이



UIA 개회식 전경

난 모양이로군.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가 된 모양이지"라고 혼자 중얼거 리듯이 내 뱃터 말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UIA 컨벤션 참여가 아주 미미하였던 것에 비하여 이번에는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건축계의 관심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대견하고 자 랑스러운 마음이었다.

국가관에 전시된 청계천 프로젝트는 전체에서 가장 세련된 전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질문을 하는 등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끌 었다. 이와 병행하여 열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황기연 박사의 청계천 프 로젝트 강의는 매우 세련되고 훌륭한 강의였는데 우연하게도 인기 건축가의 강연과 겹치고 흥보가 부족하였던 탓으로 청중이 적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 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특별행사는 주최측의 카다로그나 프로그램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고 따로 전단지 배포하거나 파티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은 큰 실 책이었지만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린 뒤였다. 이후의 행사를 위하여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여야 할 일이다. 흥익 대학교 최재희 교수는 'Within the four Gates of Seoul: A Continuum of Autocratic and Natural Forces' 라는 제목으로 시대에 따 라 변모하는 서울의 모습과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정치·사회적인 요인과 자연의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기회를 전기로 삼아 많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한국을 알리고 한국건축 의 위상을 높여 주기를 바란다.

UIA 시상식에서는 'Celebration of Cities'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학생부분 제4지역 대상을 받은 부산 동아대의 신지원, 이두호, 김동희에 대한 시상식 이 있었으나 예산 관계로 이들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서운하였다(모 든 수상작은 UIA Webpage, [www.uia-architectes.org](http://www.uia-architectes.org) 에 올라있다) 이 어서 열린 Extreme 공모전 시상식은 중국의 독무대라고 할 만큼 중국이 여러 분야의 상을 휩쓸어 이들의 눈부신 발전을 실감하게 하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미 90년대 중반에 건축교육인증원을 설립하고 건축교육의 질을 높 이기 위하여 노력한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Extreme 공모에서는 우리나라 학생으로는 유일하게 흥익대 대학원의 박준영군이 학생부분 4지역 상을 받

게 되어 매우 자랑스러웠다. 재능이 있는 우리 건축사(가)들과 학생들도 이에 자극을 받아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제공모전에 참여하여 우리 건축을 국제적 으로 알리고 소위 Star 건축사(가)도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1회 공모전에 이어서 제2회 Celebration of Cities 공모전이 2005년 11 월에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제1회 공모전은 대부분 '역사적 도시', '교 외의 대규모 주거단지', '열악한 주거' (precarious dwelling, shanty house),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제2회에서는 위의 주제에 더 하여 'The attractive city, the welcoming city'와 'Mobility'를 중심 주제 로 추가한다. 이번 공모전은 완전히 web으로만 진행될 것이며 [www.celebcities2.org](http://www.celebcities2.org) 에 들어가면 공모전 예고안내문을 볼 수 있다.

마지막 날 메인 홀에서의 간단한 폐회식으로 5일간의 큰 행사는 끝이 났 다. 저녁 때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열린 Farewell Dinner에는 이상림 과 조성중 부부가 참석하였다. Farewell dinner는 시작하자마자 한없이 계 속되는 여러 정치가들의 한결 같이 기나긴 축사가 계속되어 미국 돈으로 77 불이나 되는 비싼 요금(?)을 내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 였다. "이 세상에는 정치가들이 싫어하는 마이크로폰은 하나도 없다"는 우스 개 말도 있지만 특히 터키의 정치가는 그 연설이 너무 길어 보기에 매우 민 망한 모습이었다. 시작하지 거의 3시간 만에 나온 음식도 너무 간소하여 참 석자들의 불평이 많았지만, 식사 후 아간 조영 아래에서 박물관에 전시된 알 렉산더 대왕의 석관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물 전시를 돌아 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참석자에게 특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총회는 컨벤션에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 되었으며 심재호, 이상림, 이준석, 조성중(UIA 4지역이사) 등 4명이 우리나라의 공식 delegate로 또 김지덕, 이근창, 이영수, 최재희는 Observer로 참석하였다. 총회는 의제 (Agenda) 채택과 신입회원 가입 승인으로 시작되어 회장단 보고, 각 위원회 보고, 임원선거, 2011년 UIA 총회 개최지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그 중 중요한 의결사항은 별첨으로 정리하였다.



UIA총회에 참석한 우리협회 대표단(심재호 국제위원장, 이근창 부회장, 이의구 참석 대표단장, 이영수 이사)



UIA총회장 전경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 건축실무위원회)와 UIA Accord는 우리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지난 3년 동안 아래와 같은 여러 가이드라인과 부속도서<sup>1)</sup>(Accord Policy)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채택되었다.

1. UIA Accord Recommended Guidelines
  - A. Policy on Professional Bodies
  - B. Policy on Scope of Practice
  - C. Policy on Forms of Practice
2. UIA Accord Policy
  - A. Policy on Building Project Delivery
  - B. Recommendation for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PPC, Work Program 등은 모두 중요한 사안들이지만 최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은 건축교육인증 시스템(UNESCO–UIA Architectural Education Validation System)과 계속 교육(CPD, Continuing Practice Development)에 관한 것이다.

UNESCO–UIA Validation System은 이미 지난 2003년 베를린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나 기대하였던 UNESCO의 예산지원이 중단되었고, 프로그램의 인증이나 인증원의 인정을 위한 실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기존 인증시스템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실사 작업의 실행계획은 지난 3년 동안 답보 상태를 계속하고 있었다. 미국의 AIA는 이 답보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멕시코의 비야에르모사 이사회에서 기존 인증원의 협의회를 결성하지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고 이사회는 이 제안을 절대 다수로 승인하였다. 이 협의회는 기존의 NAAB, RIBA 등을 위시한 9개의 기



최재희 국제위원회 발표

존 건축학 교육인증원들이 모여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지는 것으로 현존하는, 공학교육인증원의 상호인증협약<sup>2)</sup>(Washington Accord)의 형식을 모델로 한 것이다. 제안서에 의하면 2006년 1월 UNESCO–UIA, CAA(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그리고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캐나다, 중국, 한국 등 7개 나라의 인증원 등 모두 9개의 '이미 설립되어 있는(Established)' 인증기구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이 인증원들은 5월에 워싱턴에 모여 참여 건축학 교육 인증원의 상호인정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하여 협의(conference)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초청대상이 9개 인증원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협의회의 초안<sup>3)</sup>은 새 회원국이 가입하려면 2개 이상의 회원단체의 추천을 얻어 전체 회원국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제시하여 초청대상에서 제외된 다수의 나라들이 이 제안을 반대하고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원점에서 새로 논의를 하지는 제안은 AIA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고 별도의 제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되어 미국의 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많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인증원도 이 워싱턴 회의의 초청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이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Established system' 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워싱턴 회의 전까지는 실제로 인증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며 또한 인증실사 내용과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UNESCO–UIA System의 규정<sup>4)</sup>에 따르면 기존 인증원이 인정(Recognition)을 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UIA실사단은 인증원 자체뿐 아니라 그 인증원이 인증한 3개의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실사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신규 인증원의 경우 UIA 실사단이 파견되어 해당 인증원에 대한 실사 뿐 아니라 3개의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도 실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안된 워싱턴 회의도 이 규정을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는 다른 UIA System의 인증위원(혹은 다른 외국 인증원 실사단원)이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의 인증과정이 공정하고 철저하며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고 있다.

총회 마지막 날에 있었던 임원 선거의 결과, 회장에는 조그만 섬나라인 Mauritius의 Gaetan Siew가 3명의 후보자를 많은 표차로 물리치고 당선하였고, 사무총장에는 스페인 출신의 Jordi Farrando가 선출 되었다<sup>5)</sup>. 두 사

1) 이 도서의 원문은 입수되는 대로 총회의 회의록(agenda 와 resolution)과 함께 모두 건축가협회 Website에 수록할 예정이다. www.kia.or.kr로 들어가서 <international Info>, <UIA자료>를 차례로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2) 공학인증원 상호인증 협약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국 등이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3) 이 초안 역시 입수되는 대로 건축가협회 Website www.kia.or.kr에 수록할 예정이다.  
 4) UNESCO–UIA Validation System, ver. 7(March 2002), IX.1. Recognition of Validation System, 참조  
 5) 새로 구성된 UIA 집행 기구인 회장단 회의(Bureau Meeting)과 이사회 (council meeting)의 명단은 첨부에 수록되어 있다.

람 다 젊고 매우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PPC, WTO 등 현  
실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의 UIA 활  
동은 매우 실질적인 방향으로 선회될 것이 예상된다.

또 2011년 UIA 총회의 장소로는 일본의 동경이 남아공의 제2 도시인  
더반(Durban)을 물리치고 선정되어 2008년의 토리노 대회를 계승하게  
되었다. ㉞

## 중요의결사항

### 1 신입회원국 가입 승인

- 1.1 신입회원국 : Barbados, Belarus, Benin, Ethiopia, Kyrgyzstan 등 5개국
- 1.2 재가입 회원국 : India, Iran, Pakistan, Senegal, Sudan
- 1.3 임시회원국 : Brunei, Chad, Mauritania, Niger, Sierra Leone
- 1.4 자격정지 회원국 : Venezuela, Nicaragua, Panama

### 2 UNESCO-UIA Architectural Education Validation system

- 2.1 UNESCO-UIA Architectural Education Charter 수정안 통과
- 2.2 AIA가 제안한 인증원 협의회(An Agreement Protocol for reciprocal recognition between Institutions for Validation/Accreditation of Architectural Studies) 승인
- 2.3 포르투갈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맹렬한 이의 제기로 이와는 별도로 비참  
가국들이 모여 소위 Round Table Meeting을 열어 논의할 것을 의결함.

### 3 Continuing Education

- 3.1 미국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UIA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킬 것을  
의결함.
- 3.1.1 UIA, ASIA, CSCAE(스페인)이 GPO를 구성하고 AIA가 운영의 책임을  
맡기로 함.(Operator)
- 3.1.2 모든 계속교육은 자국어로 시행할 것을 원칙으로 함.
- 3.2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반대를 감안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Round Table  
Meeting 열 것을 의결함.

### 4 2006~2008 회비

- 4.1 기준 : UIA 예산, 건축가 수, PPP
- 4.2 7,126명 기준 6,095.85 (전회기 회비는 5,090)
- 4.3 우리나라의 실제건축사 수 : 약 14,000 명 정도로 보고 예정

### 5 임원진 개선

- 5.1 회장단(Bureau)
  - 회장 : Gaetan Siew, Mauritius, 제5지역
  - 사무총장 Jordi Farrando, Spain, Barcelona, Spain, 재무관 Don Hackl,  
USA(재선)
  - 부회장 Region I : Giancarlo Ius, Italy
  - Region II : Martin Drahovsky, Slovakia, 2nd VP
  - Region III : Mauricio Rivero Borrell, Mexico

Region IV : Louise Cox, Australia, 1st VP(재선)

Region V : Seif Alnaga, Egypt

### 5.2 이사진(Councilor)

- Region I : Germany, Nina Nedelkov, (신임)
- France, Jean-Francois Quelderie
- Spain, Muir Soteras
- UK, Jack Pringle, (신임)

Region II : Greece, Elizabeth S

- Russia, Andrei Kaftanov, (신임)
- Slovenia, Tomaz Kancler
- Turkey, Suha Ozkan

Region III : Brazil, Simon Roberto

- Columbia, German Suarez
- Costa Rica,
- USA, Jim Scheeler, (신임)

Region IV : China, Song Chunwha

- Joseph Kwan, Hong Kong, (신임)
- Kazuo Iwamura, Japan
- Sungjung Chough, Korea

Region V : Cameroon, Laurence Ngosso, (신임)

- Cote d'Ivoire, Francis Sossah, (신임)
- Nigeria, Donald
- South Africa, Patricia Emmett, (신임)

6. 2011 Congress 장소 : 동경이 선정됨, 경쟁도시 Durban, South Africa

7. UIA 사무실 이전에 대한 의결

8. UNESCO-UIA 교육한장 보완

9. PPC : 이사회에서 승인한 Policy on Building Project Delivery System,  
Policy on Professional Bodies, Policy on Scope of Practice, Policy on  
Form of Practice, A Recommendation o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등 새로운 지침서 발표

9.1 Accord Policy를 연구하여야 함.

10. 2차 Celebration of Cities 공모전 발표

최 병 관  
공주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by Choi Byeong-kwan

#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사업(B.T.L)

A Construction of Education  
Facilities by B.T.L

최근 건축계의 화두는 단연 민간투자 사업이다.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이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 위주의 사회기반 시설에 국한되었으나 2005년 1월 27일에 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에서는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5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건설시장이 침체되어있는 현 여건 속에서 이에 대한 여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반재정사업의 대부분이 입찰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공과 설계를 할 수 있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입찰에 응시할 수 있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시공 및 설계업체는 기술 경쟁력보다는 정부의 보호막 아래 성장해온 현실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 동안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민간투자사업이 턴키방식(사업체가 설계와 시공 모두 담당)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오해를 받아온 상황에서 민간투자법의 개정은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공 및 설계업체에게는 수주시장의 축소를 걱정하거나 민간투자사업의 불 참여 결의 등 많은 불만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건설시장의 변화는 앞으로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건축업계의 사고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선 이에 관한 개인적 소견을 밝히고 싶다. 또한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이 내년부터는 올해와는 달리 정부고시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제안사업 및 복합화 개발, 부대수익사업 등으로 사업 분야가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건축설계분야의 전문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건설 시장의 개방이 UR 협상에 의해 민간시장과 공공시장 모두 개방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그 동안 세계 건설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시공분야와는 달리 설계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개방화 요구의 저변에는 선진국의 기술력 우위에 의한 시장 확보라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실정에서 볼 때 국내 건축설계 시장에 대한 시장잠식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민간 투자사업의 확대 실시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 개정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편에서는 건축설계업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선도사업들이 시행된 현재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시공 및 설계분야 모두 대기업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설계분야에서도 대규모 설계사무소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설계사무소까지 모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설계사무소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했거나 타 설계사무소보다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던 사무소들이다. 이 업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주 재무투자자인 시공업체로부터 공동 참여자로 추천받았거나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으로 인해 제일 좋은 설계안이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 정부의 일반재정사업으로 주무 관청인 교육청에서 추진되었던 교육시설사업의 설계분야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자 선정방식에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입찰 방식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전혀 교육시설에 대해서 설계경험이 없거나, 설계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등 기술력이 전혀 없는 설계사무소도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가, 공사 부실의 원인이 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공공시설에 비하여 교육시설 사업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보다는 교육시설사업자 선정이 일회성 혹은 유행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교육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는 사업량에 비하여 그 수가 미약한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몇 년 전에 일본의 학교를 견학하러 갔던 적이 있다. 견학 학교 중에서 호우메이(豊明) 초등학교는 5개 학교시설 전문 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명 현상설계를 통해서 설계안을 채택하여 건설하였으며, 오구(櫻丘) 초등학교는 건설 중 이었는데 현장에 나와 있던 설계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학교시설을

30년 동안 설계를 하고 있으며 전문화를 통해서 전체 공사비를 10% 줄인 설계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지 못한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게 했으며, 우리도 학교시설의 전문화 시대가 곧 다가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문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을 기회로 소규모 설계사무소(건축사 1명, 직원수 3, 4명)는 디자인을 위주로 하는 스튜디오 형태의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규모 혹은 대규모 설계사무소로 확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 설계사무소로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영국의 민간투자사업(PFI)

#### • 민간투자사업(PFI)의 도입 배경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은 1979년 대처(M. Thatcher) 보수당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장기 경제 침체에서 영국경제의 재건을 위해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목표로 다양한 행정개혁을 단행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조직은 행정서비스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하여 에이전시 제도(정책을 집행하는 독립행정법인)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 민간참여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었다. 1987년에 통행요금만으로 건설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다프트 다리(Dartford Bridge, 런던 동쪽 템즈강을 횡단하는 유료 다리로 1991년 개통)를 건설하는 사업에 정부와 민간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2년 가을에 공공사업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투자제도(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ACT)가 도입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도입으로 처음에는 사회기반시설(도로, 항만, 다리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생활기반시설(의료, 학교, 복지시설 등)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1997년 7월 학교뉴딜사업(New Deal for Schools)으로 약 7,500개의 학교시설 개선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의 공공·민간 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s)을 승인하면서 학교시설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98년 학교기준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의 개정으로 학교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부지<sup>1)</sup> 마련, 학교 건물 개선이나 현대화와 같은 일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방교육청도 시설개선을 위하여 자본을 투자할 수 있고, 예산책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학교시설 사업계획 초기부터 학교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1) 학교부지 지원사업은 높은 수준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고,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각 지방교육청은 자기 관할 구역내의 학교에 충분한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또한 공간이 있는 학교들은 지리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부지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가능한 연계시켜 기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것이다. 교육성과를 높이고, 학교자본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교육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원관리계획(Asset Management Plans 1998)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학교시설과 관련된 정책수립으로 공공·민간 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s)은 학교시설과 정보소통 네트워크(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구축, 학교급식사업, 기타 학교시설 개선 사업<sup>2)</sup> 전반에 걸쳐서 교육분야에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추진실적

민간투자사업의 초기 단계에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몇몇의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점차 PF를 꾸준히 확대시켜 나아갔다.

1992년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PF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영국에서 실행된 PF 사업은 약 399억 파운드(한화 약 80조원)에 육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OGC). 사업 건수별로는 많은 부분이 교육부(108건)와 보건부(126건)에 PF사업이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 규모별로는 교통부(204억 파운드), 국방부(42억 파운드), 보건부(42억 파운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부서별 민간투자사업(1992~2004 현재)

부 서	사업건수	백분율	총사업규모 (백만파운드)	백분율
내각부	1	0.2%	330.0	0.8%
간접세무국	2	0.3%	170.3	0.4%
대법관부	11	1.8%	266.4	0.7%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5	0.8%	62.4	0.2%
환경식품농업부	12	1.9%	571.1	1.4%
교통부	36	5.8%	20444.4	51.2%
교육기술부	108	17.3%	2419.0	6.1%
보건부	126	20.1%	4187.9	10.5%
통상산업부	8	1.3%	179.5	0.4%
사회복지부	11	1.8%	1241.7	3.1%
외무부	2	0.3%	91.0	0.2%
재무부	1	0.2%	141.0	0.4%
내무부	37	5.9%	1093.8	2.7%
내국세 세입국	8	1.3%	390.8	1.0%
국방부	50	8.0%	4187.3	10.5%
북아일랜드	35	5.6%	501.1	1.3%
부수상실	56	8.9%	907.7	2.3%
상공회의소	1	0.2%	10.0	0.0%
스코트랜드	84	13.4%	2249.3	5.6%
웨일즈	32	5.1%	523.2	1.3%
	626	100.0%	3996.7	100.0%

### • 민간투자사업(PFI)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PFI)은 기본적인 개념은 공공부문은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설정하고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운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 학교, 도로 등을 '건설한다'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한다'는 입장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영화와는 달리 공공부문이 서비스이

용자가 되는 등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PFI)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사업(PFI)의 가장 보편화된 사업 추진 수법은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e) 방식이다. 이는 특정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 주무관청이 작성한 성과시방서(Output Specification)에 따라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업상에서의 설계(Design), 건설(Build), 자금유치(Finance), 운영(Operate)을 모두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업의 주요 위험 요소(risk) 들을 모두 민간이 부담 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가장 큰 취약점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총 사업비용의 투자가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PFI)은 ① 공공 서비스 구입형(SERVICES SOLD TO THE PUBLIC SECTOR), ② 독립채산형(FINANCIALLY FREE STANDING PROJECTS), ③ 민·관 합작형(JOINT VENTURES)의 3가지 형태가 있다.

###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sup>3)</sup>

#### • 복합화 배경

영국에서는 비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으로 시작된 열린교육과 함께 1930년대 이후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76년에 평생교육법이 성립되면서 커뮤니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아울러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평생교육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국의 교육시설은 다양한 방향으로 복합화 되기 시작했다.

1940년대부터 공립학교에서 체육을 윤리교육의 일환으로 채택한 이후에 스포츠시설의 정비촉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모든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사회체육에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기회제공과 시설마련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전국 공립학교는 영국 교육인적자원부의 감독 하에 일정한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중위생법, 대중 체육, 레크레이션법에 의해서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일반규모의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있다.

이러한 일련의 스포츠, 레저, 레크레이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속에서 전 국민의 생활화가 되면서 이 수용시설을 위주로 학교시설과 복합화 되었으며, 학교가 지역문화의 중심센터로 발전하게 되었다.

#### • 복합화 방향

영국의 현재 커뮤니티스쿨(Community School)과 대규모 복합시설이 등

2) 중등학교 음악실비, 미술실비, 에너지절약, 학교 조명설계, 학교 화재예방, 3-4세 어린이를 위한 시설 등  
3) 복합화 : 영국에서는 복합화를 사용자 관점에서는 Joint Use, 혹은 Dual Use라고 하고,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Joint Provision 혹은 Dual Provision라고 하며, 이것은 학교와 지역 모두의 이용을 고려하고 있거나 고려한 시설로 되어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장한 배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20~30년대의 캠브리지주 빌리지 칼리지<sup>4)</sup> (Cambridgeshire village college)의 흐름으로 교육서비스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Community)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중학교교육과 커뮤니티교육을 통합하여 중학교 교육은 낮에, 커뮤니티 교육은 야간에 동시에 중학교를 이용하여 추진하는 시도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그 후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 흐름은 체육시설을 충실히 하여 주민에게도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국고 보조금으로 학교체육관을 종래의 시설에 증축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스포츠 홀을 부설하거나 포장한 소규모 운동장을 부설하거나 학교 규모가 확대되면서 실내 수영장을 설치하여 주민에 개방하였다.

1970년경에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하나로 통일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71년에 평생교육법의 재구성을 언급한 리셀보고서가 나왔고, 미국에서는 1973년에 커뮤니티스쿨법이 제정되었으며 1976년에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는 등 커뮤니티교육에 관심이 고조된 시기였다. 영국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치원, 보육원, 초등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하게 되었으나 학교의 의자나 책상 등이 작아서 사용하기 불편하여 별도로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체육시설 근처에 부설하게 되었고 이것이 가족센터(Family Centre)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복합화 추진 방법**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서비스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물적, 인적자원을 형성하도록 한다. ② 교육시설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레저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을 최대한 유도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③ 커뮤니티의 이해나 인식, 자원, 공헌, 문제의 해결, 교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체장애인과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④ 이와 같은 복합시설의 모든 결정, 관리·운영에 적극적인 참가를 촉진한다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학교시설의 복합화 경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학교는 교육위원회, 스포츠 센터는 레저와 어메니티 위원회가 담당하고 담당 시설도 각각 별도로 건설해왔지만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복합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기능이 동일한 시설을 복합화 하면 보다 좋은 시설을 건설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학교 복합화 시설 설치 유형**

1970년대 이후의 영국 학교의 복합시설 사례를 살펴보면 복합화 유형은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학교시설 + 커뮤니티 룸', '학교시설+스포츠 센터 또는 레저센터', '커뮤니티스쿨', '대규모 복합시설' 등 크게 5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sup>5)</sup>

**•학교시설 + 커뮤니티 룸**

커뮤니티룸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규모는 비교적 작고, 학교시설을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커뮤니티의 거점을 설치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복합화 초기에 나타났지만 현재까지도 건설되고 있다.

이 유형은 계획적으로 주방과 식당, 스포츠 홀과 체육관 등 비교적 주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의 근처에 거점을 설치하였다. 관리측면에서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 시설과 개방시설 사이에 문을 설치하거나 커뮤니티 거점에는 외부에서 직접 출입하거나 주출입구 옆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블랙버드 레이즈 커뮤니티 스쿨(Blackbird Leys Pre School)

이 학교는 옥스퍼드주에 위치하고 있는 복합 시설이다. 옥스퍼드주의 학교 복합 시설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커뮤니티스쿨 형태이며, 건설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은 미리 협의해서 결정한다. 예를 들면 주정부는 학교 시설 90%, 지방정부는 가족센터 부분 10%를 부담하여 건설하였으며, 유지·관리비용도 그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학교에 스포츠 홀을 부설하는 형태로 이 경우의 비용 부담은 주정부가 학교 시설 전부와 스포츠 홀 10%,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유지·관리비도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다. 후자의 형태도 원칙적으로 주간은 학교가 이용하고, 야간은 커뮤니티가 학교 시설도 포함해서 이용한다. 블랙버드 레이즈 학교 시설의 바닥면적은 1,820㎡, 커뮤니티 시설은 4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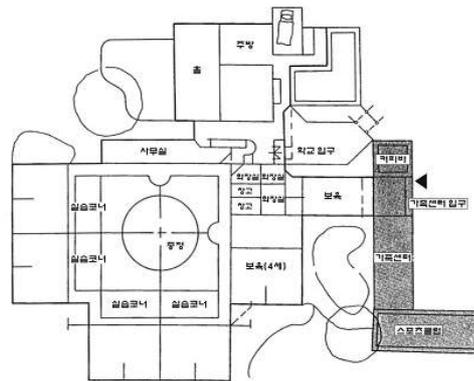


그림 1. 블랙버드 레이즈 학교 평면도

4) 몇 개 마을 연합의 교육·레크리에이션 센터.  
5) School Amenity. 1991. 5 NO. 57

• 학교시설+스포츠센터 또는 레저센터

이 유형은 다양한 종류의 사례가 있으며, 학교와 분동으로 스포츠 홀과 레저센터, 학교와 일체의 스포츠센터와 데이센터, 여러 학교가 서로 사용하는 스포츠센터, 대규모 커뮤니티센터 등의 복합시설이 있다.

학교에 스포츠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커뮤니티 시설로 설치하여 서로 이용하는 유형이다. 스포츠센터와 레저센터(커뮤니티센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음)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극장 등 스포츠이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레저센터라고 한다.



그림 2. 크레스트우드 중학교의 1층 평면도

- 크레스트우드 중학교(Crestwood school, Community center)

이 학교는 햄프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62,000㎡, 연면적 4,250㎡, 29개 학급, 약 600명의 중학교와 커뮤니티센터가 복합한 사례이다. 학교는 인근의 쇼핑센터와 마을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쇼핑을 갈 때 학교의 중앙 물을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교류를 촉진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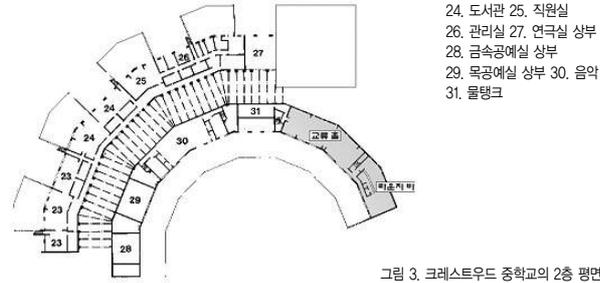


그림 3. 크레스트우드 중학교의 2층 평면도

이 물은 광장 겸 통행로로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주민들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결혼식과 맥주 페스티벌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이용되며 학습 공간으로 이용된다.

지역주민의 활동 거점이 되는 커뮤니티 센터는 쇼핑센터와 가까운 1층과 2층의 남쪽 끝에 교사와 일체로 설치하였으며, 외부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다. 1층에는 교류 홀이 있고, 인접해서 주방·식당이 있다. 2층에는 커뮤니티 바 겸 라운지와 인접해서 교류 홀을 배치하였다. 이 시설은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인근 청소년 클럽과 노인을 위한 장소가 되며, 지역주민들이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학교를 사용하는 거점 장소이다. 또한 휴식 시간에 교사가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하는 등 교사의 휴식 장소로도 사용되고, 교사와 주민의 교류 장소로도 활용된다.

2층 커뮤니티 바는 평상시에는 커피 등 음료를 마실 수 있으며, 정해진 일정 시간에는 술 종류도 마실 수 있다. 이것은 영국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적인 형태(pub)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한다.

를 통해서 계획된 이 학교는 9개 블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블록을 독립된 동으로 하는 동시에 연속된 일체의 지붕으로 건설하여 전체가 한 학교로 보이도록 디자인하였다.

독립동으로 한 이유는 학교와 주민이 서로 이용하는 경우에 서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아간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개 블록은 생활블록, 상급학교(13세~16세), 하급학교(11세~12세), 실습, 예술, 음악, 도서, 스포츠, 사무이다. 이용 방법은 학교와 커뮤니티가 협의하고, 기본적으로는 배(Bar)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을 6시 30분까지 학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실은 커뮤니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커뮤니티의 시설이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비는 주정부가 90%,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는 절반씩 공동으로 하였다.

• 커뮤니티스쿨

이 유형은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전제로 학교를 건설하여 학교와 지역이 공유한다.

- 포트힐 커뮤니티 학교(Fort hill community school)

이 학교는 햄프주에 위치하고, 1978년경에 건설된 주 북서부 최초의 커뮤니티 학교 사례이다. 학교는 10학급 약 800명이고 11세~16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커뮤니티 학교의 발생(1920년대)을 발전시킨 것으로 '커뮤니티 거주자 모든 사람에게 생애학습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지만, 이 학교 계획에서는 그것을 1980년대 도시주민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참가한 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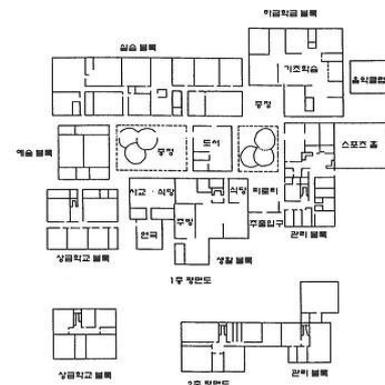


그림 4. 포트힐 커뮤니티 학교

• 대규모 복합시설

이 유형은 학교와 10여개의 지역시설을 공동 이용을 전제로 복합한 것이다. 학교 복합시설이라기 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학습과 각종 활동시설을 복합하고 학교도 이 시설중의 하나로 구성된 것이다. 시설을 집중적으로 복합하면 이 시설들을 통합하는 운영조직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사례의 특징이다.

- 쉘튼 센터(Sutton center)

이 시설은 노팅햄주의 아슈필드지구의 쉘튼 인 아슈필드 마을에 1973년부터 1979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한 교육, 복지, 주민서비스(각종 등록 등) 등의 시설을 대규모로 복합해서 건설한 복합시설의 모델이다. 이 센터는 부지 21,812㎡, 연면적 17,840㎡이며, 11세~18세를 위한 학교, 레크레이션센터, 성인교육센터, 청소년센터, 노인과 장애인 데이센터, 복지서비스의 사무국, 출장소, 직업교육의 사무국, 노팅햄대학 사무국이 있으며, 시설적으로는 주간에 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실군과 각종 특별교실, 극장(커뮤니티센터), 아이스링크, 댄스홀, 스퀘시코트, 체육관, 식당, 바, 탁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 구성은 어린이에서부터 고령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복합시켰다. 관리운영조직은 일원화되어있고, 전체를 통합하는 센터장과 주정부, 지방정부, 각각의 다른 분야를 통합하는 위원회 등이 관리·운영한다. 이용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학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학교이외의 다른 커뮤니티가 이용하는 부분(댄스홀, 스퀘시코트)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밤 11시까지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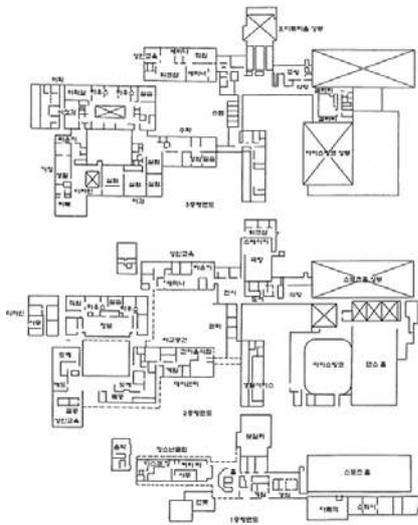


그림 5. 쉘튼 센터 평면도

• 별동형 복합시설

다양한 시설을 복합한 대규모 인 점에서는 네 번째 유형과 동일하며 또한 학교건물과 일체화 하여 건설된 반면에 이 유형은 의도적으로 휴먼스케일의 소규모 건물군으로 조닝하여 구성한 유형이다. 따라서 학교도 몇 개의 건물군으로 분리하여 형성되며 건물과 건물은 2층 복도 등으로 연결된다.

관리·운영은 네 번째 유형이 집중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기 용이한 반면에 한 곳을 사용해도 전체를 개방해야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은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폐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 두 유형은 서로 대칭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 밀튼캠퍼스 학교(milton campers school)

이 유형은 버밍햄주의 밀튼케인즈 뉴타운에 위치하고 있다. 1982년에 건설되었으며, 시설구성은 12세~16세의 통합제학교가 2개교(각 학교 정원 600명), 레크레이션센터, 씹스홀센터, 계속교육 칼리지로 구성되어있다.

건설비는 학교 등의 교육시설은 주정부가 부담하고, 레크레이션센터는 주정부가 15%, 밀튼케인즈구가 10%, 뉴타운개발공사가 75%를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는 이용과 협의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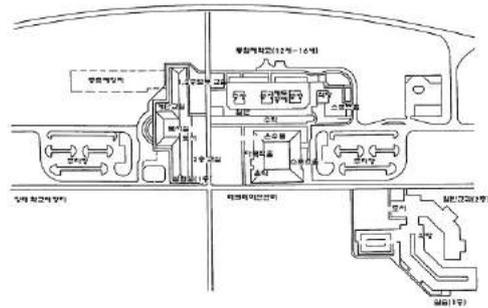


그림 6. 밀튼 캠퍼스 학교 배치도

결론

영국 PFI 사업의 주요 특성과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시설 사업의 설계, 건설, 자금조달 및 운영에 대한 위험요소(risk) 모두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사업의 금전적 가치(value for money)가 향상되고, 한정된 정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정부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2년 동안 추진실적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해당 사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도로 및 철도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시작한 영국 PFI는 그 범위가 병원, 학교, 군 관련 주거시설 등의 사회 기반시설로 확대되어 오늘날과 같이 활성화 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사업의 범위가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국가재정사업 중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질 것이고, 내년부터는 정부고시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제안사업 및 복합화 개발, 부대수익사업 등으로 사업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를 기회로 설계분야의 전문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06(완)

## Housing Flexibility - Design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지난 몇 년간의 연구와 출간된 글,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등 일련의 실험과정을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이란 하나의 주제로 묶어 연재 한다. 근본적으로, 이 연구 및 실험은 두 가지 틀 속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첫째는 '이론과 실무(Theory and Practice)'이고, 둘째는 '분석과 종합(Analysis and Synthesis)'이다.

건축 활동에 있어 이론과 실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에게 흔히 '건축 10서' 라고 알려져 있고 현존 가장 오래된 건축 저서인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De Architectura」의 첫 번째 책, 첫 장 '건축가의 교육에 관하여'에서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의 이론과 실무능력의 겸비를 강조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론과 그 이론의 디자인으로의 적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한다. 즉 디자인 작업이란 연구, 분석, 실험 행위로 구성되는 연속 과정을 하나의 전체로 종합시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은 그 근본이 되는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 디자인으로의 실험적인 적용 및 응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 위에서 전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이 '이론과 실무'의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라는 전제 하에 연재를 이어간다.

접근 방식으로는 '분석과 종합'의 변증법적인 통합에 기초한다. 건축 디자인의 형태적 체계를 인식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과 종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의 분석은 논리적인 사고나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의거해 정련하고 개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합이다. 즉, 건축가의 작품의 분석적 작업을 통해 이론과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들을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방법을 말한다. (필자 주)

목	차
01_ 디자인 선례 연구 - 슌들러의 작품 '슌들러 헬터' 에 관하여	
02_ 디자인 방법론 I : 부분 대칭론	
03_ 디자인 방법론 II : 비례관계	
04_ 슌들러 이론의 논리적 응용 : 하우징의 배치	
05_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실험 - 네트워크에 기초한 자바모델	
06_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하우징 가변성의 실험	

※ 박진호 교수는 인하대 졸업 후, UCLA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1998년부터 미국하와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인하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건축디자인 및 이론. 박 교수는 미국의 건축가 협회 (AIA) 하와이 건축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였고 2001년도에는 제4회 아시아 태평양 건축 심포지엄 의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2002년 하와이대학교 평의회 최고 교수상 수상을 수상하였고, 2003년에는 미국 건축대학 협의회 (ACSA) 신입 교수상 수상, 그리고 최근에는 JAABE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의 최고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Nexus Network Journal의 편집위원이며,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Symmetry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하우스링 가변성의 실험

### A Design Exploration for a Dense Highrise Urban Village in Honolulu

#### 서론

지금까지 하우스링의 가변성이라는 주제로 연재를 진행해 왔다. 이 연재의 마지막 글은 하와이 대학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실험한 고층주거 디자인의 가변성과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는 호놀룰루 시의 고층주거가 독특한 자연환경이나 도시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시작된 것으로 기존의 고밀도 고층주거의 형태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다양하고 독특한 주거 대안들을 실험한 것이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지역의 기존 주거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의견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왜 주거시설, 특히 아파트들이 단독주택처럼 다양하지 못하냐? 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들이 똑같은 박스형태로 지어져야만 하는가? 아파트의 기능적인 평면 계획보다는 다소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의 대안들은 없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존하는 고층 아파트들이 단조롭고, 지루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또한 학생들은 고층아파트에서는 공동주거라는 개념이 약하고 각 주거의 강한 개성 또한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학생들에게 주거에 대한 몇 가지 혼용적인 의제와 예를 설명한 후, 주거 디자인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디자인의 특징들을 체득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거에 대한 여러 분석적 작업이 요구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디자인 과정은 각각의 개성 있는 주거평면 형태들을 집합시켜 하나의 고층주거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으로써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으로 그 과정의 디자인 가능성을 탐구해가는 과정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고밀도 주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존하는 주거 문제나 이슈들에 답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와이에서의 지가는 미국 내의 평균보다 높고, 고밀도 지역에서의 토지 부족 현상 때문에 고층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와이에서의 주택사업의 관심은 주로 대량생산이나 판촉에 있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상업성과 수익성만을 겨냥한 전략으로 인해 고층

주거 디자인의 질이나 그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건설공법에 관해서는 매우 한정된 연구나 투자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건설업자나 개발업자들은 디자인 과정을 대체로 급히 서두르거나 한정된 주택 배치계획안과 시공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고층주거에서 입주자의 성향이나 지금 진행 중인 계획안들조차 거주자들이 자기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독특한 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위 평면의 배치에서조차 지역 사회 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관한 배려도 거의 없다. 특히 고층주거 계획에서 여러 건축가가 다양한 목소리로 참여하거나 혹은 거주자가 계획이나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고 제한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주적인 선택 방안들을 위하여 주거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나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거대한 자연환경과 한정된 건축부지에 기인한 섬이라는 환경적 조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하와이에서는 하와이만의 자연환경과 건축물이 조화된 도시 고층주거계획이 기대되나 오히려 이들 사이의 간격은 더 크게 인지되고 있다. 하와이와 같은 열대섬의 개발은 천혜의 환경보존이라는 대명제 하에 환경 친화적인 도시 고층주거의 개발이 필수적이나, 불행히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개성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친환경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스튜디오의 디자인 실험은 인간과 자연환경 사이의 이분법적 관계를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개념과 각 단위 주거 사이의 지역 공동체 개념을 적용하여 많은 마당 혹은 뜰 공간을 부여하는 디자인 실험을 해보았다.

#### 역사적 선례 연구

어느 도시에서든 고층주거에 있어서 똑같은 디자인의 반복적인 단위주거들은 누구에게나 새장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을 주며, 아파트들 사이에서의 공간이동은 수직 사선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전형적인 복도식의 수평

적 공간이동 또는 홀 식의 수직적 공간이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험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점은 이와 같은 동일한 공간계획안을 피하고, 고층주거 내에서의 맛있는 구조물로부터 보다 유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주거계획안에 있어서의 많은 노력들은 대규모 산업생산에만 초점을 두고 이뤄져 왔다. 돌아켜보면 대수많은 건축가와 제조업자들이 이미 그들의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주거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안해 왔고, 지금은 혁신적인 주거 해결안의 개발을 위해 주택의 공간적인 가변성과 주거단위의 다양화를 위한 구조공법과 기술적인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학생들의 작업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각종 설비가 안착된 충전(Plug-in/Infill)방식의 주거 개념들과 우리가 시도해야 할 디자인과 유사한 여러 역사적 선례들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그 첫 예로 12층의 높이의 르 꼬르뷔지에의 유니떼 다비따시옹(L'Unite d'habitation)을 들었다. 1,600명의 거주자가 사는 이 아파트는 2차 대전 이후 심각한 주거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계획되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각형의 강화 콘크리트 구조체 내에 조립식 공법으로 지어진 각각의 단위 주거들이 삽입되

는 형태의 모듈러 하우스로 계획된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직적 도시의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그 구조체 내부에 녹지공간, 내부 도로, 지역사회시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고, 건물의 중간층쯤에는 레스토랑, 약국, 우체국 등의 상업시설 등이 위치하며 옥상에는 놀이공간과 육아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23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단위주거공간 배열이 그 구조체 내에 수평 중앙복도를 축으로 배열된다. 각 층간의 수직연결은 승강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체계는 마치 와인선반 안에 삽입되는 와인 병에 비유되기도 하고 때로는 벌집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고층주거 내에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여러 가족구성원이 하나의 작은 사회적 공동체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고층주거개발의 하나의 원형이 되었다. 이와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 예로는 아이엠 페이(IM Pei)가 설계한 하와이대학교 내의 동서문화센터의 기숙사(Hale Manoa)를 들 수 있는데 이 기숙사는 위아래 층 사이에 TV공간, 부엌, 창고 등의 공간을 포함하는 공동체 층을 두고 있고, 이 층을 통해 위아래 층의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방으로 향하는 내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공동 욕실이 그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이 공동체 층을 통하여 하와이대학교 학생들 사이의 많은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간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손실 공간이 많은 것 같다고 스튜디오의 학생들은 지적한다. 만약 이러한 활용되지 않는 공간에 여러 상업시설이 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학생들의 제안이 있었다.

이와 유사한 체계와 건축적 개념들은 그 당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개발되었다. 스웨덴 건축가 E. Friberger와 미국의 타운랜드 시스템(Townland system)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저층 주거계획에 적용된 E. Friberger의 개념은 여러 층의 수평구조체 안에 주거공간을 더하는 개념으로 부족한 토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의 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형태의 단위 주거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 크기와 디자인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이다. 이 주거에는 충분한 옥외공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목공간이나 잔디공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반면 이와 유사한 계획인 타운랜드 시스템(Townland system) 또한 여러 층의 수평구조체에 단층이 아닌 여러 층의 주거 박스들이 주거 군을 이루고 있다. 비록 키쇼 쿠로가와(Kisho Kurokawa)의 캡슐호텔과 유사한 박스 주거공간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여기에는 조경이 꾸며진 마당과 옥외지붕 등의 공간이 주어진다. 이러한 주거 개념들은 르 꼬르뷔지에의 유니떼 다비따시옹(L'Unite d'habitation)과는 달리 구조체 내의 사회공동체적 공간에 대한 개념은 고려되지 않았다.

최근에도 단순한 사각형의 콘크리트 구조체 내에 각각의 단위 주거들이 삽입 혹은 조합되는 형태의 고층주거 개념을 가진 실험적인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 후쿠오카에 지어진 마크 맥(Mark Mack)의 넥서스 아파트(Nexus Apartment)와 사이트(Site)로 유명한 제이스 와인스(Ja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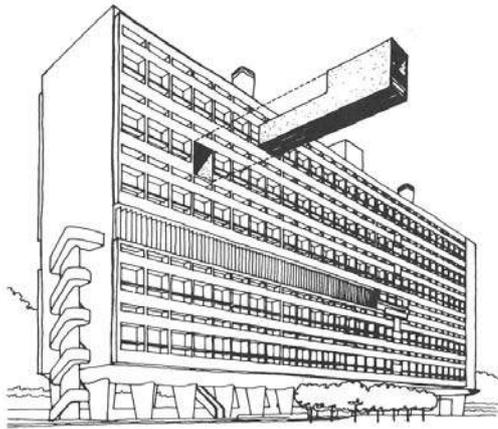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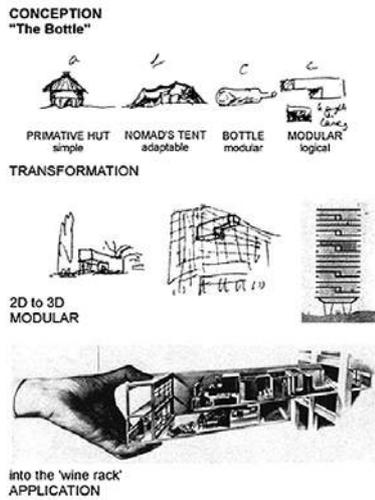


그림 1. 르 꼬르뷔지에의 유니떼 다비따시옹(L'Unite d'habitation)에 사용된 개념과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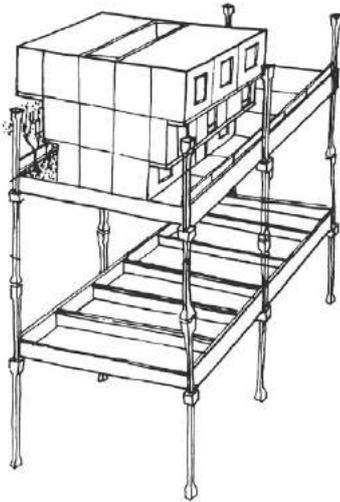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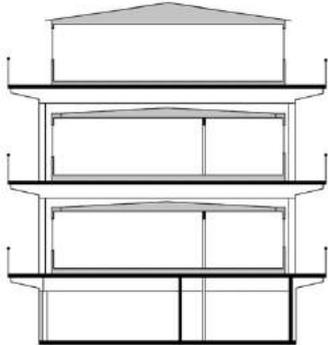


그림 2. E. Friberger의 Multi-layer house in Sweden (위, 중) 와 Townland system (아래)

크기, 정원을 가진 주거가 공동체를 이루는 고층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접근방식을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고 광범위하게 정리, 발전시킨 것이 존 하브라켄(N. John Habraken)의 'Open Building' 이론이다. 네덜란드 건축가 겸 이론가인 존 하브라켄이 발전시킨 이 이론의 목적은 주거의 기술적인 문제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공간을 만들거나 변형시켜 디자인과 시공상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증대 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인 요소들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필요와 행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어떤 디자인을 추구하고 나아가 다양한 공간과 주거 방식을 창출하는데 있다. 그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 그의

Wines)의 실험적인 작업들은 비록 다른 개념에서 출발하나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 우선 마크 맥의 후쿠오카 아파트의 경우는 두개의 건물에 세 가지 형태의 단위 주거공간(flat, duplex, courtyard house)을 29가지로 나누어 디자인 한 후 콘크리트 구조체에 끼워 넣는 형태(inset)를 취하고, 기본적으로 고층구조체 내에 거주자의 기호에 맞는 색상과 재료, 주거 형태를 디자인 과정에서 각 거주자의 기호를 조사한 후 디자인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주변상황과 거주자를 고려하여 1층에 상가를 두었다. 반면 제임스 와인스(James Wines)의 디자인 개념은 고층 구조체내에 주택의 개인성 및 사회성과 친환경적인 개념에 바탕을 둔 계획안으로 조립식 콘크리트 구조체 내에 다양한 형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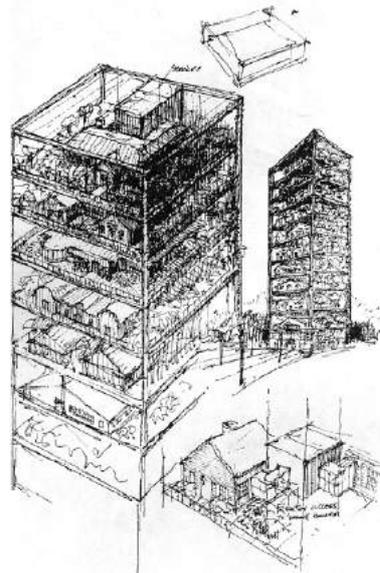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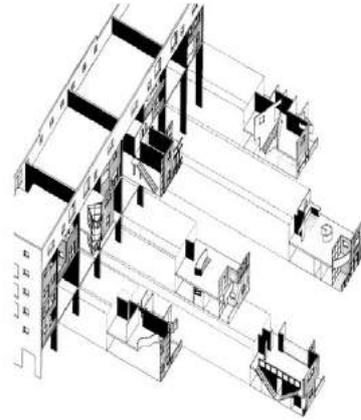


그림 3. 마크 맥(Mark Mack)의 넥서스 아파트(Nexus Apartment) 디자인과 제임스 와인스(James Wines)의 'Highrise of Homes'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We should not forecast what will happen, but try to make provisions for the unforeseen"(N. J. Habarken, 1961).

이러한 여러 작품의 분석적 예들과 하브라켄의 이론은 이 스튜디오 작업의 전반적인 지침이 되었다. 이 스튜디오에서 이와 같은 선례 연구를 설명한 의도는 학생들이 이러한 여러 관련 작품들의 자료를 수집해 각각의 방법론적인 면과 개념을 재분석하고 나아가 그들 개개인의 개념과 종합해 새로운 디자인 실험을 해보기 위함이었다.

### 스튜디오 프로그램

이 실험적 스튜디오에서는 주거의 다양성, 가변성 그리고 충전(Plug-

in/Infill)방식에 관한 이슈들을 고려하면서 현재 사용되는 고층아파트를 선택하여 개조하는 과정을 넘어 재생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에서 설명한 선례들과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규격화로 양산된 조립식 아파트 형태의 수준 혹은 성냥갑 같은 디자인 수준을 뛰어넘어 보다 다양한 형태와 공간이 공존하는 그러한 고층주거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 실험디자인에는 하와이 대학교 2학년 학생 12명이 5주동안 참여하였다. 각 학생은 자신에게 할당된 부분을 디자인 하면서 그들 자신만의 건축언어를 가지고 12개의 서로 다른 주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여기서 기존 아파트의 거주자들이 건축주로서 참여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들이 디자인과정에 반영된다고 미리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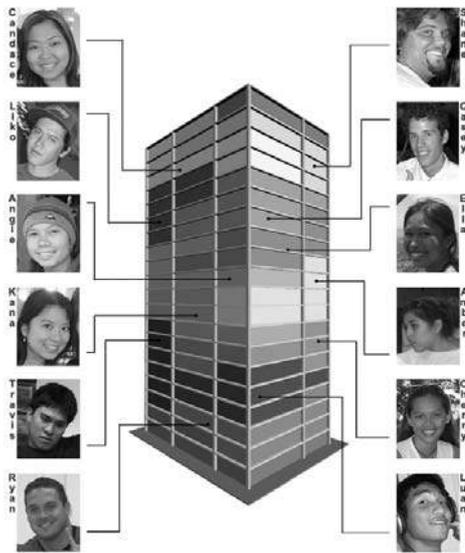


그림 4. 색깔로 표시된 각 학생들에게 할당된 bay공간

### 디자인 시나리오

고층 주거의 문제점들을 중심과제로 이 스튜디오에서는 호놀룰루시의 와이키키(Waikiki)지역에 있는 낡은 고층 아파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115 알라 와이(Ala Wai) 거리에 있는 이 고층 아파트는 북동쪽으로 알라 와이 수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며 하와이에서는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다. 1920년대에 지어진 이 알라 와이 수로는 이 지역의 강물이나 늪지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건설되었다. 수로 주변을 따른 인도는 조깅이나 산책하기에는 그만이다. 이 주변은 습도가 높고 비가 자주 오며 시원한 대륙 풍이 자주 분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듯이 이 주변의 아파트는 하와이만의 독특한 고층 주거의 모습도, 천혜의 자연환경이 아파트와 융화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여러 다른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고층 주거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알라 와이(Ala Wai) 수로 근처의 부지 주변 사진

현재 이 작업을 위해 선택된 아파트는 20층짜리 고층주거이며 80세대가 사는 아파트로 방 두개 혹은 세 개의 단위평면 구조를 가진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아파트의 뼈대구조만을 재사용하여 뼈대로 한정 지어지는 주거공간이 아니라 이 뼈대를 기본 구조체로 기존 박스형태의 공간을 탈피하여 다양한 공간구획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는 할당된 구조체 내에서 각 학생들의 다양한 단위 평면을 디자인하며 이후 전체구조체로 통합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초기 디자인 과정 중에 각 학생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영역뿐만 아니라 공용공간과 주변의 영역에 관해서 서로 토론하며 전체 주거를 계획하게 된다.

이 아파트 건물의 각 층은 기둥 사이의 간격이 4개인 뼈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7). 첫번째 기둥 간격은 40 x 40피트(12m)이고, 나머지 3개의 기둥 간격은 30 x 50피트(약 9.1m x 15m)이고 구조체의 층고는 12피트(약 3.6m)이다. 이 중에서 6개의 bay가 각 학생들에게 '부지'로써 주어지고, 디자인이 끝난 후 12학생의 72bay공간이 하나의 마을로 통합된다. 각 학생의 6bay공간은 최소한 두개 층에서 최대 6개 층까지 선택적으로 배열된다. 프로그램상 각 bay의 외부는 구조보강을 통하여 최대한 6피트(약 1.8m)까지 캔틸레버(cantilever)로 돌출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1층과 지하층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실 코어 역시 그대로 사용하고, 세탁실이나 커뮤니티 공간들을 고층아파트의 밑부분과 최상층의 일부공간에 새로이 제공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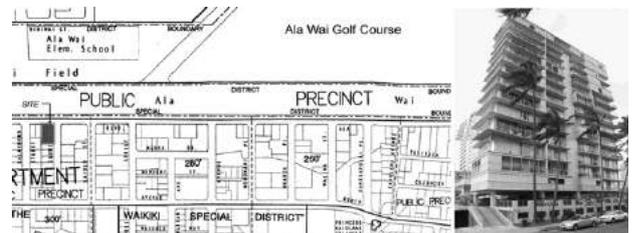


그림 6. 부지 위치 및 스튜디오 작업을 위하여 선택된 아파트

기존의 구조체는 유지하면서 각 학생들은 상하좌우로 내부공간을 자유롭게 진취적으로 계획하도록 허용하는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건축설계사무소가 전체 단

지 및 한 주거동의 단위주거 평면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인데, 만약 건설회사가 한 동의 뼈대를 만들고 여러 건축사에게 부분적으로 디자인이 할당되게 되면 한 개인 사무실의 일을 편향적인 아파트 디자인 보다는 다양한 입면이나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소위 '닭장' 혹은 '새장'이라는 현 아파트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고, 거주민들이 '나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개인주택과 같은 아파트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본다.



그림 7. 기존아파트의 콘크리트 구조체(좌)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군집 작업과정(우)

### 단위 평면 디자인

우리 주변에는 다양하고 많은 아파트 단위평면이 개발되고 있지만 다양한 공간구성과 그 공간들의 자유로운 배열 및 고층 주거에서의 사회적 공간 등이 부족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선택한 기존 아파트의 평면 또한 단조롭고 진부하다. 따라서 구조체만 남기고 모든 내외벽과 바닥 등을 제거함으로써 이 아파트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해본다.

단위평면의 다양성은 이 스튜디오 작품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 스튜디오 오에서 각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단위평면을 만들며, 이 기본 단위평면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기호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끔 변형시킨다. 단위평면의 크기는 더 이상 미리 결정되어지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의해서 조절된다. 따라서 각 단위평면은 각자의 독특한 특성을 표현하게 된다. 어떤 학생들은 여러 형태의 조립식 아파트 단위평면을 서류상자처럼 끼워넣거나 빼는 구조를 가지고, 또 어떤 학생은 복층 구조나 외부마당(court)을 가진 단위평면을 디자인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주어진 구조 프레임 내에서 개인에 맞는 공간을 배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여러 디자인들이 통합되었을 때 일률 편향적인 새장과 같은 집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공간이 공존하는 디자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비록 기존의 건물은 방 두개 혹은 세 개의 단위 평면으로 80 가구를 수용하지만, 새로이 개조된 아파트에서는 오피스텔과 같은 공간, 방 하나 혹은 둘, 셋, 넷 등을

가진 다양한 단위 평면이 제공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거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요소이며, 기존 아파트와 개조된 새로운 아파트의 공간의 효율성은 비슷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비록 아파트 내에서의 공공공간 등이 새 주거에 많이 할당되었지만, 기존 아파트 구조에서 최대 6피트까지의 캔틸레버(cantilever)공간을 확보함에 따라서 공공공간 등으로 잃어버린 공간을 상쇄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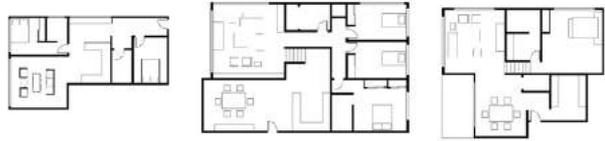


그림 8. 에임버 비에라(Amber Vierra)의 9가지 단위주거 디자인 중 세가지 예



그림 9. 단위주거의 내부 계획의 예 : a. 루안 트롱(Luan Troung)의 단위주거 내부투시도 ; b. 트래비스 루이(Travis Louie)의 단위주거 내부투시도

### 단위 평면의 군집(Clustering)

고층주거에서 군집에 관한 논의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층주거가 격자형태나 상냥갑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지 모른다. 다양한 단위평면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단위 평면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끈다. 푸미히코 마키(Fumihiko Maki)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단위 평면들은 하나의 공동체 혹은 마을의 집합적인 형태의 원동력으로서 개발된다. 마을이라는 개념은 공동체라는 공간을 만들고, 개인 주거 공간들을 한 곳에 묶어주는 조직체로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은 근대 고층 주거에서 확대 해석될 수 있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형성과정과 조직과정에 있어서 그들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험디자인에서 하고자 하는 고층주거계획 또한 각 단위주거계획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주거 전체의 다양한 개성 표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여러 단위 평면들을 지속적으로 재배열 하면서 조합하면, 그들이 조합되는 수많은 방식에 따라 다양한 군집형태가 제시될 수 있다. 마을을 서로 소통시키기 위한 수직 공용공간을 가진 다양한

단위주거의 조합은 아주 독특한 도시마을(village)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군집을 이룸에 있어 단위 주거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격자형 형태로부터 진화되어 옥상정원, 테라스, 다양한 형태의 조망, 통풍(cross ventilation) 등을 가진 형태로 발전된다. 이 작업에서는 각각의 학생들이 자신의 이웃단지와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반복적인 단위주거의 배열로부터 벗어나고, 수직녹지 공간을 제공하며, 주거공간을 기본 격자프레임을 기준으로 돌출시키거나 후퇴시킬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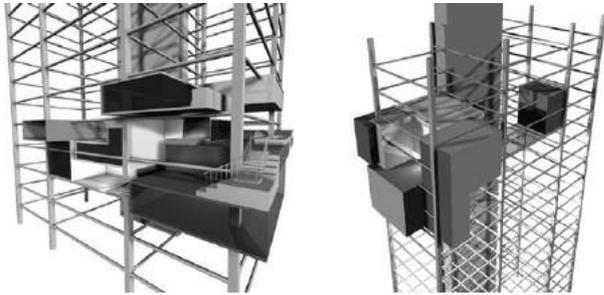


그림 10. 군집(Clustering)의 부분모델 : a. 루안 트롱(Luan Troung)의 군집형태 ; b. 리코 도링(Liko Dowling)의 군집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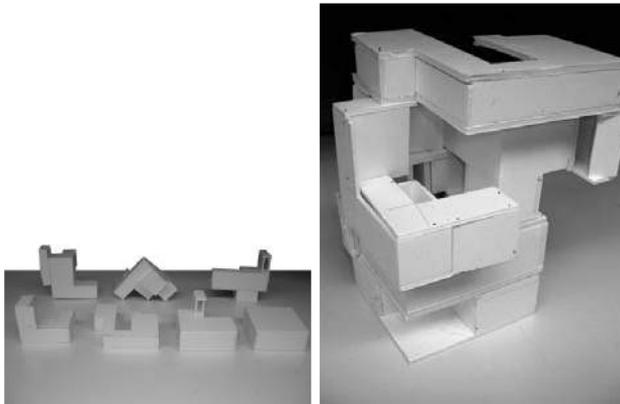


그림 11. 트레이비스 루이(Travis Louie)의 단위 주거와 군집 형태의 발전 모델

### 주거의 입면

고층주거에 있어서 간혹 무시되는 또 다른 부분은 입면 계획이다. 이 실험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단조로운 고층 타워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입면계획, 즉 격자형의 콘크리트 구조체가 그대로 디자인에 반영되는 입면계획과는 큰 차이를 이룬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볼 때, 여러 층의 단위세대가 중첩되어 한 세대를 이루거나 하여 보통주거처럼 각 단위 세대를 구분하기 어렵게 계획되기 때문이다. 아마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주거 평면은 대규모 주거 양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단조로운 형태와 더불어 입주자들에게 불만족스럽고 인기 없는 주거를 양산 하게 되었다. 주거의 입면은 각 입주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조롭거나 진부한 형태를 피해야 한다. 이 디자인 실험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각 건축가(여기서는 각 학생들)가 표준화된 주거 입면을 사용하는 대신에 각자의 독특한 입면을 제안하는 것이다.

### 수직녹지 복도

하와에서 특히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주거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 '오하나(Ohana)'라고 말하는 강한 가족들의 전통적인 유대감 때문일 것이다. 가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도시 내 고층주거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을 더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건물 내에서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포함한 수직사선복도라는 공간을 제안한다. 이 공용복도는 도시내의 보행자 도로처럼 이 건물의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연결하는 산책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은 모든 단위 주거들이 각자의 사적 공간을 유지하면서 각 층에 배정된 공용베란다를 연결함으로써 전체공간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한다는 아이디어이다. 이 개념은 복도를 통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사회적 행위들이 일어나고, 또한 이 복도와 더불어 작은 상점들도 나열되고, 또한 하와이의 자연환경을 고층건물로 끌어 들이면서 수목공간도 계획하여 모든 거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친 환경적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 자유단면

고층 주거의 전형적인 연구는 주로 그들의 단위 평면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윗층들은 일렬로 배열되고 박스같이 쌓인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아파트 블록에서처럼 각 층의 단위세대가 수평으로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주거 공간들이 단면상에서 서로 중첩되거나 분리되기도 하며 여러 층이 혼성된 형태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 구조체의 수평성이 디자인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단면의 개념은 초기 근대 건축가들, 특히 아돌프 루스(Adolf Loos)나 슐들러(Schindler) 그리고 데스틸(De Stijl) 건축가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이들의 건축물에서는 각 층의 층고가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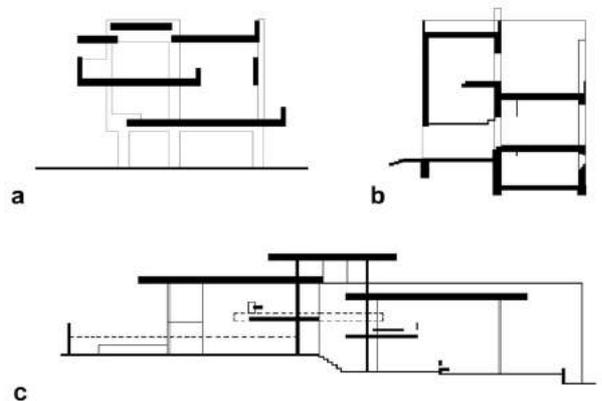


그림 12. 단면도 : a. Rudolph M. Schindler, the Lovell house, 1926 ; b. Adolf Loos, Villa Moissi, 1923 ; c. Dick van Woerkom and Joost Baljeu, project for a studio in France, 1959

이처럼 각 주거들의 층고가 다양하게 계획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원룸형 주거평면의 층고가 8피트일 때, 이 세 공간을 수직으로 연결하면 주거평면은 24피트 높이까지 가능해진다. 이 세 공간은 수직으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중간에 메자닌(mezzanine) 층을 가지면서 2층 높이의 층고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어떤 평면은 캔틸레버(cantilever)로 돌출 혹은 후퇴되기도 하며, 후퇴된 공간으로 생기는 전면부는 앞뜰로도 쓰일 수도 있다. 단면이 이렇게 다양화되면서 최대한의 조망과 통풍 그리고 보다 나은 채광이 보장되고 사이 공간에 각 가구별 개인 정원도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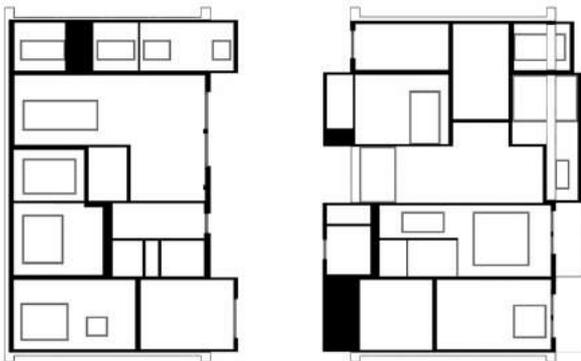


그림 13. 하와이 대학생 트래비스 루이(Travis Louie)의 단위주거들의 동-서 단면도 와 남-북 단면도

히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주거의 통일성과 개별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거 내 외부의 색을 서로 다르게 조정하였다. 밝은 색은 독특한 내부공간에 적용되며, 외부 입면은 무채색과 나무, 철재, 유리 등에서 나오는 색을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비록 이러한 군집형태는 입면상에서 불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최종디자인을 보면 고층건물이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각 거주자들은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장식들로 공간을 꾸밀 것이며 자신들만의 특징이 있는 발코니 공간을 가꾸게 될 것이다. 이 고층아파트의 단면은 3차원의 역동적인 특징을 갖는다. 비록 구조체가 격자형을 이루고 있으나 각 단위 주거들의 형태는 더 이상 성냥갑과 같은 형태가 아니다. 그러나 박스의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주거의 실들은 기능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이 스튜디오를 시작할 때 각 학생들은 주어진 구조체 내에서 그들의 개인 단위주거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리고 이 단위 주거들이 모여 수직형 마을을 형성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나올지를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디자인을 종합해 봤을 때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형태와 함께 디자인 해결책으로서도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종 계획안

학생들은 그들의 초기 디자인을 컴퓨터를 통해 완성한다(그림 14). 컴퓨터 모델링을 완성한 후 1/4 스케일의 기존아파트의 축소 구조프레임을 만든다. 각 학생들은 그들의 단위 주거를 이 프레임에 세운다. 그림 15는 이 프로젝트의 작업과정을 보여준다. 단위평면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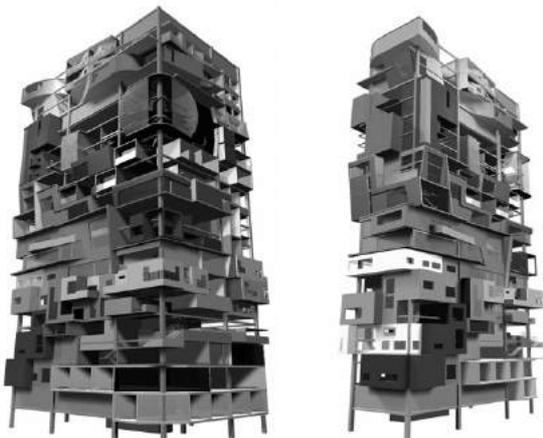


그림 14. 최종 컴퓨터 모델



그림 15. 최종 모델 마무리 작업 과정

## 결론

이 글은 세 가지의 유사한 다른 주거 계획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그 접근방식을 결론지을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첫 번째 주거는 캐나다에 있는 몬트리올 시에 1967년에 세워진 모쉬 사프디(Moshe Safdi)의 해비타트(Habitat)이고, 두 번째 디자인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세워진 훈다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의 아파트 계획안이고, 마지막은 홍콩에서 이미 철거된 건축가의 도움 없이 주거들이 변형되어온 아파트 건물이다. 비록 각각의 접근방식이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최종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사프디의 해비타트의 접근방식은 다소 통상적인 모듈러 방식에 기초하는데 사각형의 모듈러 방식을 사용하여 L자 형태로 연결된 단위 주거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 다양한 방식의 입면디자인을 형성한다. 이와 다르게 훈다바서의 접근방식은 장인들의 현란한 손동작이 없는 기계의 기술적인 면의 비인간화를 지적함에 있어서 수공예 운동가들의 접근방식과 유사하다. 훈다바서는 조경과 색깔을 잘 사용하고, 아파트 건물에서의 개인성과 독창성을 보유하면서 거리로부터의 아파트 건물의 단조로운 형태에 도전하였다. 홍콩의 Kowloon Walled City는 비록 없어졌지만, 역동적인 주거의 흥미로운 예이다. 이 계획안에는 딱히 어떤 건축가가 존재하지도 않고 계획된 도면도 없다. 거주자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주거단위를 바꿔나갔다. 근본적으로 이 주택은 사용자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이 사는 공간을 것처럼 꾸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주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스튜디오 프로젝트에서 위의 세가지 예를 답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의 세가지 예의 전략적인 방법론의 통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의 독특한 형태의 고층 주거 모델이 다양한 형태의 접근방식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들은 근본적으로 거주자와 주변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이 실험적 주거계획에서 표현된 질문은 이와 같은 이해에 공헌을 하려는 데에서 기인한다. ■



그림 16. a. 모쉬 사프디(Moshe Safdi)의 몬트리올에 있는 해비타트(Habitat) ; b. 훈다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의 아파트 계획안 ; c. 홍콩의 The Kowloon Walled City in Hong Kong ; d. 하와이대학교 학생들의 작품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개최**

■ 제11회 이사회

2005년도 제11회 이사회가 지난 8월 23일 오후 5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5 전국건축사대회 수지결산 및 잉여금 사용 승인의 건, 2005년도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예산전용 사용승인의 건, APEC 건축사제도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 명예이사 위촉에 관한 건, 자재인증준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회비미납에 따른 제명 철회요청에 관한 건, 경기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회원 제명처리에 관한 건, 전통건축자료집(민간건축편) 출판권 설정대가 납입방법 변경에 관한 건, 아카시아 회장 출마에 관한 건, 사이버건축정책팀(가칭) 운영계획에 관한 건, '건축의 날' 제정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05 전국건축사대회 수지결산 및 잉여금 사용 승인의 건
  - 수지결산(안)은 당일 배부되어 검토시간이 필요하고, 잉여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등을 자문 회계사와 협의한 후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2005년도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예산전용 사용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연구 진행사항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사 2인이 담당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APEC 건축사제도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일 시 : 2005. 9. 2 (금) 14:00
    -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강당

▷ 지출항목 : 연구사업비(5,000,000원)

- 제4호의안 : 명예이사 위촉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해당인사의 약력과 연구실적 등을 차기 회의시 보고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자재인증준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 자재인증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선임 등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함.

▲ 협의사항

- 제1호 : 회비미납에 따른 제명 철회요청에 관한 건
  - 서울건축사회 소속 회원(2인)이 제기한 제명 철회요청은 협회의 정관 및 사회 통념상 맞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
- 제2호 : 경기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회원 제명처리에 관한 건
  - 정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기도건축사회로 하여금 회비미납 등의 사유로 처리토록 조치하기로 함.
    - ▷ 지역건축사회 미가입을 이유로 제명할 경우, 전국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함.
- 제3호 : 전통건축자료집(민간건축편) 출판권 설정대가 납입방법 변경에 관한 건
  - 출판사의 요청사항대로 2005년도 판매부수를 각 1,000부로 예상하여 전액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각 2천부에 대해서는 책자로 대체하여 받기로 함.
- 제4호 : 아카시아 회장 출마에 관한 건
  - 이근창 부회장의 아카시아회장 출마에 협조하기로 함.
- 제5호 : 사이버건축정책팀(가칭) 운영계획에 관한 건
  - '건축사 사이버 동호회'의 자율적 활동에 협조하기로 함.
- 제6호 : '건축의 날' 제정에 관한 건
  - '건축의 날' 후원금으로 5백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조치 문제는 차기 이사회에 상정·의결하기로 함.
    - ▷ 정부포상 대상자중 1인(한명수)을 제외

한 전원을 추천하기로 함.

### 위원회 소식

#### ■ 제3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2005년도 제3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13일 오후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해설집 작성에 대한 협의 건, 전통건축자료집(민간건축편) 출판권 설정대가 납입에 대한 협의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해설집 작성에 대한 협의

- 편집방향

▷ Chapter별로 나눠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부분을 정리함.

▷ 건교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도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요청함.

- 편집용역

▷ 도해작업에 필요한 CAD 작업 및 편집 용역을 한 후 해설집을 발간하여 회원에게 판매하도록 함.

- 위원장에게 용역을 발주하기로 함.

▷ 위원장은 해설되면 작성 및 CAD작업 등에 대해 서초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

▷ 해설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검토

- 제2호 : 전통건축자료집(민간건축편) 출판권 설정대가 납입에 대한 협의

- 1·2권 각각 2,000부의 인쇄(설정대가) 전액을 책으로 대체해서 받고 외부인사 방문 기념 답례품 및 대외홍보용으로 활용하기로 함.

- 기타사항

- 2005년도 사업예산에 "전통건축자료집 발간 연구"사업이 유보된 것에 대해 재고

해 주도록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함.

#### ■ 제2회 공제사업위원회

2005년도 제2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13일 오후4시에 개최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99. 12월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공제 규정 및 사업계획(안)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도록 수정·보완하고 아울러, 공제사업과 관련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 일정계획(안)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사재인증제도 입을 위해 위원회에서 타 인증기관의 자료를 조사하여 인증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 제14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3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14일 오전10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회사 설계겸업" 요구에 대한 대안 협의 건, 건축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관한 협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건설회사 설계겸업" 요구에 대한 대안 협의

- 본 협회에서는 건축문화산업포럼에서 건교부에 제출한 자료가 정부의 방침으로 채택된다면 회원의 반대가 있더라도 대안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시하기로 함.

- 우리 협회의 공식입장은 8~9월초까지 최종대안을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관한 협의

- 발표 자료를 사무처에 제출하기로 함

-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조사검사 확인대행 협약서는 종합토론 시간에 논의하기로 함(성안 → 법제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정리 → 공람)

#### ■ 제3회 국제위원회

2005년도 제3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30분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건축사 관련 공청회 개최 방안에 관한 건, 아카시아 건축상 시행에 관한 건, 제9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석에 관한 건, 아카시아 참가대표단 선정에 관한 건, 몽고대표단 초청에 관한 건 등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APEC건축사 관련 공청회 개최 방안에 관한 건

- APEC 홍보자료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각 관련단체에 홍보요청을 하기로 함.

- 공청회는 8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하고, 신준규 부위원장이 개최방안에 관하여 건교부와 협의하기로 함.

- 제2호 : 아카시아 건축상 시행에 관한 건

- 아카시아 건축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근석 국제위원과 사무처가 시행계획을 협의·결정하여 진행하기로 함.

- 제3호 : 제9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석에 관한 건

- 참가대표단 6인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직 위	성명	발 표 내 용
담당이사	이영수	
국제위원장	심재호	건축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새로운 방안
국제위원	민규암	
국제위원	최문규	청년 건축사의 작품 발표
국제위원	정재욱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기술의 발달
국제위원전문위원	김지덕	대정부 건축설계와 감리 서비스 입찰방식

▷ 매 회의마다 건교부 1인을 추천받아 참석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앞으로는 참석요청을 하지 않기로 함.

▷ 발표주제 및 발표내용은 사무처에서

취합하여 주최 측에 송부하기로 함.

- 제4호 : 아카시아 참가대표단 선정에 관한 건
  - 아카시아 이사회 및 교육위원회에 참석할 공식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주최 측(태국)에 통보함.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아카시아 이사회 (2인)	이철호 심재호	회 장 국제위원장	
교육위원회 (1인)	정재욱	국제위원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제5호 : 몽고대표단 초청에 관한 건
  - 몽고대표단의 초청 행사와 올해 한국건축 문화대상을 연계하여 11월초에 초청하기로 하고, 몽고 측과 협의 후 공식 초청 서신을 발송하기로 함.

#### ▲ 기타사항

- 국내 건축계의 발전과 한국 건축사들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향후 UIA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다음의 사항을 건의함.
  - "UIA Architects" 정의에 따라 국내 건축사수를 "건축사자격 취득자 수"로 정정하여 신고하기로 함.
  - 한국의 UIA 교체이사(Alternate member)를 이근창 본 협회 부회장으로 변경·신청하기로 함.
  - FKA내에 UIA 업무의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업무분장 및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내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예정인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인증 관련 원탁 회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함.
- 2011년 UIA 총회 개최지가 일본 동경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본건축가협회(JIA)에 유치성공에 따른 축하서신을 보내기로 하고, 향후 JIA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함.
- 이장백 국제위원의 사임에 따라 『Architecture Asia』 관련 업무를 최재희 국제위원이 담당하기로 하고, 한·몽 교류 관련 업무는 이근창부회장을 대신하여 오근석 국

제위원이 담당하기로 함.

#### ■ 제5회 법제위원회

2005년도 제5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협의, 건축법 의원 입법안(다중이용시설 방재성능평가 신설)에 대한 협의, 건축공사 감리원 배치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협의
  - 건축법 제9조 중: 신설된 단서의 삭제를 건의하기로 함.
    - ▷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의 목적에 맞게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고려하여 건축하여야 함. 이를 위해 전문가인 건축사의 설계·감리는 필수적인.
    - ▷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과 건축신고는 관계가 없으며, 허가 대상 중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하는 이유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신고절차를 여러 번 거쳐 허가대상 건축물 규모로 증축하고 이를 용도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음.
    - ▷ 도시의 지역 건축물의 대부분은 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농업용 및 3층 미만 200㎡미만)로서, 안전과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해마다 풍수해의 피해를 반복하고 있음.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4호의 내용은 제32조제1항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이 합리적인.
- 제2호 : 건축법 의원 입법안(다중이용시설 방재성능평가 신설)에 대한 협의

- 방재성능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공인기관이 설립되어야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재시험 연구소가 설립되어 방재실험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객관적으로 증명 및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 건축설계의 초기 설계단계부터 검토 및 조정을 하면서 건축사가 방재성능 평가를 하지 않고 공인되지 않은 기관이나 기술자가 대항하게 된다면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해짐.

▷ "방재성능평가"로 정의된 피난시설·방화시설·소화시설·환기시설은 개별 전문가를 건축사가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해서 방재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의 협력을 받는 사항은 필요함.

- 관계기술자 협력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방재성능 관련 신설 규정은 현행 제8조 및 제9조의 성격에 맞지 않아 실행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관계기술자 협력조항을 검토하여야 함.

- 방화뿐만 아니라 내진 등에 대해 성능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제정되어야 함.

▷ 건물, 교량 등의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법체계가 필요함.

- 방재시설 성능기준에 관한 민병두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에 대하여 건교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공사 감리원 배치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

- 실제 기록일지를 보완하여 동일한 날이 아니면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두 필지를 합병하여 건축사가 설계를 한 공사에서 각 필지마다 감리자를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한.

-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중복배치 허용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 제2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

2005년도 제2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19일 오후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조사검사 확인대행 협약서에 대한 협의, 정관에 대한 협의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조사검사 확인대행 협약서에 대한 협의
  - 워크숍에서 발표할 건축설계 표준계약서(안)와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안)에 대해 전영철위원장이 발표한 후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
  - 이규홍 위원이 조사검사 확인대행 협약서(안)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
- 제2호 : 정관에 대한 협의
  - 장기종이사가 워크숍(22일~23일)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

## ■ 제15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15회 정책개발 T/F팀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20일 오후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검업문제 대안”에 관한 협의, 건축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관한 협의 등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설계검업문제 대안”에 관한 협의
    - 당일 회의자료 중 “건축문화산업 경쟁력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항목별로 적어서 위원장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함.
    - 워크숍 자료집 첨부 시 표지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명기하기로 함.
- “본 자료는 정책개발 TF팀에서 설계검업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 중인 자료입니다. 원론에 대한 부분만 찬성해 주시면 각론(용어)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제2호 : 건축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관한 협의

- 총괄 사과는 조원용 위원이 맡기로 함.
- 참석자 소개는 강석후 위원이 맡기로 함.

- 제3호 : 기타사항

- 다음 회의 시 건설단체 탈퇴 건을 협의하기로 함.(대안: 전문자격자들끼리 단체 구성)

## ■ 제3회 공제사업위원회

2005년도 제3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27일 오후2시에 개최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건축사 공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제사업위원회 업무추진 일정계획(안)을 확정하고, 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해 나가기로 함.  
<05년도 공제사업위원회 업무추진 일정계획>
  - ▷ '05. 8~9월 : 공제회 운영방안 검토 및 운영규정·세칙 수립
  - ▷ '05. 10월 : 공제회 설립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보고, 시도화장회의 설명회
  - ▷ '05. 11월 : 공제회 사업관련 회원 토론회 개최
  - ▷ '06. 2월 : 공제회 설립계획(안) 정기총회 상정
- 공제회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직원 채용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아울러, '05. 11월 예정인 공제회 사업관련 토론회의 예산확보를 요청함.

## ■ 제4회 홍보소위원회

2005년도 제4회 홍보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26일 오후 3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경향하우징페어 본 협회 전시회 평가, 「홈덱스2005」본 협회 후원 협조의 건 등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2005경향하우징페어 본 협회 전시회 평가

- 회원홍보를 위해 전시참여의 득(得)·실(失), 향후 과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본 협회 전시참여에 대한 후기(이규환 위원 작성)를 건축사지 시론으로 게재하기로 함.

- 제2호 : '홈덱스2005' 본 협회 후원 협조의 건

- 본 협회에서 후원키로 하되, '홈덱스 2005 - 주거문화 컨퍼런스'는 서용식 위원(주)수목 건축사사무소)이 진행하기로 함.

- 홈덱스사무국이 협회와 공식협의 없이 부대행사인 '주거문화 컨퍼런스'에 본 협회 명의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정식사과를 받은 만큼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 '홈덱스 2005' 주최단체인 조선일보와 협력관계를 맺는다거나 행사 중 건축사·협회 홍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협회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건축박람회 사무국에 본 협회 후원협조에 대한 안내공문(3개월 전 본 협회의 동의를 받고, 명의로용 시 민사상 법적책임 여부에 대한 내용 포함)을 발송하기로 함.

- 년 중 개최되는 10개 정도의 건축박람회 중 선별하여 후원에 줄 필요가 있으며 행사규모나 역사, 권위 면에서 2005경향하우징페어와 홈덱스가 타 건축박람회보다 우수하므로 이 두 건축박람회에만 본 협회가 정식 후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사항

- 협회 수익사업을 위한 건축자재인증에 대해 공제사업위원회와 홍보위원회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23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8월 23일 구체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건축자재인증에 대한 보고서를 이규환 위원이 작성하기로 함.

- 계약도서 사전검토제는 유종옥 위원이 8월까지 시행방안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진행하기로 함.

- 협회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건축자재 인증과 관련하여 협의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이며, 건축자재인증계획 초안을 이규환 위원이 작성하여 사전에 e-mail 혹은 전화상으로 위원간 협의가 되어 회의개최 시 구체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함. 회의날짜는 유종욱 위원이 이종정 공제사업위원장과 조율하기로 함. 아울러, 내년 3월에 개최되는 경향하우징페어 본 전시회부터 자체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 계약도서 사전검토에는 홍보위원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법적·건축위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추후 이에 대해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

### ■ 제16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16회 정책개발 T/F팀 회의가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8월 11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워크숍 개최결과에 따른 업무추진 협의, 건설단체 탈퇴 건 협의, 계검업 토론회 개최 준비에 관한 협의 건 등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호 : 워크숍 개최결과에 따른 업무추진 협의
  - 설계검업문제 관련 사항
    - ▷ 2005. 07. 25일 한명수 이사 개인 명의로 건교부에 제출한 의견 보고
  - 계약서 관련 사항
    - ▷ 각 시도에 계약서 관련 의견협조 (8/20일까지) 요청완료, 8/22일 법제위원회 회의 때 접수된 의견들과 자체 의견수렴내용 및 문안수정을 1차로 하고, 법제위원회·건축위원회·협회발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2~3명씩 대표자를 뽑아 집중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최종 문안을 제시할 계획임.

- 정관 관련 사항

- ▷ 축조심의 필요, 가지 수를 줄이더라도 케이스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주요 5대과제만 찬반에 따라 개정되어야 함. (직선/간선, 추대회원, 회원가입제도, 입회, 회비납입 징계문제)
- ▷ 추대회원보다 계속교육을 통한 상향평준화를 하여야 함.
- ▷ 5개 문제를 시도에 송부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작성 하여야 함. (주요사항만 정리)
- ▷ 설문조사 → 문안작성 → 공람(안) 이사회 → 정기총회에 올림.
- ▷ 문제가 되는 10여개 설문 → 집계 → 시도회장 회의 때 공람(안)을 만들.

- 사이버정책팀 운영에 관한 사항

- ▷ 인터넷동호회는 회원지원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 소속 및 과제선정, 동호회 회원자격대 한건축사협회 정회원 또는 시도 건축사회 추천 5인), 조직, 기대효과,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내용 수정

- 보안 요청

- ▷ 임투기 위원이 작성한 '사이버건축정책팀(가칭) 기획안은 좀 더 수정·보완하여 8/23(화) 이사회 협의내용으로 올리기로 함.

• 제2호 : 건설단체 탈퇴 건 협의

- 시·도회장 회의에 먼저 협의안건으로 올리고, 결정된 사항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함.

• 제3호 : 설계검업 토론회 개최 준비에 관한 협의

- 좌장 후보 검토 (손석희 기자, 맹형규·정장선 국회의원)
- 일정 및 장소는 상징성 있는 곳으로 결정했으면 함.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포스코, 국토연구원, 의원회관 등)
- 토론회 일정은 9월 둘째 주로 잠정적 결정함.

- 주제발표 없이 토론화만 진행토록 함.

- 토론회 참석자 (3X3)

: 사협회, 학회, 가협회, 건교부, 건설협회, 중소기업협회, NGO 단체,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등

- 토론회 기본안 사무처에 요청(구체적인 사항 조중기 위원과 상의)

#### ▲ 기타사항

- '건축사의 날' 제정의 건
  - 회의참석자 모두가 취지엔 동감, 구체적인 안 작성하여 차기회의 시 검토 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함.
  - 매년 "건축문화의 달" 또는 "주간"을 지정해서 건축사행사 및 여러 행사들을 몰아서 (그 주간) 하도록 함. 예) 건축문화대상, 건축사대회, 토론회, 전시회, 학술대회 등
  - ▷ 현상설계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건 - 추후 제도적인 부분으로 검토하기로 함.
  - ▷ 정책제안 (강석후 이사) -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함.
  - ▷ UIA 회원증 발급문제는 국제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함.

### ■ 제1회 공정위대책위원회

2005년도 제1회 공정위대책위원회 회의가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8월 17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대처방안 협의가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대처방안 협의
  -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기로 함.
    - ▷ 건축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설계비 제값받기 운동 및 현장조사검사 대행업무 대가 등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건 등을 전담하여 대처할 수 있는 상설 팀을

구성하여야 함.

- 대기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법제위원회에 검토요청
  - ▷ 조사검사업무대행, 대기기준 등의 운영 과정에서 공정위, 규제위, 건교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해 본 협회 및 9개 건축사회가 미진하게 대처한 상황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기로 함.

### ■ 제17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17회 정책개발 T/F팀 회의가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8월 18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론회 개최에 관한 확정 협의, 토론회 개최에 관한 확정 협의, 사이버정책팀 운영 확정안에 관한 사항, 정책제안에 관한 협의추진 사항, 건축문화 정책 4대 혁신과제 건 등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토론회 개최에 관한 확정 협의(담당 : 조충기 위원)
  - 설계검열에 대한 정부 입장이 현재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므로 토론회 개최여부(타당성)에 대하여 먼저 사무처에서 건교부와 의논할 것을 요청함(토론회 개최 관련해서는 T/F팀에서 9월초는 확정지를 것임. 토론회 준비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사이버정책팀 운영 확정안에 관한 사항 (담당 : 임두기 위원)
  - 임두기 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정책팀 운영계획(안)은 수정·보완하여 내일(8.19) 오전까지 보내 주기로 함. (이사회 협의사항으로 올리기로 함)
- 제3호 : 정책제안에 관한 협의추진 사항 (담당 : 강석후 위원)
  - 정책제안사항들을 해당 위원회에 보내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다음 회의 때 정책제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

하여 가져오도록 함)

- 제4호 : 건축문화 정책 4대 혁신과제
  - 차기 회의 때까지 4대 혁신과제 미 작성 또는 미발표시 전면 개편하기로 함. (검토 : 4대혁신 과제 용역으로 대신할 것)
- ▲ 기타사항
  - 차기회의 안건으로 정책개발 T/F팀 운영 방안 협의 (상반기/하반기)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피해 사례를 가지고 KBS(이재훈 기자)에서 10분 분량으로 방송할 부분에 대하여 취재 및 자료제공 요청 (임두기 위원)
    - ▷ 건설 분야 취재기자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충분이 있고 서민들에게 어필 될 수도 있음.
  - 사이버정책팀 운영은 NGO단체 성격처럼 운영해야 함.
  - 차기 회의 기타사항
    - ▷ 노조관련 사항(현실문제 이상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
    - ▷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방안(전문가 단체 입장에서)
    - ▷ 북한과의 건축문화교류 방안 검토(실무적인 사항은 사무처에서 파악하도록 함)

국제로타리클럽 3,640지구 차기 총재에 피선되었다.

이총재는 로타리안으로서 서울 강남 클럽에서 지난 22년간 무수한 봉사실적을 쌓았으며 앞으로 2년간(2007~2008)에 걸쳐 서울 남부의 8개 클럽을 관장하게 된다.

국제로타리클럽은 세계최대의 사회봉사클럽으로 현재 168개국에 1,200만명 이상의 로타리안이 활동하고 있다.

### 이의구 인증원 이사장, 국제로타리클럽 총재 피선



우리 협회 23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이의구(건축

사무소주 창건축 대표) 회원이 지난 8월 29일

### 제1회 정림학생건축상 결과 발표

지난 8월 23일 '시적요소를 찾아서(Looking for Poetic Elements)'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회 정림학생건축상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건축상은 지난 7월 1차 참가신청 접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550여 명의 참가자가 지원하였고, 8월 2차 작품마감에서는 완성도 높은 250여 작품이 80여 대학에서 출품되었다. 이 중 대상작은 송대웅(경북대 건축공학과)씨의 'vernacular emoticon: 소통' 1점과 우수상 임권웅(인하대 건축대학원)씨의 '無題'와 박정선(한양대 건축대학원)씨의 'soft interwall' 2점이 선정되었다. 이밖에도 장려상 2점, 입선 22점 등 총 27점이 선정되었다.

박승홍(정림건축 사장) 심사위원은 대상작은 비, 바람, 흙, 돌 등의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소통시키고, 주변 컨텍스트와 건축물을 융화시켜 공모전 발제인 한국성 속에서 시적 요소를 찾는 가능성이 가장 돋보인 작품이라고 평했다.

문의 : 02-708-8600



대상작 / vernacular emoticon : 소통 / 송대웅

### 민관 협력투자 교육환경 개선방안 국제 학술심포지엄

민관 협력투자 교육환경 개선방안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한국교육시설학회와 대한건축학회 주최로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테헤란로에 위치한 동부금용센터 지하2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주요내용은 '교육을 위한 BTL 프로젝트 계획 (스피로 플라리스/하버드 GSD 교수)와 'ETH의 교육시설 혁신사례(게르하트 슈미트/취리히 공대부총장)', '일본 PF 학교시설 디자인 경향과 최근상황(나가사와 사토루/도요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TL사업 추진 검토(민창기/한국교육시설학회 회장)'이다.

문의 : 02-3670-3636

### 부산영상센터 국제초대공모전 초대건축가 선정

부산시와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산영상센터 국제초대공모전'의 초대건축가로 스티븐 홀, 베르나르 추미, 쿽 힘멜 블라우, MVRDV, 에릭 반 에거라트, 텐아키토 토크, 이키넨-모코넨 등 7명이 확정됐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부산시 관계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대륙간 안배와 설계비를 고려해 문화시설 설계경험, 연령, 세계적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23명을 순위별로 정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건축가 중 7명을 선정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측의 요구에 따라 국내 건축사를 현상설계에서 배제하는 대신 당선작가는 실시설계시 국내작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 일정
- 8. 30 : 심사위원 선정
- 9. 30 : 작품제출마감
- 10. 6 : 모형제출 및 공개 작품발표회
- 10. 7 : 작품심사

- 10. 8~9 : 심사위원 특강
- 10. 14 : 당선작 발표
- 10. 7~14 : 작품전시

문의 : 051-888-4760

### 제28회 한국건축가협회상

1979년에 제정된 한국건축가협회상(Best 7)은 매 해당 연도에 완성된 건축가의 건축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적 성취도가 높고, 건축이 목적하는 바의 기능이 완성된 건축 작품 중에서 7작품을 선정하여 건축가, 건축주, 시공사에게 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11월에 개최되는 '2005 대한민국건축제'에서 일반전시, 특별전시, 이벤트 등 대국민 행사와 더불어 협회상의 시상식과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부득이 선정작의 완성기간을 변경하게 되었다.

- 대상
  - 전년도(2004) 10월 1일(금)~당해연도(2005) 9월 30일(금) 사이에 건축이 목적하는 바의 기능이 완성된 건축 작품.
- 제출자료
  - 작품카드양식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
  - 작품 자료 1부 - 클리어 파일로 제출(사이즈 제한은 없음)
  - 작품 CD 제출 - 작품 개요, 계획도면, 작품 사진 4~5매 등
  - 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필수)
- 접수기간 : 2005년 9월 30일 까지
- 시상 및 전시 : 2005년 11월 23일~11월 27일 까지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17 예총회관 501호 한국건축가협회
-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김종섭  
02-744-8050

## ATA+대전광역시립미술관

'산책, 건축과 미술' 전 개최

ATA(아시아건축연구실)와 대전시립미술관은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전의 원도심에 있는 대전지방보훈청 별관(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에서 '산책, 건축과 미술'전을 개최한다.

'산책, 건축과 미술'전은 오랫동안 별개로 인식되어 온 건축과 미술이 새롭게 만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심의 근대 문화재 건물에서 열리는 이색적인 전시회로서 국내 최초로 도심에 있는 국가기관의 건물 전관을 임대하여 개최된다. 이 같은 '열린미술관'은 문화 수요자인 대중에게 직접 찾아가는 프로젝트로서 소극적인 전시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미술문화의 인프라 구축 및 미술문화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고정된 전시장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의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학생, 어린이들이 미술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종의 이웃리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산책, 건축과 미술'전이 열리는 대전지방보훈청 별관은 대전 원도심의 중심에 있는 근대건축물로서 건축적 가치가 인정되어 등록문화재 100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 건립된 이 건물은 1999년부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사용되었으나 1999년 말 그 사무실이 대전시 선화동의 옛 검찰청사로 옮겨진 후 현재까지 6년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다.

• 문의 : ATA아시아건축연구실

042-629-8052



대전지방보훈청 별관

신간

##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이 책은 필자 윤철준 건축사(주.삼원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적으로 선정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자료를 모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원(대학교)이나 학생, 행정실무자,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사용되어지기를 희망하며 발간한 자료집이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단순히 노인회관이 아닌 치료시설을 갖춘 주간보호센터와 정보화교육실, 건강강진교실, 노인여가시설 및 재활교육 등 노인들의 사회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과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 및 진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된 건축물로서 노인 시설의 건축 계획상의 중요한 요구 조건은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3단계로 구성되어 Works에서는 준공 시점과 작가의 설계 소묘로 구성되어 건축물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으며, Planning에서는 설계경기 보고서 기준을 재구성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관련 법규 검토도 수록하여 실무에 보다 직접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Construction에서는 현장일지, 내부 실별 마감, 준공도면으로 구성되어 이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보다 면밀히 보여준다.



윤철준 지음/120쪽/16,000원/비운후 발행 051-645-4115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02-73071· 강동구건축사회/02-7475· 강북구건축사회/03-2030· 강서구건축사회/061-8999· 관악구건축사회/07-4844· 광진구건축사회/046-5244· 구로구건축사회/064-5828· 금천구건축사회/059-1588· 노원구건축사회/07-1100· 도봉구건축사회/090-8720· 동대문구건축사회/067-6052· 동작구건축사회/015-3026· 마포구건축사회/033-6781· 서대문구건축사회/088-5552· 서초구건축사회/0474-6100· 성동구건축사회/0292-5855· 성북구건축사회/0922-5117· 송파구건축사회/023-9158· 양천구건축사회/094-8040· 영등포구건축사회/022-2143· 용산구건축사회/07-4607· 은평구건축사회/088-1466· 용로구건축사회/025-3914· 용구건축사회/015-7458· 중랑구건축사회/03-739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6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063-8902· 광명건축사회/02-0845-845·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8-2337· 부천지역건축사회/02-3664-1554·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인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오산·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3·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0520-126·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9-4080· 양양지역건축사회/033-74-2659· 연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4242
- 충청남도건축사회/(043)223-3084~6
- 장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3-72-5752·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9152· 공주지역건축사회/043-051-1587·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공주지역건축사회/041-0588-5110·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아산지역건축사회/041-632-9200· 서천지역건축사회/041-623-388· 논산지역건축사회/041-736-2117·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연기지역건축사회/041-066-2276· 부여지역건축사회/041-355-2217·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당진지역건축사회/041-056-0017· 계룡지역회관/042-8415-725· 청양지역회관/041-9425-2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남원지역건축사회/063-681-2223·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경주지역건축사회/051-726-6877-8·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김천지역건축사회/054-342-6688·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5-1412· 상주지역건축사회/054-565-8975· 안동지역건축사회/054-053-4455· 영주지역건축사회/054-034-5560· 영천지역건축사회/054-034-8256· 칠곡지역건축사회/054-074-7025·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군위·위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85-8870·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8-6090· 김해지역건축사회/055-34-6644·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373·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서천지역건축사회/055-038-9779·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5년 8월 31일 현재)

**공사진행 현황**

우리협회 회관신축공사는 지하 터파기공사와 병행하여 가시설 스트럿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굴토공사 진행에 따라 토사는 총 13,000㎥가 반출되었다.

지하 터파기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고 있는 총12단의 가시설 스트럿 설치공사는 8월말 현재 북서측구간의 코너스트럿(4,5단), 남서측 구간의 코너스트럿(7,8단), 중앙부 센터 스트럿(4,5단)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다.

현재는 북서측(7,8단) 구간 및 남서측(9,10단)

구간의 굴토작업과 기존 구조벽체의 파쇄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5. 8월말 현재 13.69%(계획 24.1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05. 8. 25일 제14회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그 동안 검토된 마감재료의 등급조정과 부분적인 설계보완에 대한 최종 설계도서가 설계자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지난달 회관 주요자재 협찬을 위해 자재업체인 대도산업, LG화학, 벽산, 삼화페인트공업, KCC, 한국유리공업 등에 협찬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까지 협찬이 결정된 업체의 자재를 지급자재로 하여

시공사에 공급키로 하였다.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진행 현황**

인접지역 서초효성빌라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은 '05. 7. 29일 법원의조정결정에 따라 본 소송이 종료되었다. 조정내용으로는 시공사측에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일부 민원인 가옥의 천정누수 부분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민원인측에서는 평일 작업시간의 연장과 일요일에도 공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소음·진동·분진 등의 공사피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남서측부 코너스트럿(8단) 설치



북서측 코너스트럿(4, 5단) 설치



기존 벽체구조물 파쇄작업



공사 전경



투시도

**Q : 시설물의 상부에 천장그물망(햇빛차단용)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지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A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붕의 구조나 재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함. 다만, 일반적으로 지붕이란 비·눈·바람·햇빛 등을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최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기능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이동 또는 제거가 추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지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교통부 건축과-2734 ; 2005. 5. 20>

**Q : 종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여 허가된 건축물이 증축 없이 내부의 화장실의 개수증가(1개→2개) 및 업무비율을 감소(70%→60%)할 경우 종전의 기준에 의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A :**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2004. 06. 01)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설계변경 운용방안(건축과-2857호, 2004. 06. 15 및 건축과-3504호, 2004. 07. 15)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증가없이 내부의 평면계획 및 외부자재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위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의 설계변경이라면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설교통부 건축과-3962 ; 2005. 7. 13>

**Q : 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을 운영중인 건축물에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학원을 함으**

로써 전체 학원 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시 별도의 용도변경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다. 건축물대장상 4층의 학원면적이 200㎡를 초과하나, 실제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00㎡이하인 경우에도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학원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A :** 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제4조 자목 및 제8호라목에 의하여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나.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동일한 시설군(기타 시설군)에 속하므로 용도변경신고 대상은 아니나, 동일한 시설군내라도 건축물 용도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등) 상호간 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다. 질의의 경우가 직통계단 설치기준 강화이전에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학원용도로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상에 학원으로 등재된 범위내에서는 직통계단의 추가설치 없이도 학원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교통부 건축과-2390 ; 2005. 5. 4>

**Q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 479세대, 판매시설 10,568㎡)중에 판매시설이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 의무대상에 해당되어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등의 완화 대상 여부와 범위**

**A :**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및 영

업시설 등은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적률 기준 등을 완화 받을 수 있으나, 동시 행령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더라도 상기기준에 의한 용적률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판매시설에 한정하여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과-1788 ; 2005. 4. 8〉

**Q : 전면으로는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고 측면으로는 너비 약 2m, 길이 약 40m의 막다른 통로(지목: 대지, 개인사유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 시 막다른 통로부분을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35m이상인 경우 도로너비는 6m이상)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막다른 통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신설(예정도로 포함)되거나 도로로 변경 고시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막다른 통로에 접한 다른 대지에서 동 통로를 도로로 하여 건축허가(신고)된 바도 없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건설교통부 건축과-3377 ; 2005. 6. 18〉

**Q : 시설물의 상부에 천장그물망(햇빛차단용)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지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A :** 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

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붕의 구조나 재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함. 다만, 일반적으로 지붕이란 비·눈·바람·햇빛 등을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최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기능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상당 기간 동안 이동 또는 제거가 추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지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교통부 건축과-2734 ; 2005. 5. 20〉

**Q : 건축법 제정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동 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 받아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A :**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령 제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동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법령상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증·개축이 가능할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과-4860 ; 2005. 8. 23〉

**Q : 종지적도상 진입도로의 폭이 4미터로 설정(막다른 도로의 소요폭은 6미터) 되어 있는 막다른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A :**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으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막다른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도로 소

요폭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58070-1595 ; 2003. 9. 1〉

**Q : 지상층은 피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 2층을 근린생활시설, 지상 3~5층을 다세대주택으로 한 경우 다세대주택의 층수산정에 대한 질의**

**A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다세대 주택을 구분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산정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일 용도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세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1층에 피로티 구조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세대 주택의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58070-1903 ; 2003. 10. 18〉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의 분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 중 제2호 부분)

2. 공동주택(기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자료제공 : 건교부 건축서비스팀 02-2110-8437)

## ‘소형건축 관련법 개정 잘못됐다’에 대한 반론

조선일보 8월 23일자 오피니언 면에 실린 ‘소형건축 관련법 개정 잘못됐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 두 평 정도의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도면을 직접 그려 관청에 신고하려 갔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건축법이 개정돼 아무리 작은 건축면적이라도 건축사의 설계도면이 있어야 건축신고나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알고 보니 지난 5월 26일 국회가 건축법 제19조를 전면 개정, 건축사 설계도면이 없으면 건축할 수 없다고 바뀌었다.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하니 설계비로 50만원을 요구했다. 두 평 창고를 신축하는 데 드는 공사비가 1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많은 액수였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축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를 계속 확대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일체의 건축설계를 반드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강제하다니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명분은 건축물 안전을 위해 서라고 하지만, 특정집단 밥그릇 챙겨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건축주가 직접 설계해 만든 소규모 건축물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없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에서 볼 수 있듯, 유명 건축설계사나 대형건설사가 담당한 대형 공사에서 부실공사로 큰 사고를 내 오지 않았는가.

이 법이 빨리 시정되지 않을 경우, 비싼 건축설계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급속히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 8월 23일자 조선일보 오피니언 기사

건축물은 사유재산인 동시에 공익을 위한 공공재이다. 음식이나 옷은 잘못 먹거나 입을 경우 자기 혼자 감수하면 그만이지만 건축물은 다르다. 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도 잘못 지어지면 당사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게 된다.

예를 들어 남의 땅에 바짝 붙여 집을 짓거나 (민법상 50cm 이상 띄워야함) 이웃집의 햇빛을 가리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가 다른 건물을 인접해서 짓거나 조경 및 주차장 문제, 위생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 단열 성능확보 규정 등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곤란한 것이 수 없이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막대한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조안전과 화재 등에 대한 사항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풍수해 및 눈피해와 크고 작은 화재로 부실하게 설계되고 지어진 축사, 계사,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영세 공장, 서민 주택들이 도처에서 붕괴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료사고는 당사자에 국한되지만 건축으로 인한 사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다준다. 그래서 무자격 의료행위 못지않게 엄격하게 자격을 따져야 하는 것이 건축분야이다.

미관은 또 어떠한가. 건축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70~80% 이상이 소형건축물(100㎡)로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 제품의 창고형 주택이거나 국적불명의 야릇한 형태의 집들이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문민정부시절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완화, 행정간소화 라는 명목으로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다가 지난 5월 국회 의원입법으로 환원되어 종전대로 건축사의 책임 하에 건축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건축사는 국가에서 공인한 건축 전문가이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적업무를 위임받아 일하고 있다.

최근 제반 건축여건의 악화로 생계는 물론 생존마저 어려운 상황 속에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여야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설계비 요구는 터무니없는 일다.

그리고 작은 건축물이라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종호 건축사/(주)시원건축사사무소/ID : se3329)

## 건축법 제23조와 건축설계, 공사감리를 연계한 개선방법 제시

필자는 건축법 제23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와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를 연계하여 그 개선방법을 제시코자 합니다.

1. 우선 민법이나 형사법에 따른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누가 합니까?

결코 변호사가 할 수 없는 범위로서 정부기관인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하게 된다. 이를 변호사가 조사 또는 수사를 한다면 과연 얼마나 정직한 결과가 나올까?

건축법 제23조의 현장조사 및 검사의 확인업무 대행도 결과적으로 '부실한 조사 및 검사'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는 결코 건축사가 대행할 업무라 할 수 없다. 민법이나 형사법과 같이 이 또한 정부기관인 해당관청에서 시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다만, 건축허가 신청 시 지적공사(또는 측량사사무소)를 통하여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도록하고 그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적공사(또는 측량사사무소)의 몫이며 건축법 제23조의 현장조사에 대한 건축사의 행정처분도 사라져야 될 것이다.

2. 검사업무도 위와 같이 건축사의 업무대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검사업무도 정부기관인 해당관청에서 시행해야만 된다. 다만 해당관청 공무원의 현장출입 제한과 당초 위법건축물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3의 건축사 사용검사 방법이 일부 건축물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간 불법행위를 견제한다는 차원이라면 이를 보완하여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신고는 제외) 제3의 건축사 및 담당공무원이 함께 검사 및 복명을 하여 연대 책임을 갖도록 한다면 위법 건축물은 현재보다 확연히 줄어 들 것이다.

3. 공사감리의 경우도 건축설계와 이를 분리

하여 감리자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를 하고, 사용검사는 위의 2항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제3의 건축사 및 담당공무원이 함께 검사 및 복명을 하여 연대 책임을 갖도록 한다면 시공 중에 공사감리자도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선의의 감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처럼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함으로써 공사감리 본연의 취지에 맞는 품질확보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건축의 부실방지는 물론 건축계의 업무영역(설계와 감리)도 확보가 된다.

일부에서 건축설계와 감리를 분리할 경우 작품에 대한 건축사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방법으로 인한 건축계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우리 건축인들이 마음속 깊이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건축설계와 감리를 분리함으로써 건축사의 의도 전달이 부족하다면 이는 설계의 완성도가 부족하여 공사(감리)진행 중에 건축사의 의도대로의 변경 등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이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설계자와 협의가 불충분한 결과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로서 작품을 완성하겠다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의중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경우, 건축설계의 작품수준 설계 완성도 향상은 물론 일반적인 건축설계의 품질향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과 같이 개선이 된다면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의 확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게을리 하거나 현장의 현황을 왜곡하는 경우도 방지가 가능하므로 설계 초기부터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뿐더러 합법적인 처리로 일반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굵지 않은 시선도 해결이 될 것이다. 또한 해당관청 및 제3의 건축사(조사 및 검사업무), 건축설계자(설계), 공사감리자(품질관리)의 3권 분리가 확실하게 형성됨으로서 우리 건축계의 미래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홍순정/기림 건축사사무소/ID : keerim〉

## '건축사' 정말 우습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답은 '우리' 겠지요.

대한민국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자유계시판의 박순종 선배님의 글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경계선에 대하여/2005년 07월 29일'을 읽어보고,

먼저 이 글을 읽어보고 난 후 필자의 심정의 글을 게시판에 올려야 하나에 갈등이 쌓였다. 단합을 해도 어려운 시기에 논쟁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 많은 회원들의 견해가 묵살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금세 깨닫고 느낀 바의 글을 쓰기로 한다.

"건축사들은 설계 건이 늘어났다고 좋아했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설계 건이 줄어들게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 반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박순종 선배님의 글)

많은 건축사들이 설계 건이 줄게 되어 반대한다는 논리에 모욕감을 참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설계에 대한 기본 권리를 건축사에게 수년 만에 되돌려 준 것에 환영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 건축신고 규모의 확대에 인해 폐단이 발생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자기반성도 필요했었다.

건축사들의 글을 보면서 "나와 같이 느끼신 분들이 많아 다행이다" 했는데 그 분들과 함께 매도를 당하는 느낌이다.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전용게시판에 쓰신 글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논리로 이런 글을 대한민국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자유계시판에 쓴 것은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건축법 개의를 반대하는 건축사들이 틀렸고 박선배님의 주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치부를 내보이면서까지 국회사이트에 글을 올린 것은 파고적인 전술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 결국 공멸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말로 본 협회의 워크숍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이버건축정책팀이란 것이 한 회원의 지휘아래 조직적으로 건교부,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장난으로 보시는지요? 그 많은 건축사가 건축법 개악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것도 그 장난에 놓아나는 한심한 건축사들이 그리 많다는 말인지요? 절대 아니라고 본다.

건축사들의 글을 보면 그간의 폐단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날카로운 지적에 공감을 하는 내용이 많아 반가웠다. 그럼 7월 27일 이전에 올라 온 글들도 유사한 내용들인데 그 건축사들은 먼저 장난질을 했다는 말이 된다고 이해해야 되는지요? 아니라고 생각된다.

소탐대실하지 말자는 글도 읽어 봤다. 작은 것에 욕심이 나서 탐하려 많은 건축사들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수년 만에 작은 권리를 공포 한 달 만에 시행착오나 폐단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의 분석도 없이 원위치 시키겠다는 건교부의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는 다른 중요한 사안도 많다. 그렇지만 작은 것(건축신고)도 중요하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누누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28일 본 게시판을 보면 실로 지금까지의 건축사들 행태라 할 수 없는 건축사들의 반대 아우성입니다.”(박순종 선배님의 글)

그동안의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박선배님의 많은 글들의 주장을 이 정도의 견해로 쓰신 글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언제 건축사들이 법 개정 시에 이번과 같이 적극적인 의견 제시하는 것을 보셨는지요? 저는 못 봤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축사들이 많아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는데, 실로 지금까지의 건축사들 행태라 할 수 없는 건축사들의 반대 아우성으로 보실 수가 있는지요? 왜 건축사들 행태라고 저질 취급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으며, 그러질 않으려고 애쓰는 분도 많습니다. 왜 건축사들의 반대 아우성이라 하시는지요? 아우성으로만 보이시는지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곳곳이 건축사의 자

존심을 지키는 분도 많이 보입니다. 정말로 다행이지요. 그 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이런 글은 사양합니다.

좋은 의견이나 주장은 협회 발전이나 회원의 권익에 꼭 필요하다. 회원전용게시판에서는 건축사들의 의견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개진할 수 있다고 본다.

협회 내에서 회원들의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기고, 건축사다운 건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희곤/유성 건축사사무소/ID : hope3205)

## **틀레랑스(차이 혹은 다름)**

건축사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스스로 단결이 안 된다.”, “뭉칠 줄 모른다.”라는 자괴와 자조(스스로 자신을 조롱함)의 시절을 지내왔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최대 화두(話頭)이며, 선배 건축사들로부터 과거의 실례들을 들을 때마다 깊은 번민에 빠져 헤매었다. 왜일까?

2005년 어느 여름날 부산 BEXCO에서 필자는 희망을 발견했다. 4,200여명이 모였었다. 바로 이거다! 희망이 있다.

또 다른 무진장 더운 여름날, 경기도 광주의 한 호텔...바로 이거였구나! 득도의 순간이었다. 비로소 원인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두 번째 환희의 순간이었다.

동질의 인간들이 동질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열이러니?

지향하는 바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뭉쳐도 어려운 시국인데 단결이 안 된다니? 이유는 의외로 단 한가지였다.

‘틀레랑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틀레랑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차이 혹은 다름’을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으며, 가지고 있다. 라는 현실을 이제

야 감지를 한 것이었다.

지역적 편차, 업무 행태상의 편차가 바로 그 것이었다. 건축사가 건축사를 남으로 여길 수 있는 원천적인 요소들...

최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틀레랑스를 겪고 있다.

첫 번째가 건설사의 설계검업 요구 문제이며, 두 번째가 정부의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발주 방식의 도입문제이며, 그 세 번째로 신고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요구 문제이다. 이외에도 수년 전부터 야기된 소규모건축물의 감리분리 요구문제들도 있다. 모두 하나가 될 수 없는 난제들이다.

첫째, 건설사의 설계검업 요구문제는 아파트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대규모 상가 등의 분양건축물을 설계, 감리하는 건축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소규모 근생, 다세대, 다가구를 주로 다루는 건축사들이나 지방의 중소도시 건축사들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하며, 검업을 하든 말든 상관할 일도 아니다. 평생 한번이라도 설계를 할 기회가 있을까 말까하니...

둘째, 정부의 기간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BTL 방식에 의한 공사발주방식도 마찬가지다. 중소형의 현상설계를 주로 하거나 입찰로 설계를 수주하는 건축사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대형사무소에서 설계를 한꺼번에 독식을 하게 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역시 민간공사의 설계를 주로 하는 건축사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고, 도입되거나 말거나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셋째, 신고대상건축물의 건축사 설계요구 건이다.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업을 하는 건축사들과 마찬가지로 필자도 역시 누가 돈을 안겨 주며 시켜도 꺼려하는 일이다. 어쩌다 마지못해 인사치레로 하는 정도의 일이다.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 어촌 근처에서 업을 하는 수많은 건축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의 한 영역이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는 안건이다.

넷째, 감리분리 요구 건이다.

인천의 박순종 전화장님은 잘 아실 것이다. 설계(허가)에서는 선진국들과 같이 국가에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에 미리 모든 사항(법규, 규정 및 기반시설)을 조사(검사)하여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건축 가이드(뉴질랜드의 경우 LIM REPORT라고 함)시스템 및 이의 이행여부 확인 제도는 국가의 형편상 요원하지만... 감리에서는 결국 선진국들처럼 INSPECTION제도의 도입과 정착화가 최선의 방법임임을.

현재의 조사, 검사 및 확인 대체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비용의 확립 방법을 개선하며, 나아가 착공 시, 중간 검사(매회)시, 사용검사(예비검사 포함)시로 발전시키면 감리(진짜, 순수)도 살고 더불어 공사용도서의 관리, 통제 시스템도 강화될 터이니 설계도 함께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5부산건축사대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계자가 감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좋다. 라는 대답이 훨씬 우세한 반면 조사, 검사 및 확인제도의 정확한 의미를 전 응답자의 4분의 3이나 잘 알지 못했다. 먹고살기 어렵다고 막연히 가당치도 않은 과거의 교체감리 제도(감리를 빙자한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생각하는 건축사들이 상당수 있음이 또한 뚝배기다. 더 많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이렇듯 우리는 우리끼리 뚝배기를 항상 가슴에 끼안고 살아왔다. 합심할 일이 없고, 단결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과거에 이 뚝배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건축사의 엄청난 업적을 상실한 바 있다. 생전에 아파트 감리, 다중이용시설의 감리를 할 일이 있으랴? 하는 소형 사무소 건축사들의 무관심 속에 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제도의 탄생을 방관만 하여 건축물의 감리 현장에서 엉뚱한 사람(시공사 특급경력자, 고위 공직자 출신 등)만이 활개 치는 현재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경험이 있다. 과연 책임감리 현장에서 설계자(건축사)의 할 일은 없던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던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이던가.

우리는 너무나 지금 현재 무진장 어렵다. 우리는 이 뚝배기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

다시는 우리안의 우리의 뚝배기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것을 잃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한다. 뚝배기를 극복해야 만이 우리가 우리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어찌 보면 제로섬(ZERO SUM)으로서 결국 행위자가 바뀔 뿐 우리 건축사들의 안에서 우리끼리의 다툼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답은 단호히 '아니다' 에 있다.

남의 일이라고 좌시하는 사이 그 파급효과가 자신에게 곧바로 닥쳐옴을 우리는 쉽게 깨달아야 한다. 설계검업으로 할 일을 잃은 건축사는 기존의 다른 업무행태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상, 입찰이 불가능해지면 역시 또 다른 업무행태에 욕심을 부릴 것이다. 신고 건이 생기지 않으면 그 상위(크기로)의 일들에 도전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치열한 경쟁 속에 덩핑만 난무할 것이고 시장의 교란된 질서는 오늘날보다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협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협회의 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뚝배기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이다. 협회이외에는 할 수 있는 기구도 사람도 없다.

이 뚝배기에 나의 일이 아닌듯한 것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 돕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금번 신고건축물의 인터넷 시위처럼 지방건축사들만이 자기의 일이니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건축사들도 함께 거들도록 해야 하며, 설계검업이든, BTL이든 지방건축사들도 관심을 갖고 문제의 타개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일 같지는 않지만 다른 건축사가 살아야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 다른 건축사들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에서는 본부에서 자기들(서울회원)끼리 수억 원 예산으로 자기들 일만 다루고 있다고 원망하고, 본부(서울)에서는 지방회원들의 협조가 없다고 한탄하고... 이것이 곧 뚝배기이니, 이 어찌 극복할 수 있으리요?

'몽치자' 라는 구호로만? 개혁이라는 구호로만? 종로복판 노인들 상대의 이벤트로? 설계,

감리비 제값 받고 말로만? 계획설계비 유료화 하자고 아우성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임두기/다공종합 건축사사무소/ID : dagong〉

## 2005년 건축허가 현황(7월)

###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분		당월 (7월)			누계 (1~7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1,947	10,883	-8.9%	86,084	74,436	-13.5%
	연면적	10,088,692	8,049,547	-20.2%	64,336,907	62,259,541	-3.2%
주거용	동 수	3,499	3,320	-5.1%	29,486	21,726	-26.3%
	연면적	3,672,301	3,075,733	-16.2%	24,210,566	26,999,478	11.5%
상업용	동 수	3,807	3,411	-10.4%	27,264	22,316	-18.1%
	연면적	2,960,617	2,025,025	-31.6%	20,205,882	14,043,637	-30.5%
공업용	동 수	2,073	1,593	-23.2%	12,118	11,488	-5.2%
	연면적	1,816,237	1,141,514	-37.1%	8,577,040	7,859,485	-8.4%
문교및 사회용	동 수	736	779	5.8%	4,726	5,432	14.9%
	연면적	678,952	826,377	21.7%	4,549,192	5,480,289	20.5%
기타	동 수	1,832	1,780	-2.8%	12,490	13,474	7.9%
	연면적	960,585	980,898	2.1%	6,794,227	7,876,652	15.9%

###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분		당월 (7월)			누계 (1~7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1,947	10,883	-8.9%	86,084	74,436	-13.5%
	연면적	10,088,692	8,049,547	-20.2%	64,336,907	62,259,541	-3.2%
철근 철골조	동 수	10,489	9,643	-8.1%	74,422	65,136	-12.5%
	연면적	9,964,832	7,956,682	-20.2%	63,079,573	61,453,205	-2.6%
조적조	동 수	1,238	1,064	-14.1%	10,335	7,978	-22.8%
	연면적	97,883	78,528	-19.8%	989,229	667,709	-32.5%
목조	동 수	219	175	-20.1%	1,326	1,317	-0.7%
	연면적	25,539	14,164	-44.5%	267,667	138,074	-48.4%
기타	동 수	1	1	0.0%	1	5	400.0%
	연면적	438	173	-60.5%	438	552	26.0%

###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분		당월 (7월)			누계 (1~7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1,947	10,883	-8.9%	86,084	74,436	-13.5%
	연면적	10,088,692	8,049,547	-20.2%	64,336,907	62,259,541	-3.2%
수도권	동 수	4,410	3,611	-18.1%	28,678	23,072	-19.5%
	연면적	5,808,747	3,328,605	-42.7%	31,206,195	27,991,498	-10.3%
서울	동 수	703	688	-2.1%	5,390	4,130	-23.4%
	연면적	1,045,134	607,239	-41.9%	8,200,026	6,595,027	-19.6%
인천	동 수	406	328	-19.2%	2,824	2,138	-24.3%
	연면적	391,614	372,503	-4.9%	3,683,521	2,953,624	-19.8%
경기도	동 수	3,301	2,595	-21.4%	20,464	16,804	-17.9%
	연면적	4,371,999	2,348,863	-46.3%	19,322,648	18,442,847	-4.6%
지방	동 수	7,537	7,272	-3.5%	57,406	51,364	-10.5%
	연면적	4,279,945	4,720,942	10.3%	33,130,712	34,268,043	3.4%
부산	동 수	405	523	29.1%	3,085	2,989	-3.1%
	연면적	489,372	386,104	-21.1%	3,303,797	3,023,343	-8.5%
대구	동 수	467	485	3.9%	3,490	2,805	-19.6%
	연면적	611,738	575,530	-5.9%	3,059,752	3,855,879	26.0%
광주	동 수	255	332	30.2%	1,994	1,954	-2.0%
	연면적	120,319	243,186	102.1%	1,330,318	1,470,729	10.6%
대전	동 수	337	231	-31.5%	2,010	1,647	-18.1%
	연면적	334,757	123,794	-63.0%	1,757,209	1,459,015	-17.0%
울산	동 수	279	270	-3.2%	2,309	1,999	-13.4%
	연면적	137,821	223,241	62.0%	1,407,252	1,024,322	-27.2%
강원	동 수	614	586	-4.6%	4,906	4,121	-16.0%
	연면적	187,427	497,287	165.3%	2,189,063	2,795,757	27.7%
충북	동 수	641	561	-12.5%	5,323	4,182	-21.4%
	연면적	610,348	253,080	-58.5%	3,206,751	2,844,346	-11.3%
충남	동 수	886	722	-18.5%	7,187	5,286	-26.5%
	연면적	345,323	563,725	63.2%	5,420,887	4,139,798	-23.6%
전북	동 수	534	484	-9.4%	3,865	4,045	4.7%
	연면적	188,247	354,980	88.6%	1,474,340	2,335,509	58.4%
전남	동 수	613	643	4.9%	4,420	4,421	0.0%
	연면적	245,745	167,857	-31.7%	1,964,863	1,430,579	-27.2%
경북	동 수	1,036	1,120	8.1%	8,333	8,147	-2.2%
	연면적	316,853	696,778	119.9%	3,168,272	4,261,415	34.5%
경남	동 수	1,177	1,085	-7.8%	8,256	8,046	-2.5%
	연면적	634,098	577,302	-9.0%	4,261,679	5,126,848	20.3%
제주	동 수	293	230	-21.5%	2,228	1,722	-22.7%
	연면적	57,897	58,078	0.3%	586,529	500,503	-14.7%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5년 7월말

구 분 건축 사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55	5,055	199	396	25	76	1	4	0	0	5,280	5,531	1,454	1,454	267	527	76	229	28	112	17	85	5	30	3	21	7	64	1,857	2,522	8	8	7,145	8,061	100.0%	100.0%	
서울	1,184	1,184	55	110	14	43					1,253	1,337	860	860	166	332	44	132	18	72	8	40	2	12	2	14	5	43	1,105	1,505	7	7	2,365	2,849	33.1%	35.3%	
부산	518	518	23	46	3	9					544	573	71	71	13	26	6	18	4	16	4	20	2	12					100	163			644	736	9.0%	9.1%	
대구	420	420	29	58	4	12	1	4			454	494	39	39	20	40	5	15	2	8	2	10								68	112			522	606	7.3%	7.5%
인천	218	218	3	6							221	224	52	52	4	8	1	3												57	63			278	287	3.9%	3.6%
광주	201	201	2	4							203	205	31	31	11	22	2	6	1	4	1	5	1	6	1	7				48	81			251	286	3.5%	3.5%
대전	204	204	16	32	2	6					222	242	25	25	8	16	1	3	1	4						1	12	36	60			258	302	3.6%	3.7%		
울산	162	162	5	10	1	3					168	175	13	13	2	4	2	6											17	23			185	198	2.6%	2.5%	
경기	638	638	26	50							664	688	211	211	26	45	8	25			1	5							246	286			910	974	12.7%	12.1%	
강원	155	155	5	10							160	165	20	20	4	8			1	4										25	32			185	197	2.6%	2.4%
충북	172	172	8	16							180	188	21	21	3	6	1	3			1	5				1	9	27	44			207	232	2.9%	2.9%		
충남	157	157	3	6							160	163	32	32			2	6	1	4									35	42			195	205	2.7%	2.5%	
전북	182	182	3	6							185	188	19	19	2	4	1	3											22	26			207	214	2.9%	2.7%	
전남	126	126									126	126	10	10			1	3											11	13			137	139	1.9%	1.7%	
경북	282	282	8	16	1	3					291	301	27	27	2	4	1	3											30	34	1	1	322	336	4.5%	4.2%	
경남	333	333	13	26							346	359	17	17	6	12	1	3											24	32			370	391	5.2%	4.9%	
제주	103	103									103	103	6	6															6	6			109	109	1.5%	1.4%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051	10	8,061	100.0%	26
서울	2,846	3	2,849	35.3%	13
부산	735	1	736	9.1%	9
대구	606	0	606	7.5%	0
인천	287	0	287	3.6%	0
광주	286	0	286	3.5%	0
대전	301	1	302	3.7%	0
울산	198	0	198	2.5%	0
경기	972	2	974	12.1%	2
강원	197	0	197	2.4%	0
충북	232	0	232	2.9%	0
충남	202	3	205	2.5%	0
전북	214	0	214	2.7%	0
전남	139	0	139	1.7%	0
경북	336	0	336	4.2%	1
경남	391	0	391	4.9%	1
제주	109	0	109	1.4%	0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531	2,522	8	8,061	
비 율	68.6%	31.3%	0.1%	100.0%	
사무소수	5,280	1,857	8	7,145	
비 율	73.9%	26.0%	0.1%	100.0%	

**신건축**

2005년 6월호

이번 호에 서는 특집은 구성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에 완공된 시노노메 캐널코트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과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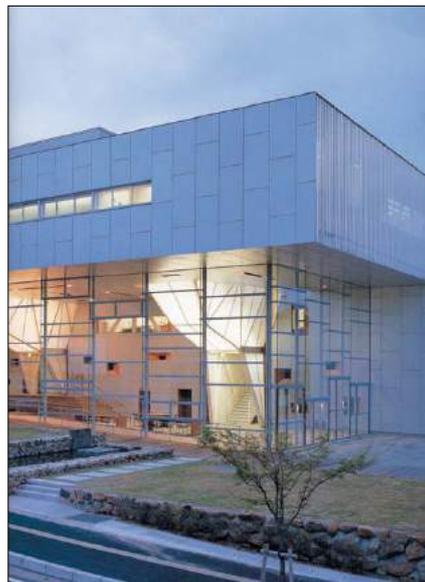
주호동의 디자인에 대한 소개가 상당부분 할애되었다. 이 외에도 '스페이스블록 노자와'를 비롯한 중·소형 집합주택과 소개되었는데, 신축건물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주거로 리노베이션 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외에 '니시아리타 타운센터' 및 본인의 설계작품을 중심으로 기고한 團紀彦의 특별기사가 눈에 띈다.

니시아리타(西有田) 타운센터 - 구조와 공간, 의장의 절묘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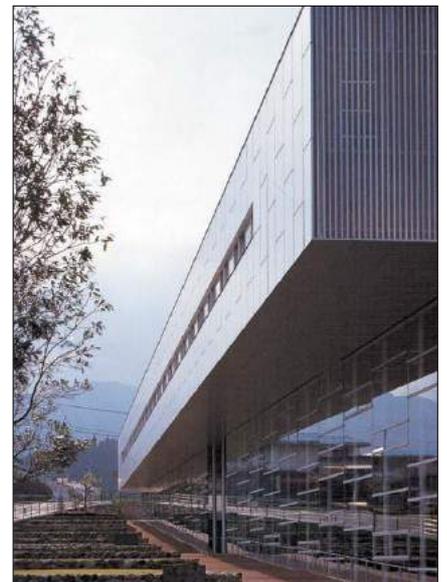
설계 : NKS아키텍츠+토리사(桃季舎)

동사무소와 지역 커뮤니티시설이 복합된 이 건물은 부지의 형상을 능숙하게 이용하면서도 구조와 공간의 기능적 이용, 그리고 건축공간의 의장적 측면을 간결한 형태로 통합시킨 건물이다. 부지는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국도에 면해 있으면서 동서로 긴 형태로, 동측과 서측의 고저차가 8m에 이른다. 따라서 1층의 레벨은 지형의 구배에 맞추어 2개의 레벨로 나누어 계획하였으며 레벨차로 형성된 공간의 구획은 각각 동사무소와 지역커뮤니티 시설의 영역으로 할당되었다. 경사진 부지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건물의 형태는 두툼하고 거대한 지붕이 부지 위에 떠 있는 형상으로 계획되었다. 이 지붕구조체 내부는 사무실로 사용되며 지붕 구조체 아래에 만들어진 층고가 높은 공간은 유리 커튼월로 피복되어 밝고 개방적인 장소로 마련되었다. 이 곳은 동사무소의 민원을 맡아보는 사무실과 시민에게 개방된 '시민로비'로 활용된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크레인(크레인의 내부)'으로 이름 붙여진 부분이다. 거대한 지붕구조체를 지지하기 위한 이 구조물은 마치 거대한 까치발과 같은 모습이다. 동서로 상당히 긴 형상을 하고 있는 이 건물에 적절한 간격으로 총 4개가 설치된 이 크레인은 지붕구조의 지지체인 동시에 상·하 공간을 연결하는



니시아리타(西有田) 타운센터



니시아리타(西有田) 타운센터



크레인의 내부

수직동선이며, 동시에 주간에는 자연광으로 야간에는 인공조명을 통해 실내를 비추며 장식해주는 조명시설이자 조각적 오브제인 것이다. 철골의 골격에 반투명 유리로 감싼 이 크레인의 내부 공간은 계단실로 사용되며, 천장에는 천창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1층의 홀 공간과 중2층 및 2층의 사무실 공간에서 반투명 유리를 통해 밝게 빛나고 있는 크레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모습은 갖을 씌운 거대한 등을 연상시킨다. 이 밝게 빛나는 '크레인'은 1층의 개방된 유리면을 통해 건물의 동측과 남측을 지나는 도로에까지 건물이 지니고 있는 활력을 어필하기까지 하여 건물의 내·외 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건축적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스페이스블록 노자와

설계 : 코지마 카즈히로+아카마츠 카즈코

지금 도쿄에서 산다면 어떠한 모양의 주택이 적합할 것인가? 조금씩 임대료를 늘려갈 것이라면 비록 극히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유능한 건축사가 설계한 자기 자신만의 유일한 집을 소유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러한 분위기가 현재 일본에서의 주택 붐을 만들어 가고 있는 듯 하다. 이는 거주자와 건축사에게 상당한 에너지를 발휘할 것이 요구되는 선택인 것이

다. 따라서 임대를 위한 집합주택을 설계할 경우 설계자는 유능한 건축사가 설계한 독립주택과 같은 공간의 질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코지마와 아카마츠는 일련의 '스페이스블록(space block)'으로 이름 붙여진 집합주택의 설계를 통해 부지 안에 공간의 불륨을 쌓아 올려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일관되게 해왔다. 가장 최근의 작품은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한 '스페이스블록 하노이'이다. '스페이스블록 노자와'는 이들이 처음으로 도쿄에 스페이스블록 개념을 사용하여 설계한 집합주택이다.

건물의 중앙에는 일본 법규상 이루어지고 있는 '공용부 용적을 완화'를 이용하여 상하로 오픈된 공간이 존재하는 계단실을 만들어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건물의 외벽에는 폭 60cm의 간격으로 글래스 루버를 설치해 더블스킨 구조를 만들었다. 반투명 유리로 만들어진 글래스 루버는 외부로부터의 시선, 빛, 바람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각 주호



스페이스블록 노자와

의 거주자에 의한 루버의 임의적인 개폐, 조명의 점등 여부에 따라 입면에 다양한 표정이 연출되어 입면은 전체적인 통일성 속에 변화감이 가미되게 된다. 설비는 건물의 외주부 3곳에 PS공간을 설치하여 조금이나마 실내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을 더 확보하고 있으며, 욕실이 외기에 면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기사 : 지형과 건축

최근 지형(topology)과 건축의 관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건축사에게 자신의 설계수업을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시류를 인식한 듯 신건축지에는 일본의 건축사 團紀彦의 글을 중심으로 특별기사가 게재되었다. 학술적 논문이 아니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론적 전개 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경향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참여한 작품들의 소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건축은 지형(땅)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건축과 지형에 관한 인식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시각을 넓혀서 본다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건축과 지형관의 관계에 대한 카테고리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중국 황하 유역의 야오통 집락이나 카파도키아의 석굴수도원 등을 보면 '건축은 지형 속에 만들어 진다'는 카테고리를 생각할 수 있으며, 리베라가 깎아지른 해안의 암반 위에 1938년 세운 마르파르테는 건축이 또 다른 지형을 생성해 낼 수 있다는 카테고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근대건축이 추구해 왔던 '지형 위에 서있는' 혹은 '지형 위에 떠 있는' 건축의 개념에 강한 영향을 받아왔다.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보아는 이와 같은 근대건축의 지형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근대건축의 대부분이 지형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희박했던 것은 첫째, 기계나 생명체와 같이 대지로부터 독립된 오브제 타입의 영향을 받은 데에 기인하며 둘째, 근대합리주의나 막시즘을 시작으로 하는 20세기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세계 규모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특정한 로컬리티와의 연결을 경원시켰기 때문은 아닐까. 근대건축이 수많은 환경 파괴와 전통적인 도시문화에 위화감을 가져왔던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근대건축이 평탄한 지형을 선호하고, 또한 장소로부터 독립된 보편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저자는 '2005아ichi만국박람회'의 박람회장 초기안, '교토 아쿠아리나', '대만의 상장(向山)지구 풍경관리소' 및 '스이세(水社)지구 버스터미널 공원' 등 지형과 건축이 어우러진 최근작들을 소개하면서 '유니버설 폼(universal form)'이란 다소 생소한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그 개념의 논리적 타당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團紀彦을 토목로지 건축의 중심에 서 있는 건축사로 각인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시노노메 캐널코트의 건축·조경·단지 디자인**  
 '시노노메 캐널코트 CODAN'은 건축사 팀과 랜스케이프, 조명, 사인디자이너 그리고 도시기구의 collaboration에 의한 디자이너스 임대주택으로 금년 3월경에 완공되었다. 완공 이래 국내외 건축 관계자들도 많은 견학을 다녀갈 정도로 완공 이전부터 관심을 모아온 주택단지이다.

단지는 총 6개 가구(街區)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토 아쿠아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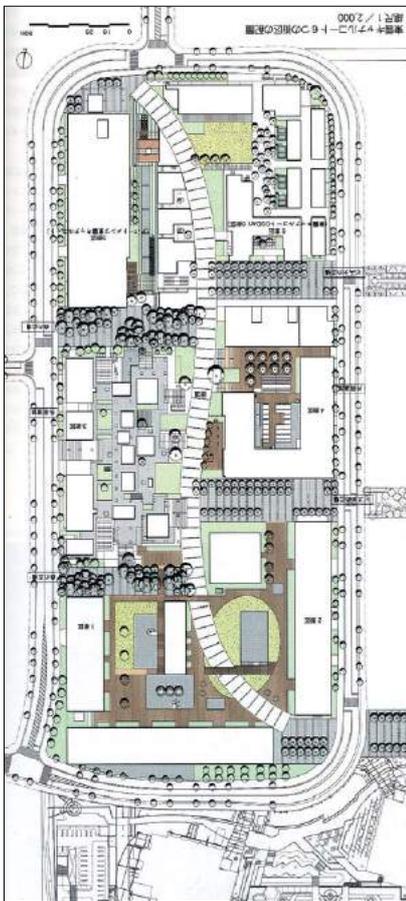


스이세(水社)지구 버스터미널 공원

각 가구에 세워지는 집합주택은 아마모토 리켄, 이토오 슈요, 쿠마 켄고 등 저명한 일본의 건축사들이 설계를 담당하였다. 이 중 아마모토 리켄은 단지 전체의 어드바이저 역할도 맡았다. 6개의 가구는 이처럼 각기 다른 건축사에 의해서 다른 삶의 모습이 디자인 되었다. 시노노메 캐널코트는 각 주거동의 건축 디자인 뿐만 아니라 단지의 구성 및 랜스케이프 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단지의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살고, 일하고, 즐기는 24시간의 생활을 서포트하는 여유 있는 마찌즈쿠리'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도시생활을 서포트하는 S자형 예비뉴(avenue)

CODAN의 중앙을 S자형으로 관통하는 'S자형 예비뉴' 골짜기에는 주거의 유택함을 더하는 다채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상호 소통하는 활



시노노메 캐널코트의 건축·조경·단지 디자인



시노노메 캐널코트의 건축·조경·단지 디자인

기가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2)환경을 배려한 옥상녹화

CODAN에서는 옥상녹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히트 아일랜드(heat island)의 완화나 건물의 단열강화, 나아가 녹음이 우거진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에 유택함을 가져다 주고자 하였다.

3)활기찬 커뮤니티 스페이스

단지를 둘러싼 도로와 S자형 예비뉴를 연결하는 4개의 녹도는 거주자의 액티비티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각 주동의 엔터런스도 녹도를 면하여 설치되어 주거 단지내 보행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자 하였다.

4)새로운 직주근접형 마찌즈쿠리

각 블록의 저층부(1~3층)에는 거주자나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유택함을 부여할 수 있는 생활편리시설이나 SOHO가 계획되어 잠자고 휴식하는 것에서부터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생활의 장면에 대응하고 하였다. 이 밖에도 어린이나 고령자를 배려한 단지계획 요소들이 포함되는 등 새로운 주거단지의 모델로서 고심한 흔적들이 엿보인다. 시노노메 캐널코트가 과연 근미래 집합주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